



12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12호

(루계 제710호)

## 차례

|                                 |    |
|---------------------------------|----|
| 최고사령관의 열다섯해 .....               | 3  |
| 12월이 전하는 이야기 .....              | 4  |
| 우리 어버이 .....                    | 4  |
| 그날의 메아리 .....                   | 5  |
| 《둔갑술》 .....                     | 13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 14 |
| 그네터에서(외2편).....                 | 14 |
| 보물찾기 .....                      | 15 |
| 밤늦도록 부르는 노래 .....               | 15 |
|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             | 16 |
| 고향집의 자장가소리.....                 | 16 |
|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명작이 태어난다 (1) ..... | 17 |
| 주체문학의 대강 .....                  | 18 |
|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              | 19 |
| 그이의 야전솜옷 .....                  | 19 |
| 오 혁명적군인정신이여!.....               | 20 |
| 나는 《평양날과람》 .....                | 21 |
| 두 불빛은 속삭이네 .....                | 21 |

|  |    |
|--|----|
| 콩술이 설레인다 .....   | 22 |
| 려명은 어디에서 .....   | 22 |
| 우리의 성새는 끄떡없으리 .....                                    | 23 |
|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격조높은 시적형상.....                           | 24 |
| 병사들의 고향집에 기념사진 있네 .....                                | 28 |
|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                                  | 29 |
| 철쭉꽃을 안고 온 처녀 .....                                     | 30 |
| 가을날 .....  | 41 |
| 법에 대한 생각 .....   | 42 |
| 한치의 땅 .....  | 42 |
|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습들 .....                                   | 43 |
| 축복받은 경연무대와 더불어 영원할 사랑의 서사시적화폭 .....                    | 46 |
| 가 을(외1편).....  | 49 |
| 농민 .....   | 50 |
| 경구, 격언.....  | 50 |
| 세월이 지난뒤 .....  | 51 |
| 그들은 11명이 아니였다.....                                     | 61 |
| 그들은 평범한 처녀들이였다 .....                                   | 61 |
| 공에 담겨진 존엄의 무게.....                                     | 62 |
|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권의 창조와 소설문학의<br>새로운 전진(2)..... | 63 |
| 우리 말을 빛내이기 위해 애쓴 어학자.....                              | 69 |
| 3차원상에서의 폭발 .....                                       | 70 |
| 한해를 보내며 .....  | 79 |

## 최고사령관의 열다섯해

김정삼

물랐어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그이를 높이 받들어 모셨던  
열다섯해전 력사의 그날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라

푸른 하늘가에 총창을 번뜩이며  
걱정의 환호를 올리던 병사들도  
경축의 축등아래 더덩실 어깨 흔들며  
춤바다를 펼쳤던 인민들도  
그날엔 정녕 다 알지 못했어라

어찌 알았으랴  
얼음판에서 팽이치기에 신바람난  
저 꼬마들의 귀여운 볼웃음을 위해  
장군님 넘으셔야 할 철령이 첩첩 놓여있는줄  
불빛밝은 대동강반의  
저 행복한 청춘들의 속삭임을 위해  
장군님 헤쳐가셔야 할  
섬초소의 풍랑사나운 배길들이 있는줄

언제나 장군님을  
기쁨속에만 모시고싶던 그 소원앞에  
찬바람에 야전복을 날리시며  
그이 오르셔야 할  
오성산의 절벽길이 있음을 상상하기엔  
장군님만 믿고사는 인민의 마음이  
아 너무도 너무도 아팠거니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제국주의무리들과  
총검으로 맞서신 열다섯해  
그처럼 고생이란 고생 다 겪으시면서도  
허리띠를 조이는 인민을 두고  
가슴아파 잠 못 드시고  
한덩이 췌기밥조차 인민과 나누어오신 열다섯해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고  
전선길 천만리를 누벼오신 열다섯해

더 말해 무엇하랴  
남들이면 백번도 무릎꿇을 그 존엄한 세월  
어떻게 우리가  
시련의 천만언덕을 넘어오면서도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천리길을 걸으며  
행복의 만리길을 걷는법 배웠던가를  
문지 말자 열다섯해 하루한시도 쉬임없이  
병사들을 찾아 고지의 산밭들 오르고 오르시느라  
어느 하루 벗으신적 없는  
열다섯해 눈비가 고스란히 슴배인  
장군님의 그 야전복이  
아 눈물겨이 말해주고있거니

그이 없었다면  
언제나와 같이 명량한 우리의 출근길  
궤도전차의 차창가에 어리는  
아침해돋이의 환희가 무엇이랴  
대리석계단을 밟고 들어서는  
해빛밝은 교정의 강의실이 무엇이랴  
자주의 존엄으로 세계를 굽어보는  
내 조국의 장쾌한 기상이 무엇이랴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를 승리로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신분이 누구이신가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이 행성에 계셔야 할분이 정녕 누구이신가를  
운명의 진리로 새겨준 열다섯해  
백년천년으로도 헤일수 없는  
백두령장의 성스러운 년대여!

오 열다섯해  
그 력사의 탑우에  
우리 장군님 선군의 해빛으로 감싸 없으신것은  
민족의 운명이였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김일성**민족의 존엄이였다

금지로워라  
12월의 하늘높이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여  
우리 장군님 아로새기신  
최고사령관의 열다섯해속에  
더욱 아름답고 더욱 가슴벅찰  
우리의 래일이 웃으며 마중오는구나!

## 12월이 전하는 이야기

고남철

잊지 못할 12월의 어느날  
늘 그러하시듯 빨찌산전우들이 생각나시면  
집무실의 창가에서  
대성산렬사릉을 바라보곤 하시던  
아버이수령님  
그날은 어이하여 그리도 오래도록 바라보셨던가

이제 오래지 않아 12월 24일  
우리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실  
그날의 환희를 벌써 가슴에 안아보시는가  
뜻깊은 날에 맞이할 경사여서  
수령님은 누구보다  
어머님과 하고싶으신 이야기 많으셨으리

정숙동무 기뻐하오  
우리는 얼마 안있어 김정일동지에게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기려 하오  
다름아닌 12월 24일에 말이요.

아 우리 어찌 다 알라  
아버이수령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을 뜨겁게 받아안은  
주작봉의 술숯은 얼마나 격정으로 설레였으랴  
민족의 력사로 자랑높은 대성산의 봉이봉이들은  
그 얼마나 감격에 들썩였으랴?...

안도의 밀림에서 빨찌산의 첫 대오앞에  
백두산 김대장으로 거연히 나서신 그날부터  
피의 바다 불의 바다를 다 건느시며  
천만산악 만리눈보라도 다 헤쳐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은  
최고사령관의 한평생

강도 일제를 쳐이긴 항일대전  
승냥이 미제를 때려부신 반미대전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을

가사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한평생 어느 하루도 놓지 않으신  
혁명의 총대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력사를  
궁지높이 돌이켜보시는가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환희를 안고 끝없이 설레이던  
천고밀림의 파도소리 다시 안아보시는듯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이 낳은 천하제일명장  
그이께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기심은  
주체혁명위업의 요구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  
한생의 소원이 다 풀리신듯  
수령님 려사릉언덕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여라

-정숙동무  
우리 민족이 받아안을 크나큰 경사를  
내가 꼭 12월 24일에 정하러는지 아오  
그것이 정숙동무의 제일 큰 념원이기때문이요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 굳게 잡으셨던 만경대가문의 총대를  
그가 이어받아 주체위업을 승리로 펼칠것입니다  
조선을 21세기의 상상봉에 받들어올릴것입니다

수령님 따라섰던  
안도의 그 봄날처럼 21세기의 김대장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따라  
천만군민이 정렬한 선군의 새 력사여  
아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축복속에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어라  
아, 12월 24일!

## 우리 아버지

심재훈

낮에도 인민들을 한품에 안고  
밤에도 인민위해 마음쓰시네  
이 땅에 만복을 안아오시려  
한생을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  
아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아버지

천리를 가시여도 사랑을 주고  
만리를 가시여도 믿음을 주네  
인민을 찾아서 가신 길우에

크나큰 행복이 꽃피어나네  
아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아버지

장군님 그 품속에 인민이 살고  
인민의 마음속엔 장군님 계시네  
하나로 뭉쳐져 일심단결된  
선군의 내 조국 찬란하여라  
아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아버지



김창수 그림 류명구

# 1

12월치고는 날씨가 별로 따뜻해 사람들은 자연도 이땅에 도래한 좋은 시절과 구색을 맞추느라고 봄아씨처럼 정답게 군다고 했다.

양력설을 며칠 앞둔 오늘도 날씨는 여전했다. 대동강이며 보통강들에서 피여오른 젖빛안개가 이른새벽부터 자욱히 도시를 감싸안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저택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시었다.

사위는 아직 고요했다. 물안개는 섬돌밑에까지 흘러와 굽실거리고있었다.

푸근하고도 눅눅한 대기, 고요한 정적...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선한 대기를 호흡하시며 잠시 마당가를 거니시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이해 세밀의 류다른 날씨를 두고 이 땅에 깃드는 평온과 안정의 조짐으로 말하고있지만 그이께서는 오히려 그 어디에선가 각일각 밀려오고있는 무서운 불구름의 징조로 감수하고계시었다.

이번에 미국대통령으로 다시 들어앉은 호전광 트루만이 남조선에 수십만정의 총과 반땅크포, 수많은 함선들과 비행기를 포함한 막강한 무장장비를 넘겨주었고 그것에 광적인 고무를 느낀 리승만역도는 일제시기의 장교들마저 남조선군에 마구 편입하고있는것이다.

사실 수령님의 심중에서는 이미 우리 공화국은 미제와 전쟁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

로 자리를 펴고있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싸움준비는 어느 일과는 달라 언제까지 끝낸다는 말미를 두고 하는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맞받아 싸워야 하는데 싸움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죽음으로서도 보상할수 없는 피멸의 고통만을, 망국노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것이다.

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전 38도선 연선지방들을 돌아보시고 오시던 그 바쁘신속에서도 요즈음 동해지구 비행대에 나와있는 항공부문 일군들을 만나 빠른 시일내로 지금의 비행련대를 비행사단으로 확대할데 대한 중요조치도 취해주셨고 어제 밤에는 민족보위성에 들리시어 요즘 활발히 벌어지는 《조국보위기금헌납》운동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부족되는 인민군 무장장비들을 빨리 해결해올데 대한 긴급명령도 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새벽녘에 댁으로 돌아오시긴 하였으나 잠시 주무실 틈도 내실수가 없으시었다.

아무래도 이길로 군사지휘일군양성의 핵심기지인 평양학원과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으로 나가 전쟁준비, 특히 전투훈련정형을 알아보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방금 보위성 훈련지휘 일군들을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으로 부르시고 밖으로 나오신것이다.

경위중대장 라두일이 안개발을 밟으며 바빠 다가왔다.

《장군님, 강건총참모장이 졸전에 저에게 아드님



에 대해 물으면서 다른 일이 없으면 아드님을 모시고 좀 와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라두일의 어조가 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며 가야 할 일이면 같것이지 여느 때없이 그런 보고는 왜 하느냐고 물으시었다.

라두일은 약간 고개를 기웃하며 눈을 껌벅거리었다.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신형자동차총이 하나 생겼는데 아드님께서 한번 신나게 쏘아보시게 해야 하지 않겠냐니, 오후에는 신형기관총을 쏘아보시게 할 예정이라니...》

수령님께서 별안간 폭소를 터뜨리시는 바람에 라두일의 말은 중단되었다.

《하하... 그 사람 그러단 신형대포를 안겨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겠소.》

《네에? 허허...》

라두일도 그만 웃음집이 흔들리운듯 어름을 잊고 소리내 웃었다.

뜰안이 환해지게 밝은 웃음을 웃으시던 수령님께서는 얼마간 정색하시며 계속하시었다.

《아마... 김정숙동무가 세상을 떠난지 석달밖에 안되는데도 어제는 생일날이였고 하니 우리 애들이 걱정되어 생각다 못해 그런 소릴 한 모양인데...》

총참모장동무한테 가서 애길하오. 우리 애들 걱정 말구 얼마전에 모스크바에서 쏘련정부 지도자들과 합의한 문제들중에 금년내로 군사부문에서 결속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던데 어서 그 일들부터 마무리하라고 말이요. 그리고 속히 각 구분대들의 전투훈련실태를 료해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 장군님, 오늘은 장군님께서 자제분들과 하루를 같이 보내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어린 라두일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는 순간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찢르르해남을 느끼시었다.

라두일의 말을 듣고보니 자신께서 집일에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것이다.

(그래, 사실은 어제가 애들과 같이 보내야 할 날이었지, 음.)

다시금 뭔가 아릿한것이 흉벽을 훑어내리었다.

잠시 허공에 던지신 그이의 시선에도 그 아픔은 진하게 배여있는듯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시 라두일에게로 눈길을 옮기시며 나지막한 음성으로 우리 정일이 어머니 산소에 가자고 하던가고 물으시었다.

《그런건 아니지만... 간밤에...》

수령님께서는 활시위같은 긴장이 슬며시 살아오름을 느끼시면서 라두일을 지켜보시었다.

《순찰을 하느라구 저 정원에 잠시 나와섰는데... 갑자기 <어머니> 하고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않겠습니까. 돌아보니 아드님께서 불꺼

진 방 창문을 열어잡으시구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계셨습니다.》

한순간 수령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길을 떨구시었다

눈물에 젖은 아드님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남아 가슴을 찡찡 울려주는것만 같으시었다.

어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일이 바쁘시여 자제분들과 함께 묘소에 찾아가볼 짬을 내지 못하시었다.

그러니 아드님께서는 어제 온 하루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랴.

아드님의 가슴에 것처럼 큰 슬픔과 빈 자리를 남겨놓고 영원히 떠나간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격랑처럼 일어 실로 그이께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려우시었다.

혈전만리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헤아릴수 없이 당하시며 언제한번 지는 일 없이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오신 수령님이시였으나 왜선지 이 순간에만은 마음을 쉬 돌려잡으실수가 없으시었다.

불쑥 이런 가슴 저린 날들이 오면 김정숙동지께서 그 아픔들을 덜어주기 위해 몹시 원심을 쓰군 하시던 일들이 생시처럼 눈앞에 떠오른다.

너사께서는 수령님께서 이역땅에 묻고온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그리워하실수 있는 이런 때가 오면 언제나 모란봉사격장으로 그이를 먼저 모시군 하시었다.

그러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너사와 함께 동지들이 남기고 간 념원과 못다 푼 원수들에 대한 원한을 총대에 실어 과녁에다 불벼락을 퍼붓군 하시었다.

총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산부리를 잡아 흔들적에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틀어잡으신 그 총대로 전우들이 바라던 그 세상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결심이 산악처럼 솟구쳐오르군 하시었다.

이태전 단풍이 타는듯이 붉던 그날에 금강산 삼일포에서 울린 너사의 그 총소리도 생각하면 수령님을 위한 백두산장군식의 위로인지도 몰랐다.

아, 그 총소리는 조선혁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릴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으셨건만 어이하여 그리도 빨리 간단 말인가.

풍량이 인 사색의 바다로 하염없이 추억의 노를 저어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뒤쪽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자 가볍게 놀라시며 굳어지시었다.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드셨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서둘러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군복색갈에 가까운 달긴 옷에 붉은 테를 두른 운두 높은 장군모를 쓰고 거의 반달음으로 다가오계시었다.

약간 미소를 지으신 그 얼굴모습이 어쩌면 그리도 떠나간 김정숙동지의 모습과 비슷하던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만 가슴을 예이느것만 같은 아픔을 느끼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리지에 넘치시는 눈길로 잠시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군인들처럼 차렷자세를 취하시였다.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뭐라 말 못할 걱정이 가슴속에서 뒤채이는것을 감득하시며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라고 이르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천만마디중에서 한마디를 골라 올리시는듯 한 신중한 낮빛으로 말씀하시였다.

《우선… 총참모장아저씨한테 저도, 경위중대장아저씨도 다 보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여서 잠시 놀라운 낮빛을 짓고계시다가 경위중대장만은 가지 못한다는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갔다오는 게 옳지 않느냐고 의논조로 물으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한결을 다가서시며 다소 결연한 어조로 말씀올리시였다.

《총참모장아저씨 전날 경위중대장아저씨가 저의 단검을 가져다 바친것때문에 부르는것 같습니다.》

《단검?》

《네. 조국보위기금으로 바친것 있지 않습니까.》

《아…》

한순간 아버지수령님의 눈앞에는 지난 가을 어느날저녁에 있었던 일이 번개치듯 떠오르시였다.

그날 저녁 김일성동지께서는 댁으로 돌아오시며 자신의 가정에서도 《조국보위기금헌납운동》에 무엇을 좀 낼것이 없을가 하고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두산에서 빈 배낭 두개만 가지고 돌아오신지라 집안에 앙금이 가 앉은것도 없어 낼만 한 물건이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하여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서시는 데 부엌에서 진지상을 들고 들어와 그이께 올리신 김정숙동지께서 어리신 장군님이 계시는 두리반쪽으로 물러앉으시며 저르기 밝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제 낮에 우리 집에서 헌납할 조국보위기금명세를 좀 짜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놀라우시여 고개를 드시며 그래도 이 집에서 뭐 낼만 한 물건이 있더냐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가볍게 웃으시며 대답을 올리시려는데 낮에 만경대에서 수령님댁으로 오셨던 리보익할머니께서 좀 나아보이는 자신의 밥을 어리신 장군님의 밥그릇으로 떠옮기시며 먼저 말씀하시였다.

《산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하던 장군네 집이 해방이 되였어도 노란 조밥이라구 김구선생마저 걱정하며 갔는데 애어머니는 조국보위기금을 장만

한다구 흰쌀은 물론 찬가지마저 푹 줄인단다.》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생각이 훌륭하시여 환히 웃으시는데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리보익할머니 밥그릇으로 다시 밥을 떠옮기시며 혼자소리를 하시였다.

《난 노란 조밥이 더 좋은데 증조할머니 공연히 밥이사를 하신다니까.》

수령님께서도 웃으시고 김정숙동지와 리보익할머니께서도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소리가 잦아든 후 김정숙동지께서 뭔가 또 말씀드리려 하시자 식량이외에 더 조절할게 있더냐고 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다린듯 얼른 대답을 올리시였다.

《네, 쓰디꼬브대사가 기증한 은초대 두개와 치즈차꼬브부인이 료양기념으로 선물한 합금화장품통 그리구 요즘 지방에 나가있는 림동무가 보내온 보약 한틀과 그사이 조금 저축했던 생활비가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쁨을 금하실수가 없으시여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숙동무가 내 마음을 알고 정말 좋은 생각을 했소. 그러지 않아도 난 이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국보위기금회사에서도 수상네 집이 앞장서야 할텐데 어찌나 하구 걱정했댔소… 그런데 말이요. 좀 저축했다는… 그건 따로 좀 생각해보지 않겠소? 이번엔 어떻게 해서라도 새옷 한벌을 장만하기로 하지 않았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새옷 한벌 해입히지 못해 것처럼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심정이 가슴에 사무쳐와 저도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며 말씀을 올리시였다.

《장군님, 저를 두고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저는 나라살림이 펴이구 인민들이 다 잘살게 될적에 제일 좋은 천으로 한벌 해입겠습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거워 오르시여 잠시 말이 없이 바라만 보고계실 때였다.

어머님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지켜보시며 저르기 격동된 낮빛으로 앉아계시던 아드님께서 낮으나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저도 조국보위기금을 내겠습니다.》

수령님께서 놀라시며 어리신 장군님을 돌아보시였다.

아드님께서서는 단검을 꺼내드시였다.

그것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 낮에 조국보위기금명세를 작성하실 때에도 아드님께서 단검을 바치겠다고하였다고 말씀드리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놀라우신 눈길로 아드님의 두손우에 놓여있는 단검을 굽어보시였다.

희금속으로 멋있게 장식한 그 단검은 얼마전에 쏘련(당시)을 방문하시는 수령님을 수행하였던 강



건총참모장이 그 나라의 총참모장에게서 받은 것인데 강건은 귀국하는길로 어리신 장군님께 외국 방문기념으로 드린 것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불시에 흥벽을 뜨겁게 해주는 불덩이같은것을 느끼시었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가? 언제 저렇게 나라의 국력부터 생각하는 어른이 됐을가?)

김정숙동지께서도 형언할수 없는 기쁨에 싸여 사랑하는 아드님을 지켜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단검이 어떻습니까 하는 열렬한 눈길로 이윽히 올려다보고계시는 아드님을 향해 저르기 격동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훌륭하다. 값진 물건이니 한몫 든든히 할거다. 그런데 총참모장이저씨가 섬섬해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선뜻 확신에 넘치는 음성으로 대답을 올리시었다.

《총참모장이저씨 비행기, 땅크, 군함을 가져오는데다 바쳤다는것을 알면 기뻐할겁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보실수록 어리신 장군님이 대견하여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씀하시었다.

《음, 정말 훌륭하다. 래일 두일아저씨더러 민족보위성으로 가져가라구 하자.》 ...

생각에서 깨어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추억이 불러다준 후덥고도 벽찬 심정에 가슴이 뻐근해움을 느끼시면서 강건은 아마 최근에야 조국보위기금으로 헌납된 물건들을 돌아보다가 눈익은 단검도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었다.

섬섬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두일을 불렀겠으나 무슨 큰일이야 있으랴싶으시여 그이께서는 어서 결론을 주십시오 하는 눈길로 올려다보고계시는 아드님을 향해 의논조로 말씀하시었다.

《확인도 해보구 섬섬한 소리도 몇마디 하자구 경위중대장을 부른 모양인데... 어쩌냐? 알릴 일도 있는데다 군인은 상급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게 돼있으니 두일아저씨만은 보내는것이?》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말씀이 너무도 사리정연하고 명쾌하시여 기쁨에 넘친 어조로 라두일아저씨만은 보내는것이 옳겠다고 대답을 올리시었다.

라두일은 떠나도록 지시를 받고서도 인차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수령님의 다음 행보가 못내 걱정스러워 그러는것 같았다.

그의 심정을 짐작이라도 하신듯 아드님께서 다시 수령님께 말씀을 드리었다.

《장군님, 어머님께선... 저에게... 아버님께서 마음이 무거워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날이 오면 반드시 모란봉사격장같은데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다심하고 불같은 마음이 그대로 가슴에 밟혀오는듯싶어 한순간 눈굽이 뜨거워남을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얼싸안듯 아드님의 어깨를 껴안으며 말씀하시었다.

《자자, 그렇지만 모란봉사격장으로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가 꾸려놓은 만경대사격장으루! 음... 그래 다음엔 또 무슨 문제가 있다구?》

아드님께서서는 수령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기쁨때문인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종건형님과 봉옥누나가 왔습니다.》

《그래?!》

수령님의 얼굴에는 한없이 반가운 웃음이 떠올랐다.

종건이라면 얼마전까지 여기서 경위중대 부소대장으로 있다가 비행대대 정치일군으로 간 청년이고, 봉옥이라면 이곳 타자수로 있다가 그 비행부대 통신소대 소대장으로 간 처녀였다.

《왜들 왔다더냐?》

《그곳 군인들이 조국보위기금으로 바치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가지구 올라왔다가 들렸답니다.》

《저런! 지금 어디들 있느냐?》

《모란봉에 열린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두사람 다 김정숙동지의 손길아래서 자랐으니 그 묘소부터 찾을건 뻔한 일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부대가 만경대에서 멀지 않은곳에 있으니 마침 학원으로 가는길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 2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군대에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두 자식을 대하는것만 같은 친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체험하고계시었다.

참으로 얼마나 반갑고 대견하신지 몰랐다.

종건이만 봐도 그랬다.

해방직후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경위중대를 돌아보시다가 그들의 생활이 너무 단조로운것 같아 종건을 불러 벽보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르시었다. 그런데 뒤통간이 지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종건은 무엇때문인지 벽앞에 가 한참 섰다가는 벽돌무지쪽으로가 한참 섰기도 하며 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다시 밖으로 나오시여 종건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으시었다.

《저... 장군님, 아무리 생각해도 벽보라는게 뭔지?...》

수령님께서서는 한순간 저도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금할실수가 없으시었다. 그 다음엔 벽보라는것조차 모르고 살수밖에 없었던 어둡던 어제날들과 피어린 항일의 처절한 날과 달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여져오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으시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종건에게 동무는 모를수 있다, 그걸 모르는것은 동무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주신 후 벽보라는것은 넓다

란 종이장 같은데다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소개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는 정치 교양방법이라는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저녁 김책동지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식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벽보를 자주 발간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종건이 쓴 원고도 한번 잘 보아주고 화구도 좋은것으로 얻어다주라고 당부하시었다.

며칠후 벽보가 나왔다길래 가보시니 제법 《봉화》라는 제목까지 달고 나무랄데 없이 잘되었기에 수령님께서는 쏘련엔 《이스크라》라는 신문이 있는데 동무는 우리식으로 《봉화》라고 달았으니 아주 잘되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이처럼 벽보라는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종건이가 인제는 한개 비행대대의 정치일꾼으로까지 자랐으니 아버지수령님의 대견하신 심정은 실로 무엇이라고 형언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어찌 종건이뿐이라

그결에 앉아 반가움때문에 연방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저 봉옥이는 또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했는가.

봉옥이 타자수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던 어느날 밤이었다.

그밤 반동놈들의 습격으로 수령님의 집무실 주변은 총소리로 한동안 소란했었다.

경위중대원들과 함께 몸소 총을 드시고 밖에서 나갔다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서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타자기 놓인 책상맡에 엎드려있는 봉옥을 보자 총에 맞지 않았는가 걱정되시여 그를 급히 손잡아 일으키시었다.

그러나 어느 한곳 부상당한데도 없어 수령님께서 가볍게 웃으시며 놈들을 다 때려눕혔으니 무서워말고 어서 일을 보라고 안심시켜주시었다.

그런데 봉옥이한테 실지 위태로운 일은 그후에 터졌다. 경위중대장 두일이 강건총참모장에게 총소리를 물론 총을 봐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수령님결에 그냥 두겠느냐, 당장 타자수를 교체해달라고 매우 강하게 제기한것이였다.

강건총참모장까지 적극 지지해나서는 바람에 봉옥이 쫓겨나는것은 시간문제인듯싶었다.

그때 역시 불쌍한 봉옥이를 아버이사랑으로 꼭 품어안으시고 나서신분은 김일성동지이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라두일을 불러앉히시고 그러면 되는가, 그한테 총 쏘는 법이란, 총소리에 익숙하도록 도와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지, 난 우리한테 왔던 애를 그렇게는 못내보내겠다, 내가 직접 책임지고 너결로 키워놓을테니 그냥 놔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던것이다.

그후 김일성동지께서는 틈이 나면 봉옥이를 데리고 모란봉사격장으로 나가시였고, 바빠 못가실 때에는 김정숙동지에게, 또 이따금은 어리신 아드님더러 봉옥누나를 데리고 사격장으로 가라고 이르곤 하시었다.

아드님께서는 이미 백두산시절부터 이 나라의 또 한분의 장군으로 키우시려는 부모님들의 각별

한 관심속에서 무기 다루는 법을 다 익혀두셨던 관계로 봉옥의 《교관》쯤 되는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반년후 봉옥은 무리를 지어 달려든 반동놈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나 백발백중명사수로 잘 싸웠던지 경위중대장 라두일은 전날 자기가 한 말마저 가뭇 잊고 그를 경위중대로 넘겨달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다.

바로 이처럼 총소리마저 무서워하던 봉옥이가 오늘은 비행대의 한 초소를 책임진 소대장으로까지 자랐으니 아버지수령님의 기쁨은 실로 뭐라 이름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아드님을 자기결으로 더 당기려고 싱깅이를 하고있는 그들을 한없이 따뜻한 눈길로 돌아보시다가 물으시었다.

《그때 부대에서두 〈조국보위기금헌납〉 운동을 벌리고있단 말이지?》

종건이 제격 대답을 올리였다.

《네,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는데 군대라구 어떻게 받아쓸 생각만 하겠습니까?》

봉옥이도 얼른 꺼들었다.

《장군님, 우리 녀대원들이... 언제 그렇게 집에다 편지를 내구 연락을 해서... 은반지며 흰쌀 등을 보내오게 했는지 전 막 몰랐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그런데 전투훈련은 잘되고 있느냐?》

수령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듯 웃음을 거두시며 물으시었다.

그런데 여직껏 창공에 내려쳐오른 종달새들마냥 쉽없이 떠들던 두사람의 입은 약속이나 한듯이 다물어졌다.

《왜? 잘 안되느냐?》

종건이가 다소 바체이더니 고개를 들며 말쑤를 올리였다.

《장군님, 요즘 〈조국보위기금헌납〉 운동이 벌어지구 무장장비들을 마련하는데 너무도 많은 돈이 든다는 소문이 돌아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처럼 국방을 강화하고있는데 미제놈들이 감히 덤벼들겠는가 해서 그러는지 야간훈련은 물론 낮에도 비행기들을 잘 띄우지 않습니다.》

《...》

아버이사령님께서는 종건의 말을 다시 음미해보기라도 하시는듯 잠시 말쑤가 없으시더니 봉옥에게 시선을 주시며 너희네 통신소대에서는 어떠냐고 물으시었다.

《장군님, 무전기가 부족하니 훈련이 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탄마저 잘 내려오지 않아 총을 한번도 쏘아보지 못한 대원까지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예감하셨던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오신 길이였으나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시었다.

당장 사단으로 자라야 할 비행련대에서 이 무슨 마음 편한 소리들이란 말인가.

전민이 한사람같이 총을 잡아야 할 이 준엄한 시기에...

수령님의 안팎에서는 본격 같은것이 번쩍이였다.

### 3

어버이수령님께서 버린 돌덩이들처럼 널려있던 유자녀들을 한사람한사람 친어버이심정으로 찾으시어 햇빛같은 품에 안아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하신지도 어언 3년이 되었다.

수령님께서 도착하시자 학원마당은 대번에 격정의 바다-울음판으로 돼버리었다.

《아버지-》

유자녀들은 소리쳐 울며 수령님품에 매달렸고 그이께서는 이 아이 저 아이 들어올려 불을 맞부비시며 반가움을 금할수 없어하시었다.

《오냐, 내 너희들 보고싶어 왔다. 예크, 명철이 너 껍 컸구나. 가만, 넌 침 보는구나. 아니, 알만하다. 리권행의 아들이지? 꼭 아버지질 닮았구나. 울지 말아, 이제부턴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수령님께서서는 쉽없이 안겨드는 술한 원아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주시는 그속에서도 지금 학생들의 차림에서 부족한것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원장을 불러 곧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입을 새 옷을 제일 좋은 천으로 한벌씩 더 지어줄것과 모자는 왜놈의 중학모처럼 각이 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애가 쓰고 온 모자처럼 우리 식으로 둥글게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었다.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던 원아들이 제법 몸들을 제빠듬하게 껴히고서 장군님만세를 웨치자 그이께서는 벌써 군인으로 다 자란 대장부들을 보는듯싶어 만시름을 잊으시고 소리내여 웃으시었다.

그러나 원아들중에는 아직 제 생각밖에 모르는 어린애들도 있어 수령님의 가슴에 다시금 형언 못할 아픔을 사정없이 몰아다주기도 하는것이였다.

《장군님, 어머니는 이제 정말 못오시나요?》

《어머님 보고싶어요.》

수령님께서서는 얼음장위에 떨어진 씨앗같이 불쌍하기 그지없던 이 애들이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비로소 삶의 움을 틔우고 나래들을 편것이어서 너사를 그처럼 애절히 찾고 또 찾는것이라고 생각하시었다.

정숙동무는 너무도 큰것을 안고 갔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되는 피로운 순간이였다.

그이께서는 울음이라도 터뜨리고싶은 그 피로움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누구보다 가장 아파할 사람은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드시여 서둘러 눈길을 돌리시었다.

아니나다를가 아드님께서서는 지금 막 모자채양을 밀로로 깊이 내리당기고계시었다.

아드님곁에 섰던 종건이와 봉옥이도 훌쩍 느끼며 주먹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빗뚛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쓰리고 저린 심정을 안고 오늘 이날에 슬픔을 피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체념 비슷한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수령님의 이 이룰데 없이 비통한 심정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학원 원장은 그이께 어서 사격장으로 가시자고, 김정숙동지께서 원아들을 위해 손수 삼을 들고 꾸려주신 사격장이어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고 오열을 삼켜가며 말씀드리었

다.

수령님께서서는 원아들의 사격솜씨를 어서 보고싶으신듯 다소 서두는 걸음새로 자리를 뜨시며 지금 막 당도한 항일혁명투사들과 민족보위성훈련지휘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었다.

### 4

김정숙동지의 불같은 체취가 구석구석에 배여있는 사격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안의 정적을 깨며 총성이 울릴적마다 불길처럼 일어서는 뜨거운 추억들과 피처럼 끓어오르는 새로운 열정을 느끼며 연방 박수를 치시었다.

《잘 쏘는군, 잘 쏘. 그런데... 사격은 왜 몇아이들만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오른쪽에 앉은 원장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었다.

자기 옆자리에 모신 어리신 아드님께서 총소리에 놀라지 않으실가 걱정하며 원심을 쓰고있던 원장은 의자에서 솟아나듯 벌떡 일어나 어리뻑한 낫빛만 지었다.

《높은 반 학생들만 준비시킨게 아니요?》

수령님의 물으심의 뜻을 드디어 이해한듯 원장은 서둘러 대답을 올리였다.

《아닙니다. 다 사격훈련에 참가시키려 해도 탄알이 없습니다. 보위성에선 열다섯살이상 되는 애들이나 참가시키는게 좋겠다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니다.》

《...》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아까 종건이들과 같이 오시며 체험하셨던 격한 심정이 다시금 가슴속에서 되살아오르는것을 느끼시며 《문제가 있다. 문제가...》 하고 생각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원아들을 돌보느라 자지 못해 눈에 벌겍게 피가 진 원장을 향해 다시금 따짐조로 물으시었다.

《그러니 열다섯살 못되는 아이들중에는 총을 쏠줄 모르는 애들이 많겠소?》

《네, 무기분해결합정도는 잘들 하지만...》

《...》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더 격렬한것이 끓어번졌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눌러 참으시며 건너편 락엽이 진 숲쪽으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지금 거기서는 총소리에 놀라 어디론가 사라졌던 청서들과 다람쥐들이 달려나와 나무가지들사이로 연방 북나들듯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마 그것들도 가을이 다 지난 오늘이지만 이제 다가올 길고 엄혹한 겨울과 싸워이길 준비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왼쪽에 앉은 한 투사를 돌아보시며 《아동단원 금순이가 아홉살에 희생됐지요?》 하고 물으시었다.

투사는 일어서며 그렇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금순인 연예공연을 하러 오면 유격대원들이 가지고있는 총을 제일 부러워했구 사격훈련장에도 곧잘 따라다니군 했소. 혼자 다니며 공연할 때

도 있다나니 놈들한테 잡히면 피값이라도 하려고 그러는것 같아 나는 소형권총이 하나 생기면 그 애부터 주리라 생각했소.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일찍 놈들한테 잡혀 회생될줄이야... 정말이지 작탄이라도 하나 미리 주지 못했던게 한이었소. 그랬더라면 달려드는 놈들을 제끼구 아직 우리곁에 살아있었을거요. 능히 그럴 애였으니까. 그래서 난 그때부터...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어떤 애든 늙은이든 총부터 쥐여야 하구 쥐지 못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소.》

수령님의 음성은 나지막하셨으나 거기에는 몇 백마디 말에도 비길수 없는 강한 질책이, 잊어서도 안되고 어겨서도 안되는 혁명의 큰 요구가 담겨져있었다.

열다섯살이하는 상급생들이 사격하는걸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손벽이나 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보위성일꾼들의 얼굴에선 비지땀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장군님, 저희들이 그만... 높으신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구...》 하고 한 장령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총대를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는거야 내 뜻이 라기보다 우리 민족의 피의 교훈이 아니요?》

그이의 물음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천만무게를 가지고 울리는듯 했다.

피로 웅어리진 민족수난의 년대와 년대들을 돌이켜보시는듯 잠시 피로운 눈길로 하늘가쪽을 바라보고 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얼마간 격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렇소. 그것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우에 남긴 가장 크고 가장 절통한 피의 교훈이요.

그 교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찌서 슬기로운 이 나라 민족이 마소나 다름없는 노예가 될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외세의 리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될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무슨 연고로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간하는 <아관파천>의 비극적인 운명을 겪지 않았으면 안되었으며 왕궁에 마음대로 뛰여든 왜적에 의해 왕비까지 살해되지 않았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그리고 또 똑똑히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있소... 총, 총, 총을 홀시켰던탓이라고 말이요!》

그이의 격앙된 음성은 천하를 흔드는 천둥소리마냥 보위성일꾼들의 바위같은 가슴들을 쟁쟁 울리였다.

《요즘 미제와 리승만이 우리가 호랑이들을 키워내고있다고 고아대고있소. 그러나 나는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도 뒤걸음치는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키우자고 하오. 저 총건이구 봉옥이도 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외래침략자도 이 나라의 한치 땅, 풀대 하나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하오.》

《장군님!》

보위성일꾼들은 고개를 더 깊이 떨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무장을 들고 조국을 지킬 중임을 맡은 이들이나 자라는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절대로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으시였다.

정녕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 그들인가.

그런데 세월은 이 순간에도 다시 찾을수 없는 한초한초를 뒤로 밀어버리며 멀리 장달음해 달아나고있다.

그이께서는 세상밖으로 사라져버린 그 시간도 새 력사의 창조의 길에 들어선 할 일 많은 우리 인민에게 《태평속에, 게으름속에 망국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그냥 웨쳐대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시였다.

홀연 원아들이 다소 설레이는것 같은 소리에 그이께서는 사색에서 깨어나시였다.

경위중대장 라두일이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원아들속을 헤치며 수령님앞으로 혈금씨금 다가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는 눈길로 바라보시자 라두일은 당는 길로 황황히 말씀올리였다.

《저... 장군님, 이 일을 어떻게면 좋습니까. 총참모장동지가... 저를 아예 바꿔치우겠답니다.》

《허, 무슨 일로 그가 그렇게 노했다는거요?》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였으나 마음속으로 는 좀해선 입에 군바람을 넣는 일이 없는 라두일이 저러는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이걸 받아왔기때문이랍니다.》 하며 라두일이 앞으로 내미는것은 몇달전에 보위성으로 보냈던 그 단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드님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놀라움이 어린 표정으로 일어서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시선을 라두일에게로 옮기시며 조국보위기금으로 헌납하는 물건인데 보위성에서 받지 않으면 어찌한다는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강건동지는 단검을 아드님께서 간수하고있다는 그자체가 조국보위기금이구 수령보위무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져오다니, 그런 펄펄한 사람이 어떻게 경위중대장을 그냥 하겠느냐구 당장...》

《허, 허허... 두일동무가 나하고 있자니 마음고생을 하는구만. 그런데... 어쩐 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드님께로 다시 시선을 옮기시며 계속하시였다.

《강건아저씨가... 섭섭해하는 정도가 아닌것 같은데... 다시 받아두는게 어떻겠느냐?》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활달한 걸음새로 몇걸음 다가오시더니 힘찬 어조로 말씀을 올리시였다.

《장군님, 강건아저씨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그것이 저에겐 필요없습니다. 전 좀 더 센걸 가지고 싶습니다.》

《좀 더 센걸?》

《네, 총을 가지고다니고 싶습니다.》

《총을?》

수령님께서서는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으시여 되 물으시였다.

아드님께서 총을 잘 다루신다는것은 모르시는 바 아니였으나 이처럼 몸에 직접 지니고 다닐 결

심까지 하실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아드님께서는 이제 새해를 맞으시여야 여덟살에 이르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너무도 크게 성장하신 아드님이 못내 놀라우시여 한식경이나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데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총알같이 여문 어조로 뒤말씀을 그냥 이어나가고계시였다.

《어머님께선 늘 절더러... 너도 어서 커서 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구... 오늘은 우선... 명숙아지미가 지방출장을 떠나면서 저에게 맡긴 이 총부터 가지고나왔습니다.》하고 어리신 장군님께서 앞섶을 가볍게 헤치시고 소형권총을 꺼내보이시자 수령님께서서는 더욱 놀라시며 굳어지시였다.

강철빛이 유난스러운 그 소형권총은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쓰시던것인데 녀사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랜 혁명전우이며 라두일의 안해인 리명숙에게 말로 할수 없는 기대를 담아 넘겨주신것이였다.

화염처럼 뜨겁게 일어번지는 감회와 총에 대한 아드님의 불같은 갈망이 수령님의 눈앞을 탁 흐려놓는데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소원과 자신의 결심으로 응축된 불같은 말씀을 계속 올리시였다.

《한마디로 전 어머님 뉘까지 합쳐 장군님을 모셔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눈길로 아드님을 바라보시였다.

어리신 아드님께서는 피눈물로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을 바래우던 그 비통한 시각에 수령보위의 높은 책임을 필생의 위업으로 한가슴에 받아안으셨고,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사고와 움직임을 오직 그 책임을 다하는것에 바쳐질것이라는 억척같은 결심을 신념으로 다지신것이였다.

부지중 수령님께서서는 강반석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받으시던 생각이 나시였다.

이윽고 두자루의 총대로 총검의 숲을 이루어서 잃었던 조국을 찾았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이시고 뒤이어 인젠 벌써 아드님께서 것처럼 어린 나이에 무장을 드실 결심을 하셨으니 이제 이 나라는 그 얼마나 장엄한 총검의 밀림을 이루랴 하는 확신이 온몸을 뒤흔들 형언할수 없는 기쁨속에 휩싸이게 해주는것이였다.

《잘 생각했다. 내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을줄은...》하고 수령님께서서는 행복의 말씀을 하고싶으셨으나 그만 목이 꼭 잠겨와 아무런 말씀도 하질수가 없으시였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벅찬 감동을 누르시며 아드님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꺼내들었던 총이야 그냥 넣을수 없지. 어머니의 생일날도 그냥 보냈는데 한번 쏴보지 않겠느냐?》

《!》

크나큰 격동에 휩싸인 아드님께서는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하시고 수령님을 우러러보시였다.

한순간 허공에서 서로 열싸안은 두분의 눈길은 불처럼 뜨거웠고, 그 눈길을 타고 오가는 기대와 믿음은 온 세계처럼 무겁고 온 우주처럼 다함없었다.

원아들은 행운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하여 바람안은 숲처럼 설레이는데 종건이와 봉옥은 어리신 장군님을 향해 어서 그래달라고 뜨거운 눈길로 우러렸다.

드디어 어리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시려는 결심으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낮으나 자신심에 넘치는 어조로 말씀을 올리시였다.

《그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마치 세기를 두고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거나 한듯 다소 긴장감마저 느끼시며 아드님을 고무하시였다.

《어서 그래라, 어서!》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고무라기보다 뜨거운 기대로 압축된 마음의 분출이고 폭발이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혁명의 오랜 선배들을 향해 맹세의 인사를 깊이 드리시고나서 사격좌지쪽으로 침착하게 걸어나가시였다.

이윽고 민첩한 동작으로 목표쪽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하시더니 한쪽눈을 지그시 감으시였다.

잠시후 대기를 야무지게 찢는 소리가 련거퍼다섯번이나 터져올랐다.

파랗한 화약연기가 권총을 틀어쥔 어리신 장군님의 손주위에서 한동안 감돌았다.

문득 환희의 선풍이 사격장을 휩쓸었다.

원아들은 명중이라고 발을 구르며 만세를 웨쳤고 종건이와 봉옥은 어리신 장군님을 향해 울고 웃으며 박수를 보내였다.

수령님께서도 환하게 웃으시였다.

가슴이 대번에 하늘처럼 열리는듯싶으셨고 대를 이어 억세게 이어질 백두산총대가문의 천만리도 환히 내다보이는것만 같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손에 틀어잡힌 권총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터져나갈적에 사령부를 지켜 한몫 서슴없이 내대군 하시던 김정숙동지를 분명히 다시 보셨으며 수령님을 남해까지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고 불같은 념원을 토로하군 하시던 김정숙동지의 심장의 웨침소리도 푹푹히 다시 들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이제 머지 않아 이 조국땅 위에 태동할 예측할수 없는 거대한 힘도 감득하시였다.

(정숙동무, 동무의 총소리 오늘도 멎지 않았구만. 내 이자 정숙동무의 총소리를 다시 들었던 말이요!)

아버이수령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며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그곳에는 그렇듯 미덥고 그렇듯 림름하신 어리신 장군님께서 종건이와 봉옥이 그리고 오늘의 총성을 레사롭게 듣지 않은 보위성 일군들의 웅위속에 서계시였다.

## 《둔갑술》

70년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지구로 진출하시던 길에 장백현 소덕수에서 불의에 덤벼든 일제 《토벌대》를 적들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신묘한 전술로 족쳐버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전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적들은 우리의 《둔갑술》에서 찾은것 같다고 하시었다.

주체25(1936)년 9월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소덕수 마등창수림속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침입이 예견되는 남쪽과 북쪽의 2개 방향에 경계구분대를 배치하시고 전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었다.

대원들이 해빛따스한 풀밭에서 푹 쉬고나서 또 다시 행군할 준비를 서두르던 한낮이었다. 남쪽경계초소에서 총성이 울렸다. 적정을 알리는 신호였다. 일제 《토벌대》가 우리 수령님께서 이미 내다 보신대로 마등창수림의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거의 같은 시각에 달려든것이였다.

대병력을 출동시킨 적들은 휴식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가운데 놓고 북과 남 량쪽에서 불의에 공격하려 하였다.

적정을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키를 넘는 풀과 떨기나무로 하여 상대방을 가려보기 어려운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마주 다가드는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전술을 적용하기로 결심하시고 기본대오는 서쪽으로 은밀히 빠져 재빨리 건너편등판에 오르게 하는 한편 경계구분대에 구체적인 전투임무를 주시었다.

경계구분대는 북쪽과 남쪽에서 기여드는 적들이 서로 총질을 할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시킨 다음 량쪽의 적들에게 동시에 맹렬한 사격을 가한 다음 기본대오의 뒤를 따라 감쪽같이 철수하였다.

불벼락을 맞은 량쪽의 적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친듯이 맞받아 총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고요하던 숲속이 벌컥 뒤집혔다. 적들은 이리떼마냥

악을 쓰며 제놈들끼리 맞붙질을 해댔다.

등판에 오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편안히 앉아 적들이 저들끼리 죽기내기로 싸우는 꼴을 통쾌하게 구경하였다.

악착스러운 적들의 개싸움은 3~4시간동안이나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러다가 한쪽의 적들이 정 못건디겠는지 도망치려고 먼저 퇴각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서야 다른쪽의 적들은 지금까지 제편끼리 싸운줄 알고 사격을 멈추었다. 그러니 이미 때는 늦어 마등창수림은 일제 《토벌대》의 시체로 한벌 뒤덮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림자조차 남긴것이 없었다.

요행 살아남은 적들은 눈알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휴식하고있는것을 밝은 대낮에 틀림없이 보았는데 수백명의 혁명군부대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노릇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문제, 다시말하여 보통생각으로서는 짐작조차 할수 없게 이상야릇한 일을 두고 적들은 유격대가 《둔갑술》을 썼다고 비명을 질렀다.

《둔갑술》이란 전설이나 신화같은데서 교묘하게 제몸을 다른것으로 변하게 하거나 정체를 가리우는 묘술이나 술법을 이르는 말이다.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둔갑술〉을 쓰시여 소덕수에서 왜놈 〈토벌대〉를 몰살시켰다!》

이러한 소문이 삼시에 널리 퍼져 장백지방은 물론 국내까지 떠들썩하였다. 우리 인민은 끝없는 민족적궁지를 안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나섰고 적들은 질겁하였다.

이 백두산전설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더욱 힘있게 북돋아주고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 본것은 삼도만유격구에서였지만 그의 경력과 가정애사를 구체적으로 들은것은 1936년 봄 만강에 가있을 때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김정숙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라는것과 그가 5살인가 6살 되던 해에 온 일가가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을 함북명승이라고 자랑한다.》

《지금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라운규와 같은 영화재사가 나오고 조기천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배출된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고향 도시가 유명한 백살구산지라는데 대해서도 자랑하고있다. 백화란만한 봄날 회령을 찾는 사람들은 온 시가지가 백살구꽃속에 묻힌 풍경을 구경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숙은 것처럼 아름다운 고장에서 몇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의 눈에 비쳐든것은 마적들이 먼지를 뿌연게 일구며 싸다니는 북간도의 거친 산악이었다.》

《김정숙이 도천리를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1991년 가을에 나는 량강도지방을 현지지도 하다가 그가 심흔을 바쳐 개척한 신파땅을 찾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때였지만 그의 지하활동과 관련된 사적물들은 옛모습 그대로 고이 보존되어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유물들과 사적지들에 바친 신파사람들의 정성은 실로 탄복할만 한것이였다.

그날 강사들은 김정숙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사적지로 나를 일일이 안내하면서 그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 설명가운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세부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압록강기슭에 옛모양 그대로 서있는 음험한 포대를 바라보면서 김정숙이 그 고장을 혁명화하느라고 모험도 많이 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번 당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해가 누엿누엿 넘어가는 석양무렵에 정거장으로 나오면서 신파거리를 뒤돌아보니 어쩐지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 그네터에서 (외 2 편)

박기석

설마 그네까지야...

무산집 《우리 옥순이》

언제 어느때 그네타본적 있었으랴만

그래도 스스럼없이

조용히 웃으며 쌍그네 타자하시네

-그러다 혹시?!...

그러다 혹시 모그네 생기면...

그러다 혹시 방울을 못차면...

쌍그네 마주한 우물집 머느리

그는 도천리 부녀회원

주뭇주뭇 쌍그네 바재이는데

항일의 녀전사 우리 어머니

웃음 함뿔 다정히 속삭이시네

《일없어요, 지난밤 달빛속에서

모그네 막는법이랑 다 익혔었어요》

기쁨이로다 우물집 머느리

하늘 훨훨 꽃구름 잡아볼듯

기쁨이로다 항일의 녀전사

하늘 훨훨 장군님 찾아뵈올듯

오르며 내리며

녀전사 힘껏 타시는 쌍그네

끝내는 딸랑-

하늘중천 퍼지는 방울소리

그 소리에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에 가슴들 열리고

그 소리에 이쪽저쪽

《야-야!》 땅가득 터져오르는 손벽소리

하나 그날 그때

어찌 알수 있었으랴 땅우의 술한 녀인들

항일의 녀전사

쌍그네 타시며 남몰래 속삭인 그 말-

우물집 머느리

하늘중천 남몰래 간직한 그 말-

《오늘 밤 유격대 그 원호물자들을

독골령 바위밑에 갖다주세요》

## 보물 찾기

암만 눈뜨고 훑어보아도

좀처럼 알길 없는 우리 말 우리 글...

큰 《보물》 작은 《보물》

모두들 열싸안고 웃고 떠드는데

안타깝구니 까막는 박서방

팬스레 《보물》 쪽지만 접었다 폈다...

알어라, 까막는 박서방이

너 우리 글 모르면

한뼉 《보물》도 없이 땅도 없이

지주집 머슴살이 할줄

배우자 배우자 우리 글 배우자

웃마을 새로 온

무산집 《우리 옥순이》

밤도와 우리 글 가르치지 않느냐

배우자 배우자 우리 글 배우자

우리 글 배우고 또 배워

보물도 찾고 땅도 찾자!

땅도 찾고 자유도 찾자!

## 밤늦도록 부르는 노래

웃방쪽에서 한곡조 넘기면

아래방쪽에서 또 한곡조

아래방쪽에서 한곡조 넘기면

웃방쪽에서 또 한곡조

열번이라 스무번이라

도천리남정들 도천리녀인들

웃방 아래방 쉽없이 다투는 노래경쟁

아 도천리 이 땅엔

무슨 노래 이리도 많으냐?

무산집 《우리 옥순이》

어둠을 밀어내며 펼쳐놓은 노래경쟁

바라노니

이 땅 이 어두운 세상

우리들 노래로 백번천번 찢어지기를

바라노라

풀죽을 꿰이던 가마에

우리들 가꾼 오곡밥이 갖기를

우리들 세운 우리의 학교에 앉아

우리네 고운 아들딸들이

마음껏 배우며 마음껏 자라나기를

아 어둠을 찢으며

동트는 새날의 새 희망 안고

도천리 밤하늘에 올려퍼지는 노래

아아 낮에 밤을 이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끝없이 비껴흐르는

잊지 못할 도천리 5월이여!

##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지난 기간 군인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위대한 화폭들을 력사의 갈피에 언제나 깊이 새겨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전사들을 뜻을 같이하는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 참다운 혁명의 전우로 여기신다.

잊을수 없는 주체88(199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군관학교를 찾으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학생들의 기쁨은 정녕 끝이 없었다.

하기에 군관학교 학생들은 그 기쁨과 영광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 평시에 훈련을 통하여 준비한 펄펄 나는 싸움군의 모습을 보여드리였다.

일당백싸움군으로 준비된 학생들의 훈련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군대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 추운 날씨에 훈련하느라 군인들이 감기에라도 걸리지 않겠는가 못내 근심하시였다.

그리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군관학교 학생들의 침실과 식당, 강의실을 돌아보실 때에도 실내온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왜 학교안이 이렇게 서늘한가고 하시면서 난방을 어떻게 보장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이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전사들을 더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크나큰 사랑에 접하고나서 군관학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장군님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러면서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마음한뜻으로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리순철

## 고향집의 자장가소리

한원희

옥구슬 은구슬이  
구울러가는 소리와 같이  
소백수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조용히 귀기울이면  
들려오네 실려오네  
고향집 자장가소리  
어머님의 그 노래소리

정일봉기슭을 흘러흘러서  
고향집 프락가를 흘러흘러서  
물결은 물결을 이어  
실어오네 끝없이 실어오네  
하늘같은 그 사랑  
어머님의 자장가소리

항일의 포연어린 군복가슴에  
어리신 아드님을 잠재우시며  
장수별이 떴구나  
밝은 해님 솟았구나  
기쁨에 눈물짓던 그 모습  
김정숙어머님 부르시던  
자장가 자장가소리

어서 어서 자라서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밝은 해빛 불러오라시던  
어머님의 간절한 념원  
못 잊어 세월이 다하도록 못 잊어  
소백수 맑은 물 목매며 흐르네  
한없는 그리움 노래하며 흐르네

아, 노래의 물결우에 실려오네  
위대한 아들을 낳아 키우신  
어머님의 업적은 영원하다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음성  
어머님은 어제에도 오늘도 래일도  
자신에게 힘의 원천이었다시던  
우리 장군님 하신 말씀

옥구슬 은구슬이  
구울러가는 소리와 같이  
소백수의 물소리 물노래소리  
실어오네 끝없이 실어오네  
21세기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이 땅에  
불멸할 사랑의 노래소리!  
김정숙어머님의 자장가소리!

##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명작이 태어난다 (1)

박춘택

작가 전동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시학으로 시대의 명작, 주옥같은 명가사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가사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전동우가 이처럼 수많은 명가사들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창작한 행운때문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전동우가 제아무리 재능있는 시인이라고 하여도 그 재능을 아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었다면 그가 오늘과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는 재능있는 시인으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동우를 처음으로 알게 되신것은 3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문학예술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신포조선소(당시) 선채수리직장에서 로동자로 있던 한 시인이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자니 죄송스럽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평생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의 노래를 부르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썼다.

한없이 고결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름없는 한 로동자출신 시인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려주시여 그를 조선영화문학창작사 가사창작실 작가로 불러주시였다. 이때부터 그는 열정적으로 영화주제가창작에 재능을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붓대로 당의 위업을 받들려는 작가를 따듯이 품에 안으시고 그가 써내는 한편한편의 가사를 동지가 되고 스승이 되시여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가사 《전사의 길》이 철학성이 깊고 정서가 있는 시대의 명가사로 완성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떼어놓고 결코 생각할수 없다. 전동우가 그 가사를 써냈을 때 가사초고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의 구절구절을 지금과 같이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 《먼길을 왔다고 돌아보지 말라》, 《높은 령 넘었다 멈춰서지 말라》로 고쳐주시였으며 새로 형상한 이

노래를 들어보신 후에는 가사에 있는 《나 하나의 행복 찾아 떠나면 길 왔던가》라는 표현이 혁명가의 품위와 세계를 낮아지게 하는감을 준다고 명철하게 지적하시면서 《나》자를 빼고 《하나의 행복 찾아》로 다시금 다듬어주시였다.

조국애에 대한 세계적인 명곡인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도 위대한 스승의 자애깊은 손길이 있어 기념비적명작으로 빛나게 되였다.

사실 전동우는 평양에 대한 노래를 지으려고 오래전부터 모대기였으나 형상방도를 찾지 못한 채 날과 달을 보내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 대한 노래를 지으려고 모대기는 작가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평양을 노래하되 평양의 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전동우는 그 말씀을 받아안고 무릎을 쳤다. 평양의 밤, 정녕 거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에 간직하고있는 모든 추억과 정서가 다 비껴있는것이였다.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가 완성되었을 때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다 잊으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긍지가 담겨있는 노래, 자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예술영화 《보증》의 주제가 가사 《그대밖에 내물라라》,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명가사들은 작가 전동우를 주체문단의 화원에 영원히 시들줄 모르는 꽃으로 피워주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으신 크나큰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위인의 손길아래에서만 시대의 명작이 태어난다. 전동우가 가사창작의 첫 시기부터 주옥같은 명가사들을 써내게 된것은 그가 남달리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있어서가 결코 아니였다. 위인을 모시고 위인의 탁월한 령도따라 가사창작의 길에 나섰기때문이었다. 그의 시적재능은 위대한 스승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꽃피난것이였다.

전동우는 수많은 명가사창작으로 군대와 인민이 아는 시인으로 되였다.

예술영화 《월미도》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 《나는 알았네》는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문학적종자를 시적으로 훌륭히 표현한 우리 시대의 명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가 나오자 이 가사에는 직선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당과 수령, 조국에 대한 깊은 정서를 잘 표현하였다고 거듭 거듭 과분한 평가를 주시었다.

전동우는 자기 가사에서 언제나 조선의 정신, 조선적인 향취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인 시인이었다. 가사 《어머니생각》, 《푸른 버드나무》 등 그의 수많은 명가사들을 살펴보면 거기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소박하고 강의한 성품과 세월의 찬바람, 찬서리를 맞아도 스러지지 않고 굽히지도 꺾이지도 않는 민족적기개와 푸른 기상이 시줄마다에 서려있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그의 가사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것이며 그처럼 애송하는것이다.

전동우는 가사를 언제나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있게 쓰는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그는 가사형상에서 생활세부, 시적세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의 세계를 안겨주며 깊은 정서를 느끼게 하며 거기에서 생활의 진리, 생활의 철학을 받아안도록 하기 위하여 힘썼다.

가사 《고향집추억》에는 추억의 세계가 있고 사색과 정서가 있다. 그것은 정확한 추억의 시적세부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가사에서 《시내물소리》, 《산나물향기》, 《군복입은 어머니의 밝은 그 미

소》, 《붉은 진달래》, 《옛말이야기》들은 추억의 구체적대상이며 세부들이다. 그것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현실적으로 느낄수 있는 추억의 대상으로서 현실 그자체의 정서적색갈이다. 시인은 바로 현실의 그 자연적인 정서적색갈에서 뜻깊은 의미를 발견하였던것이다.

가사를 생활적으로, 생활의 구체적세부형상으로 철학성있게 쓰는 문제를 그는 자기의 모든 가사들에서 실현하였다.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 가사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는 그 대표적작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의 가사에는 철학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가사에서 《나의 전우 물려준 피젖은 기발/나에게 말해줬네 조국이라고》라는 구절이 특히 좋고, 이 구절이 바로 가사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에서 핵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조국의 귀중함을 누가 가르쳤는가 하는 물음에 전우가 물려준 피젖은 기발이 말해주었다고 한 이 생활적이며 시적인 세부형상이야말로 형상의 발견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작가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한길에서 당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작가는 창작적재능과 지혜로 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가 되어야 한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민감한 작가만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성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줌으로써 당의 위업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당의 문예로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려야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있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작가들이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할 때 진실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김대성

누가 알라  
밤은 깊어 자정도 넘었건만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시는 그이  
언제 하루일을 끝내시는지  
언제 하루일을 시작하시는지

진정 누가 알라  
새벽녘에야 불을 끄시더니  
집무실을 조용히 나서신 그이  
또다시 병사들을 찾아  
전선으로 차를 달리신 그 시간들

한두달도 아니고  
한두해도 아닌  
선군의 긴긴 마흔여섯해  
그렇게 쉽없이 초소를 찾으시고  
그렇게 드바빠 전선길을 달리신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어이 다 알수 있으랴  
한초가 새로와  
때론 지름길도 타시고  
한초가 귀중해  
때론 운전사대신 조향륜도 잡으시며  
공격전에 바쳐오신 야전시간들

한초라도 얼으려  
리발도 야전리발로 대신하시고

한초라도 당기려  
식사도 야전식사로 대신하시며  
자신을 위해선 단 한초도 아니보내신 시간  
오직 선군에만 바쳐오신  
장군님의 시간이어

그 시간속에 있었다  
중대세목장의 수도꼭지도 틀어보시고  
맑은물에 손을 잠그어보신 시간도  
식당취사장에 들려  
콩나물 키우는 법 깨우쳐준 시간도

그 시간속에 있었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려  
조선의 존엄 우주에 펼친 시간도  
백날천날 할 일 하루에 다하시고  
백년천년에 이를 대업을  
한두해에 다 이루시는  
장군님의 빨찌산야전시간속에  
무적의 총대숲이 무성해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선경이 꽃피났거니

오, 시대의 조종간을 틀어쥐고  
선군혁명렬차를 급행으로 몰아가시는  
장군님의 시간을 따라  
선군의 위대한 력사가 폭풍쳐흐른다  
선군조선의 휘황한 래일이 달음쳐온다

## 그이의 야전솜뭇

문춘심

때없이  
한여름에도  
겨울의 눈보라소리 들려옵니다  
그 눈보라 헤쳐간 한별 솜뭇 노래하러니  
눈앞에 어려웁니다

눈덮인 다박솔언덕에서 우리 첫눈에 익힌 옷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에서  
젖고 얼어서 껏껏해진 그 자락  
목메여 와락 안긴 병사들 눈물에  
또다시 폭 젖어들던...

1년 사시절  
마음속의 흰눈은 녹지 않습니다  
따스한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한해의 첫눈도 마지막눈도  
전선길에서 맞으신분  
그이 솜뭇우에  
하염없이 내려앉던 흰눈

이 땅의 찬서리 다 가셔주고  
마음속 고드름 다 녹여준  
아버이 그 솜뭇자락에 싸여  
우리 언제 한번 추운줄 몰랐습니다



사회주의공기는 후더웠습니다

장장 10여년 세월의 눈보라에 색바랜 그 솜옷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창창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마음속에 다 함께 입고 산 그 솜옷  
날아오는 천만총탄 다 막아준  
신념의 갑옷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솜옷 바뀌입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는 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준엄한 역사를 잊을수 없어서  
이 솜옷을 벗지 않았다고  
선군혁명상징인 그 솜옷을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그냥 입으려고 한다고...

아,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한여름에도  
마음속에 입고 사는 그 솜옷은  
영원히 벗지 않을 우리의 선군복입니다  
언제나 진두에 휘날려갈  
승리의 기폭입니다!

## 오 혁명적군인정신이어!

최춘금

너는 어떻게 움터났던가  
너는 어떻게 태어났던가  
번영하는 내 나라에  
자랑찬 기치로 나래치는 시대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어!

승리라는 말처럼  
투쟁이란 말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해진 그 말  
혁명적군인정신

너는 시련의 날  
등짐으로 물동량을 날라야 했고  
군화창을 갈아대며 강행군을 해야 했던  
병사들의 가슴에서  
저도 몰래 조용히 움터났던가

말해다오, 백리물길이어  
통강냉이로 끼니를 에우며  
너의 암벽을 열어간  
병사들의 그 정신 누가 헤아려보셨던가

전사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가 봐야 한다시며  
석수 쏟아지는 굴속에도 들어가신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 가슴마다에  
백두산총대를 안겨주시고  
자신의 심장도 다 헤쳐놓으시며  
시련을 겪는  
조국도 통채로 떠맡기신분

군대만 있으면

언제나 마음 든든하다고  
병사들 부르는 소박한 노래도  
시대의 진군가로 울리게 하시고  
병사들 발휘한 그 정신도  
시대의 기발로 나뭇기게 하셨거니

오, 총대를 기둥으로  
이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총대가 기치되어  
우리 혁명을 이끌게 하신  
그 믿음이 아니었던가

믿음이였다  
좋은 날에도 믿고  
어려울수록 더 믿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믿음

그 믿음 있어  
물불도 가림없이  
이 나라 병사들 기적을 낳았고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길에  
위훈떨친 영웅들로 자라났거니

그 정신 귀중하여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시대의 기치로  
높이 빛내여주신 혁명적군인정신!

오, 총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권  
위대한 심장만이 날을수 있는 정신이어  
선군혁명승리의 한길로  
천만군민을 부르며  
시대의 불길로 영원히 타오르라!

## 나는 《평양날파람》

김기성

나는 병사  
남다른 부름을 내가 지녔네  
외워만 보아도 새힘이 솟는  
자랑높은 그 부름 《평양날파람》

최전연 우리 초소 찾아오신 장군님  
번개같이 훈련하는 내 모습 찍은  
영예사진 보시며 말씀하셨지  
《평양날파람》이 여기에도 있다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것만 같다고...

나는 날파람  
령장의 축복받은 《평양날파람》!  
멸적의 주먹으로 타격할 때면  
산발도 쨍- 쨍- 그 부름 외운다네  
장애물 회- 회- 날아넘을 땐  
전우들도 기뻐 박수를 보낸다네

맹호같이 펄펄나는 나의 기상은  
수령님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장군님 선군길에 높이 쳐드신  
《일당백》 구호가 키워준것이라네  
훈련도 전투라는 령장의 그 뜻이  
무적의 나래를 달아준거라네

나는 날파람  
펄펄 나는 싸움군 일당백날파람!

말해보자  
영화의 설움많은 평양택전들아  
너도 날파람  
나도 날파람  
너와 나 무엇이 서로 달랐던가

그날의 택전들은 펄펄 날았어도  
수령을 모시지 못해 나래꺾인 수난자  
오늘의 이 병사는 선군령장 모시여  
용맹의 나래돌친 존엄높은 수호자

맞붙어보자 첩첩지원쭈 미제  
거루어보자 백년숙적 일제  
덤벼만 든다면 맹수되여 쳐갈기리  
투지도 만만한 무적의 날파람

태양조선 심장인 평양을 지켜  
태양민족 운명인 장군님 지켜  
번개치고 우뢰치는 일당백날파람  
미일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리

아 나는 《평양날파람》  
천출명장 기상안고 백승떨치는  
총대날파람!  
선군날파람!

## 두 불빛은 속삭이네

최항일

다정히 마주보는 두 눈빛이런가  
초소와 마을에 반짝이는 두 불빛  
하나의 발전소에 전기줄 잇고  
정답게 속삭이네 이야기하네

초소의 불빛은 속삭이네  
발전소건설의 날 병사들을 찾아와  
맞들이도 함께 잡고  
혼합물도 함께 다지던  
인민들의 그 모습 못 잊는다고

마을의 불빛도 속삭이네  
발전기의 첫 동음 울리던 그날  
행복의 불빛 어서 보라며  
전기줄도 먼저 늘어주고  
스위치도 먼저 넣어주던

병사들의 그 마음 못 잊는다고

두 불빛은 속삭이네 이야기하네  
장군님 꿈만 같이 찾아오신 날  
초소와 마을이  
한 발전소의 전기를 나눠쓴다니  
참 기쁜 일이라고  
그 이름도 군민발전소라니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만족하시여 웃으시던 그날의 사연을

두 불빛은 속삭이네  
그 감격을 전하며 속삭이네  
장군님의 그 품에 한피줄 잇고  
날을 따라 꽃피는  
선군시대 군민의 정  
싸움의 그날에는 더욱 붉게 피리라고

# 콩쑥이 설레인다

리철영

설레인다

천리방선초소마다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며  
콩쑥이 설레인다

얼마나 흐뭇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는가  
얼마나 황홀한 풍경이  
병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

산들산들 바람결에 하느적이는  
너 푸른 콩잎아 말 좀 해보렴  
알알이 총알같이 여물어가는 콩이삭들아  
너 한껏 터치여주려마

네 언제부터  
이 나라 병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즐거운 웃음을 주었고  
네 언제부터  
인민이 알고 조국이 자랑하는  
선군시대의 류다른 풍경으로  
이 땅에 펼쳐질수 있었던가를

그날이었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그날  
초소에 오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의 식생활에 그러도 마음쓰시며  
몸소 콩농사를 발기하시고  
콩농사경쟁의 불길 지펴주시던  
그날부터가 아니었더냐

그날에 안겨주신 콩종자가  
그 나날에 가르쳐주신 콩농사방법이  
그 사랑으로 일구어주신 콩농사열풍이  
오늘은 콩사태의 환희로 넘치게 했거니

설레이는 콩쑥이여 너도 알테지  
비내리는 밤이면 물에 잠길세라  
바람이 부는 새벽이면 넘어질세라  
전선길마다에서 살피주시던 아버지의 그 사랑

침략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광풍속에서도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우에서는  
작전전술방안만이 아닌  
사랑의 콩풍작이 무르익고있었거니

오, 그래서 더더욱 설레이는 콩쑥이여  
그 정겨운 설레임소리에서 나는 듣노라  
풍성한 초소마다 꽃피는 웃음소리  
콩자랑에 흥이 난 병사들의 목소리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드리는  
천만장병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소리를

아, 끝없이 설레이라 초소의 콩쑥이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와 더불어 태어난  
사랑의 콩전설을 세월넘어 전해가며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설레이라  
행복에 겨운 병사들의 웃음을 담아실고  
끝없이 끝없이 설레이여라!

# 려명은 어디에서

원향일

생각깊어라  
푸른 숲속 새들의 지저귐소리  
드넓은 대지의 이삭이 여무는 소리  
저 멀리 기적소리도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되어  
이 가슴에 흘러드는 초소의 새벽

이 땅의 렬명은 어디서 밝아오는가  
저 산 넘어 들 지나  
수평선 한끝에서 밝아오는가

한밤 새면 또 하루 새벽이 오듯이  
그렇게 밝아오는 렬명이라면  
우리 가슴 이렇듯 뜨겁지 못하리  
우리 추억 그렇듯 소중한지 않으리

어려오는구나  
불빛꺼진 거리들과 공장을 지나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리시던  
장군님 야전차의 그 차창이  
눈비에 젖은 야전복을 말리우시던

못 잇을 전선길의 그 모닥불이

눈에 삼삼 비껴오는구나  
신념의 《적기가》를 뜨겁게 부르시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넘고넘으시던  
아득한 철령의 굽이굽이가  
지치는 야전차를 떠밀며  
한치한치 오르시던 오성산칼벼랑이

그렇게 밝아왔구나  
승리의 려명은  
저 하늘의 별빛보다  
야전차의 불빛이 더 많이 비쳐진  
그 나날들에서  
풍찬로숙의 빨찌산행군으로

선군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신  
거룩한 그 자욱자욱에서

진정 그렇게 동터왔구나  
고난과 시련의 마지막어둠을 밀어낸  
위대한 선군태양의 광휘로운 빛발따라  
강성대국의 려명  
승리의 려명이 동터왔구나

아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저 하늘의 태양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불태우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그 심장에서!

## 우리의 성새는 끄떡없으리

리찬호

한삽 두삽...  
전호가에 금잔디 떠엿고  
돌기돌기  
진지에 웅벽을 쌓을 때면  
깊어지는 생각-  
우리의 진지는 무엇으로 다져지는가

내 마음속에 안겨와라  
못 잇을 전선길의 그 밤  
《동지애의 노래》 함께 부르며  
생사운명 같이 할 혁명동지라고  
장군님 뜨겁게 껴안아주시는 전사들  
시내가 너럭바위우에서  
그이와 쥘기밥도 함께 나는 병사들

떠올라라  
병사들과 전호가의 흙냄새, 포연내를 같이 맡는  
야전사령관이 되시여  
그이 찾고찾으신 하많은 초소와 진지들이...

사랑을 안고 믿음을 안고  
가고 또 가신 전선길우에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들이라  
그이 불러주신  
《감나무중대》, 《들꽃중대》, 《돌배나무대대》...  
하나의 동지로 어깨성 이룬  
금성철벽의 방선이여

꽃이 태양을 따르고  
시내물이 바다로 흐르듯

스스로 끌리어 안기는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 품 지켜 성돌이 되고 성벽이 된 우리

정녕 우리의 진지 우리의 성새는  
령장과 전사들이  
한피줄로 이어지고  
한숨결로 숨쉬고  
한뜻으로 어깨결은  
혼연일체의 성새

아, 이 세상 어느 명장  
어느 사령관이  
이런 성새를 쌓았던가  
심장과 심장이 합쳐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한  
억척불변의 철옹성!

뚫지 못하리라, 그 어떤 총탄도  
흔들지 못하리라, 그 어떤 폭풍도  
허물지 못하리라, 그 어떤 핵무기도

정으로 뭉치고  
뜻으로 뭉치고  
의리로 뭉친 동지애의 성새  
일심으로 숨쉬는 우리의 선군진지는  
수령결사옹위의 만년성새로  
영원히 솟아 끄떡없으리라

주체95. 8. 16

#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격조높은 시적형상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를 두고-

김 학

창건 60돐을 맞는 우리 당을 우리러 천지를 진감 하는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만세!》

이 땅우에 우리 당이 쌓은 업적 걸음걸음 새겨온 승리의 자욱을 되새기는 천만군민의 심정이 이 한마디의 웨침에 다 담겼다. 하여 이 나라의 한 시인도 더 생각할것 없이 그 함성을 그대로 시제로 삼고 칭송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으니 사람들이여, 우리 이제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송가의 세계속에 잠깐 들어서보자.

## 1

무엇때문이나, 서사시의 구절구절을 새겨갈수록 존엄높은 우리 당의 모습이 정일봉의 숭엄한 모습으로, 천만자식을 품에 안고 사나운 광풍을 헤쳐가는 자애깊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 가까이에 안겨드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당파도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당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당,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가장 견결한 당, 비범한 조직적수완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백승을 펼쳐나가는 불패의 당...

문학은 바로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자기의 본성적사명을 옹계 수행할수 있다.

하지만 문학이 형상대상의 그 모든 특징들을 평균주의적으로 그릴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당의 위대성을 폭넓은 형식에 담아 포괄적으로 형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작품은 자기의 종자와 주체사상적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또 시대의 요구와 군대와 인민의 지향을 구현하는 원칙에서 형상하여야 그 감화력을 높일수 있다.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김만영 작)가 그로

록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것은 바로 이러한 미학적원리에 충실하였기때문이다.

서사시는 우리 당이 지닌 그 모든 특징들가운데서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온 60년의 령마루에 올라선 우리 당의 오늘의 참모습을 규정짓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선택하여 심오히 형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이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의 요구에 심장을 바치도록 이끌어가고있다.

서사시가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심오히 밝혀내고는 오늘의 우리 당의 특징은 우선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창건자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당이라는것이다.

...

붉은기는 수령님  
수령님은 붉은기  
수령님 붉은기에 승리를 새겨온  
그 성스러운 한생의 자욱자욱이  
우리 당의 영광에 찬 력사

...

장장 예순돌기의 년륜을 새겨왔지만 단 한번의 탈선이나 순간의 동요도 없이 오늘도 여전히 창건자의 사상으로 숨쉬고 창건자의 령도가 변함없이 이어지며 창건자의 덕망이 그대로 펼쳐지는 조선로동당...

로동계급의 당사에는 당은 존재한다 하지만 항로없이 헤맨 구간이 많고 당명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발의 색조는 여러번 바뀌온 당들도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어떤가.

《〈ㄷ, ㄷ〉의 열혈심장들이 부르던/한별의 노래》  
《백두광야에 지동치던 눈보라소리》가 우리 당대오에 메아리치고있다. 당중앙창가에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시점으로 우리 당의 력사를 더듬으며 서사시가 《그 붉은기 한폭에/수령님으로부터 이어받은/우리 당과 우리 혁명무력/우리 공화국과 우리식 사회주의/인민운명의 무게가 없혀있》으며 《그 붉은기 한폭에/수령님 이룩하신 위업의 높이와 넓이/주체위업완성의 아득한 높이와 무한한 넓이가/다 담겨져있다》고 격조높이 노

래했을 때 그것은 명백히 조선로동당이 오늘도 변함없이 창건자의 당이며 창건자의 존함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에 대한 뚜렷한 형상적확인으로 된다.

서사시는 우리 당의 이러한 특징이 영명한 후계자의 위대한 계승에서 전적으로 규정된것임을 정당히 밝힘으로써 형상의 심오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60년사를 수놓은 우리 당을 노래하면서 서사시가 밝히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특징은 또한 어머니당이라는것이다.

...

나는 아노라  
이 세상 그 어느 당사를 펼쳐보아도  
당을 어머니라 부른  
그런 력사  
그런 시대  
그런 인민은 없었음을

...

그렇다, 당이 어머니로 불리운적은 동서고금 그 어느 당사에도 없었다. 로동계급의 당인 경우에도 기껏해서 그것은 계급의 무기, 정치적참모부였다. 각계층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내세워주고 빛내준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을 떠도/눈을 감아도/더욱더 밝게 어려오는 그 모습/멀리 있어도/가까이 있어도/그 음성 이 가슴에 쟁쟁한 그 모습은/아, 어머니모습》이 있나니, 그것은 《아버지들도 어머니라 부르고/어머니들도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이다.

서사시는 창건 첫날부터 어머니로 불리우는,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당의 남다른 품모에 대해서 시대의 눈으로 파고들어 더욱 심오히 노래하고있다.

어머니로서 우리 당의 특징에 대한 형상적해명은 당의 사랑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으로 전환시켜 노래함으로써 더욱더 심오해지고 친근해지고 진실해지고있으며 력사적전환기와 결부시킴으로써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서사시는 《눈덮인 전초기에서 야전식사를 나눌 때/불뚝을 깔아드리던 그 꼬마병사》, 《삼지연 새거리에서 만났던 돌격대대장》, 《미루벌의 포전에서 만났던 근면한 그 농민》, 《대홍단제대병사의 딸 홍단이》, 《비전향장기수영의 딸 축복이...》 등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피고/시름 가서

지고 즐거워지시는 인민들》, 《꿈결에도 안겨오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내면세계형상을 통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뜨겁게 보여주었으며 초소와 후방을 오가시며 부모와 자식들의 소식도 전해주시고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인민을 존중할줄 모르는 그런 행위는/제일 미워하고 제일 타매하시며/추호의 용서를 모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에 대한 세부적묘사으로써 우리 당의 생의 좌우명을 감동깊이 펼쳐다. 서사시는 또한 전선길에서 만났던 한 로인의 말을 들으시고 나는 우리 인민이 망국노가 되지 않도록 선군을 끝까지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우리 당의 인민사랑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자주적인 삶을 마련해주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수호자, 보호자의 사랑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밝히고있다. 하기에 서사시는 구절구절 새겨갈수록 《슬하에 천만인민을 아들딸로 거느리고/그렇게 천만품을 들여/영웅으로 혁명가로 운명의 주인으로/훌륭히 키워 내세우고 삶을 빛내주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우리 당의 모습으로 더없이 친근하게 안겨오면서 당의 아들로서,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웅당한 도리와 혁명적의리에 대해 가슴 절절히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21세기의 언덕에 올라선 우리 당을 노래하면서 서사시가 웅심깊이 밝히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특징은 또한 총대를 앞세우고 총대로 만단을 헤쳐가며 총대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해가는, 총대를 굳게 틀어쥐고 나가는 선군을 중시하는 당이라는것이다.

서사시는 여기에 형상적력점을 찍으면서 참신한 시대서정을 펼쳐고있다.

서사시는 이 측면에서 참으로 가슴뜨거운 전설 아닌 전설을 펼쳐보이고있다.

...그 어느해 깊은 밤,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된 가슴아픈 사연들이 적힌 부피 큰 문건을 마주하시고 무거운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용히 문건에 한자루의 총대를 그려넣으신다. 그러시고는 단호히 말씀하신다. -총대를 믿으라. 우리의 총대는 끝내 뚫고나갈것이다. 고난도 시련도 그 어떤 역경도 -가자, 총대를 앞세우고, 가자, 오직 선군혁명의 한길로!

서사시는 이 사연이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에 대해 정당한 형상적해명을 줌으로써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아, 그날 우리 장군님  
문건에 그려넣으신것이  
한자루의 총대뿐이었던가  
천만심장에 천만자루의 총대  
선군의 사상과 신념을 안겨주시지 않았던가

지금은 세월의 언덕너머 멀리 흘러갔어도  
그날 우리 장군님 지퍼주신 선군의 불길에  
우리 가슴속에서 활활 불타올라  
우리는 온갖 시련을 과감히 눌러딘고  
용약 력사의 승리자로 일떠설수 있었거니

...

그렇다, 그 총대아래서 강계정신과 라남의 봉화,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태어났고 우주를 향해 인공지구위성이 날아갔다. 정녕 이 땅위에 펼쳐진 그 모든 기적과 전변과 전설은 바로 다름아닌 총대에서 태어나 총대와 더불어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것이다. 하기에 서사시가 《우리 장군님/운명으로 틀어쥐신 총대/위대한 선군정치는/천지개벽의 보검/창조만능의 보검/정의와 평화/인민과 조국수호의 보검》이라고 노래하면서 《그 고귀한 하나의 진리가/우리 인민을 승리자로 새롭게 탄생시켰다/우리 군대를 자주적인 근위병으로/혁명의 주력군의 핵심으로/력사앞에 새롭게 등장시켰다》고 읊조린것은 우리 당 선군정치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형상적결론이며 력사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가장 값높은 시적평가이다.

이러한 형상속에 우렛이 안겨오는 우리 당의 모습은 총대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쳐갈기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이끌고 인민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수호자의 거인적 형상이며 무시로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리는것은 군대이자 당이고 군대이자 인민이며 조국, 군대이자 사회주의제도라는 철의 진리이다.

이와 같은 시적형상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하루빨리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신념에 어떤 불길을 지퍼주리라는것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 2

그것이다. 서사시의 구절구절을 따라갈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매혹은 더욱더 불길처럼

타오르고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더욱 굳게 다져지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송가문학에서 당의 형상은 정서의 열도가 비상히 강렬하고 그 세계가 숭엄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서사시는 제목에서부터 정서의 열도가 비상히 강렬하고 그 세계가 그지없이 숭엄하다. 이것은 서사시가 송가문학의 원칙적요구에 충실하고있다는 증거이다. 송가는 원래 거창한 력사적대상과 사변을 웅장하고 장엄한 서정적화폭에 담아 노래하는 문학이기때문에 정서의 열도가 강렬하고 그 세계가 숭엄해야 형태고유의 독자적인 감화력을 가질수 있다.

부연하건대 오늘 우리의 서사시들은 지난 시기의 서사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서정성이 강하다. 서사적화폭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그전의 서사시에 서와는 달리정서적색채가 진한 생활세부와 사실자료들을 선택하고있으며 그것도 화폭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주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하여 작지않은 분량이지만 시작부터 마감까지 줄기찬 감정흐름으로 이어져있고 따라서 정서의 열도도 비상이 높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인들이 류레없이 거창한 선군시대의 현실과 비범한 의미로 충만된 력사적대상들에 대한 철학적인식이 웅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주며 그에 맞는 형상적능력이 한층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높은 형상수준을 론하게 된다.

서사시가 그토록 정서의 열도가 강렬하고 그 형상세계가 숭엄한 느낌을 주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적대상의 의미를 정확히 발견하고 제시한데 있다. 다시말하여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 업적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업적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노래한것이다. 이것은 문학적견지에서 놓고볼 때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정서적으로 열렬한 발견적인 종자를 탐구했다는것으로 말할수 있다.

...

영광이 파도치는 이 강산에  
기쁘시여  
너무도 만족하시여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그날에 하시던  
우리 당의 창건자  
아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

승엄히 울려 퍼지나니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흥하지만  
래일은 더욱더 흥하고 번영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만세는  
김정일동지 만세입니다

여기에 형상의 핵이 있는것이 아닌가. 《조선로동당 만세는/김정일동지 만세》, 이것이 바로 서사시의 종자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고싶다. 서사시의 형상은 모두 여기서 숨결을 받아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당을 노래하면서 당의 창건자, 령도자의 풍모와 업적을 그리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시형상은 주로 기본감정선에 당에 대한 칭송을 놓고 그것을 일관하게, 즐기치게 끌고나갔음은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이 사사시에서처럼 형상전반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선으로 끌고나간 당에 대한 송가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이 말은 단지 시형상의 주되는 대상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과 위대성이라는 내용적 측면만을 넘두에 둔것이 아니라 서사시의 정서적흐름이 기본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의 개방으로 이루어져있다는 형상적 측면도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억》이라는 형식적설정은 시적내용표현에 매우 적중한 탐구적이며 독창적인 발견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생활론리, 감정론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발견이어서 더욱 심오한것으로 된다.

...

지금 그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셨으리  
우리 당이 걸어온 60년  
그 승리사를 다 총화하고  
가야 할 천만리  
그 진군로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이는 못잊을 추억에 잠기셨으리

...

거대한 사변에 접하면 누구나 추억에 잠기기마련이다. 이렇게 추억의 문을 열어놓고 서사시는 1절에서 《그 생각 그 추억의 시작도 끝도/수령님 생각 수령님 추억/우리 장군님/천리로 깊은 그 생각/만리로 넓은 그 추억/저 붉은 기록에 다 실렸

으니》하고 노래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시원과 창건자의 업적, 위대한 계승의 역사를 펼쳤는가 하면 2절에서는 《이 새벽에도/당중앙의 검소한 방에서/수령님추억에 잠기신 그이/우리 수령님은 그 어느 하루도/인민을 떠나 사신적 없었고/한평생 사랑이 인민이어서/그이의 수령님추억은/수령님말려주신 인민에 대한 추억》이라고 제시해놓고 어머니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풍모에 대해 노래하였다. 또한 3절에 가서도 먼저 《이 아침/우리 장군님 추억중의 추억은/수령님 물려주신 총대에 대한 추억/그것은 백두산에서부터/총대와 뿔뿔이 뿔수 없는 인연을 맺고/총대를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때문이던가》라고 운을 떼고는 총대를 굳게 틀어쥐고나가는 당, 선군을 중시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징을 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쳐보낼수 없는 또 하나의 높은 형상적기교가 있다. 그것은 60년사를 새겨온 우리 당의 위대한 행로를 더듬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억이 매 절마다 빠짐없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을 거쳐서만 펼쳐지는것이다. 즉 수령님에 대한 추억으로 장군님의 사색이 시작되고있다.

참으로 단수있는 기교이다. 아니 기교이기 전에 그것은 변함없이 창건자의 존함으로 오늘도 빛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확고한 인식,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후계자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에 대한 온넋의 매혹 그 자체이다. 하기에 시인은 《조선로동당 만세는/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작품의 사상적결론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으로 형상하고있는것이다. 기교는 결코 손끝재간으로는 얻어질수 없다. 이러한 형상수법이 서사시의 짜인 구조에 대한 탄복에 앞서 서정의 강렬한 열도와 승엄한 감정을 먼저 불러오는것은 그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두분의 위대한 심장의 교감으로 서사시의 서정을 펼쳐내고있으니 정녕 형상은 철학적으로 심오해지고 정서적으로 열렬해지지 않을수 없으며 환희의 도가니속에서 우렁이 안겨오는 승엄한 영상은 붉은 당기가 날리는 총대를 틀어쥐시고 세기의 언덕에 거연히 서시여 자주의 려명을 불러오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모습이다.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은 이렇게 통일되여야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전한 결합을 이룩할수 있다.

서사시는 일반화의 심도도 매우 깊다. 시가 비상한 정서적열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승엄한 형상세계에로 이끌어가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다. 모든 문학작품이 다 그러하지만 제한된 지면에 웅근 하나의 시대와 사변, 력사적대상을

답아야 하는 서사시에서 일반화문제는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이다. 거창한 시대와 역사적사변을 대상으로 하는 서사시가 본질적이며 합법칙적인것으로 엮여지지 못하면 정서의 흐름은 처지고 열도는 식어버리게 된다.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는 창건 60년의 세월을 거쳐 오는 시대의 언덕에 우뚝 올라선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한 깊이있는 시적분석을 통하여 참으로 심오한 생활의 진리,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일반화하고있다.

60년 세월이 다시 오고  
60년 6,000년 세월이 다시 가도  
조선로동당은 우리가 안겨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머니  
조선을 승리에로 인도할  
우리 혁명의 영원한 향도자

...

서사시의 이 구절이 그토록 가슴을 치는것은 바로 그것이 상식적인 개념이나 생경한 웨침으로가 아니라 시대의 본질,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 깊이 체현된 구체적인 생활세부 사실자료로 안받침되어있기때문이다.

당중앙청사우에 나뭇기는 우리 당의 붉은기에 대한 철학적사색은 《붉은기는 수령님/수령님은 붉은기》에로 이어지고 그 기발에 어린 《백두산 총대바람》, 《최고사령부의 야전차 발동소리》, 《초도의 세찬 파도소리》, 《오성산정에 찍어가신 그 거룩한 발자욱 소리》로 심화되면서 《위대한 선

군혁명실록으로/조선로동당사를 새롭게 엮으신/우리 당 우리 혁명무력의 통솔자/우리 당 총비서/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로 치달아오르며 《전무후무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한점의 색도 바래지 않고/한치의 기도 낮추지 않으며/더 붉어지고/더 기세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붉은기를 거쳐 마침내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위대한 김정일동지라 부른다》는 심오한 결론에 이른다.

《인민사랑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우리 장군님/그이가 그이가 어머니 우리 당》이라고 노래한 부분이나 《군대이자 당이고/군대이자 인민이며 조국/군대이자 사회주의제도》라고 읊조린 부분 그리고 《실사 하늘에서/무수한 별을 다 떼여 놓을수 있다 해도/당의 손길을 목숨처럼 쥐고있는/우리 운명의 손을 절대로 떼내지 못한》다고 웨친 부분 등 서사시에서 밝힌 모든 진리가 다 그렇게 구체적인 생활세부에서 도출해낸 철학적 탐구의 산물로써 하나하나에서 열백을 헤아리게 하는형상적위력을 가지며 그것으로 하여 서사시의 사상적주장, 형상적결론은 천금의 무게로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키는것이다.

이밖에도 자유분방한 서정의 흐름을 종자를 밝히는데로 일관하게 몰아간 정연한 구성조직,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감동깊이 드러내보이는 데 적극 이바지한 대담한 환상 등 서사시가 이룩한 성과는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성과를 다 론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싶다.

위인에게 매혹된 심장만이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다.

## 오가사

# 병사들의 고향집에 기념사진 있네

김경준

내 나라의 산간마을 찾아가봐도  
내 조국의 해변마을 들어가봐도  
어딜 가나 병사들의 고향집에는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이 있네

엄동설한 겨울에도 병사들 찾아  
삼복더위 여름에도 병사들 찾아  
사시장철 선군장정 전선길에서

장군님 안겨주신 은정이라네

령장의 슬하에서 자란 병사들  
그 사랑에 보답해갈 맹세 불타네  
무적의 용맹떨친 위훈속에는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이 있네  
아 병사들의 기념사진  
한생에 안고살 가보이라네

##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에 최대의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령부 소부대와 함께 활동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작식대원의 임무를 도맡아 수행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지고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한흙의 쌀, 한줌의 소금도 구하기 힘든 그런 악조건에서도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수령님의 끼니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비상미마저 떨어졌을 때에는 통감자를 구해다 갈아서 농마를 내어 지짐을 부쳐드리기도 하시고 어찌다 생기는 고기같은것도 샘물이나 눈속에 묻었다가 대접하시였다. 어떤 때에는 작식대의 가마가 적탄에 맞아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비옷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빚은 다음 나무꼬챙이에 끼워 구워서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보장하곤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소부대가 안도현 황구기지에서 활동하고있던 주체29(1940)년 가을 어느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몇명의 유격대원들과 함께 김정숙동지를 연길현쪽으로 식량운반공작에 보내신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당분간 다른 유격대원에게 작식임무를 인계하고 사령부를 떠나게 되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로부터 작식임무를 인계받은 그 대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끼니수를 따져가며 계량해놓은 식량이며 음달진곳에 정히 다듬어 가려놓은 산나물과 남새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나무랄데없이 알뜰하고 간진 살림살이솜씨를 모르는바는 아니였지만 눈앞에 보이는것이 다 새삼스러워보였다. 더우기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식찬을 만드는 방법까지 세심히 말씀하시며 사령관동지께 물을 끓여드릴 때 타드리라고 닭은 좁쌀가루가 든 주머니까지 내맡기시였을 때 그 대원은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바치시는 그 뜨거운 정성에 목이 메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는 그 대원의 머리에는 어느 한 전투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전투가 예상외로 시간을 끌게 되어 대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싸웠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자리를 뜰수 없어 끼니를 건느시며 전투를 지휘하고계시였다. 이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종이에 쓴 만두를 사령관동지의 군복주머니에 넣어드리며 수령님의 배식을 보장하곤 하시였다.

참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에 바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열화같은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작식뿐이 아니였다.

추운 겨울날 사령관동지의 젖은 옷가지를 자신의 품속에 말리워드리신 이야기며 적구로 떠나시는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정히 기르신 자신의 머리칼로 부드러운 신발갈개를 만들어올리신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뜨거운 이야기가 그 얼마인지 다 모른다.

정녕 아버지수령님께서 건강하셔야 혁명의 승리도 있고 민족의 빛나는 래일도 있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신념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단편소설



# 철쭉꽃을 안고 온 처녀

김금옥

저녁 퇴근시간이다. 하루작업총화를 마치고 직장을 나서던 립귀련은 직장출입문앞의 두그루 철쭉꽃나무가 유묘한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군대에서 제대되어올 때 안고와서 심은 꽃이었다.

불현듯 군사복무의 나날 봄이면 철쭉꽃으로 뒤덮인 철령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그 황홀한 경치에 전호가에서 전우들과 함께 환성을 올리곤 하던 일들이 떠오른다. 하루가 다르게 붉게붉게 물들어가는 련봉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가득 뜨겁게 차오르곤 하던 마음속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 저녁 새삼스레 심신을 적시며 안겨드는 감정에 귀련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한동안 그린듯이 서있던 그는 깊은 생각을 안은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그는 공장정문이 바라보이는 구내공원앞에서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 아침 조립공 리대철에게 저녁 퇴근후 공원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였던것이다.

방금 걸어온 직장쪽에 눈길을 던졌던 귀련은 공원입구의 살구나무밑으로 들어섰다.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지나보낸 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이 땀짜지는 저녁바람에 소리를 내며 불안스레 떨었다. 그는 낮추 드리운채 제멋대로 흔들리는 거친 나무가지 하나를 꼭 잡아잡았다. 이 순간 귀련의 눈앞에는 비양기 어린 물음을 던지고 통쾌하게 웃어대던 리대철의 얼굴이 불쑥 다가섰다. 그러자 처녀의 가슴은 견잡을수없이 세차게 놀뛰었다. 그는 마치 청년이 앞에 있기라도 한듯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뜨겁게 마음속 심정을 속삭였다.

(대철동무, 오늘은 내 동무에게 며칠전에 하지 못한 대답을 할수 있어요.)

X

제대군인처녀 립귀련은 《리》차량공장 조립직

장에서 천정기중기 운전공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로동안전교양을 마친 그날 저녁이었다. 교양실을 나서니 중학동창생인 윤성실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매일 아침 정식 출근한다니 지금 직장장동지랑 먼저 만나 인사를 하자. 그래서 퇴근길에 너를 기다리던 중이야.》

《그래?》

흘러간 학창시절에 그러했듯이 그들은 손을 잡고 직장으로 달려갔다.

저녁 작업현장은 조용하였다. 조립중에 있는 화차들이 여기저기 서있는 드넓은 작업장을 둘러보는 귀련의 눈빛은 빛났다. 바로 그러는 그에게 미소어린 눈길을 보내던 윤성실은 직장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천정에 있는 기중기 한대를 가리켰다.

《바로 저 기중기가 네가 다루게 될 8호기중기야. 직장적으로 이 기중기가...》

인상적인 오목눈을 깜박이며 말하던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직장사무실안에서 별안간 청높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던것이다. 그 목소리는 그들이 출입문 가까이에 다가서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직장장동지, 내가 착상했다고 해서 이 문젠 강하게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다 조립한 화차에 련결기를 달 때 기중기가 아무리 련결기를 들고 화차에 다가서도...》

《허허허... 됐소, 됐소. 나도 생각을 해볼테니 너무 조급해서 그러지 마오.》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합니까. 저의 착상이 성공하면 화차조립속도도 높이고 조립공들의 힘겨움도 그만큼 해소시킬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해말라는게 아니요. 아무렇게 용접이나 하고 절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소. 그렇

게 고집을 부리다가 전번처럼 사고를 치면 어쩔려구 그러나. 동무를 생각해서 그러는거요.》

《저를 생각해서라구요? 허 참... 직장장동지, 전 그런 말은 듣기도 싫습니다.》

출입문이 확 열리며 검색수지안전모를 한손에 든 청년이 성급히 밖으로 나왔다. 성이 난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찬바람을 일쿠며 작업장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윤성실은 청년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누구니?》

《우리 직장에 끌아온 동무가 한명 있어 리대철이라구.》

(끌이 아픈 사람?...)

귀련은 한순간에 다 이해할수 없는 그 말마디를 되뇌었다. 그가 무엇인가 더 물으려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나이 지숙해보이는 장년이 밖으로 나왔다.

《그 녀석 성격이 피엑스럼기란... 허허 참...》

서글서글한 눈에 인정미가 흐르는 그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우리 직장장동지야.》

성실이가 귀찮았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장동지!》

귀련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하였다. 그제서야 직장장은 그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로동안전교양을 마치고 이곳 조립직장에 기증기운전공으로 배치된 제대군인 림귀련입니다.》

직장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동무였구만, 함께 손잡고 일해보자구.》

직장장은 후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종합청사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공장적인 행정일군 협의회가 있다고 했다.

두 처녀는 직장사무실앞에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듯 눈을 깜박이던 윤성실이 소리나게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에이 참, 그 동문 왜 그럴까?...》

그는 분명 리대철이라는 청년때문에 직장장의 기분이 흐린것 같다고 불부는 소리를 했다.

《우리 직장장동진 일을 제낄줄도 알고 인정도 많은 참 좋은분이란다. 그런데 그 동문 저를 위해주는 직장장동지의 심정은 이해 못하고 제잘난듯이 우물쭈머리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어. 말도 거칠고 무뎡뎡하고 성이 나면 받으려는 황소처럼 사납고...》

《그 동문 어떤 동무니?》

그 물음에 성실은 선뜻 대답을 안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음... 뭐라고 말할가. ...한마디로 우리 직장의 <불협화음>이야.》

《불협화음?...》

《이제 일하느라면 차차 알게 돼.》

성실은 더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다음날 첫 출근의 날이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온 귀련은 제대되여올 때 초소앞마당에서 떠나지 않고 집마당에 심어두었던 두그루의 철쭉꽃나무를 안고 나와 직장 출입문앞에 정히 심었다. 이마의 땀을 씻는 그의 눈앞에는 정든 중대전우들과 작별하던 날의 일이 떠올랐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관장동지!》

《건강하십시오.》

멀리까지 따라나온 중대장은 귀련이 작별의 거수경례를 하자 손을 잡아 내리우며 그가 등에 진 꽃나무가 안전한지 다시 거들어주며 말하였다.

《정든 초소에서 철쭉을 떠나지고 고향으로 가는 동무한테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마음의 뜻대로 살기만을 바랄뿐이에요.》

(중대장동지! 군사복무의 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귀련의 눈앞에는 전사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 전 중대장의 얼굴도 불쑥 떠올랐다. 그는 차오르는 걱정을 안고 정성껏 심은 꽃나무의 주변을 퐁퐁 밟아주었다. 그때 성실이가 나타났다.

《철쭉이로구나.》

그는 금시 피여난 철쭉꽃을 대하기라도 한듯 한동안 꽃나무가지를 매만졌다.

《봄에 꽃이 피면 참 아름답겠지?》

《응, 그래서 우린 중대병실주변과 전호가에 철쭉을 심었어. 뜻이 깊은 꽃이어서...》

성실은 감동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어서 들어가서 작업준비를 하자.》

그들은 휴계실로 들어갔다. 귀련이 한창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옷옷을 걸치던 성실이가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마나, 저 동무 좀 봐.》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 저녁 직장장과 맞섰던 청년이 철쭉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저럴 땐 성격이 거치른 사람같지 않지? 표정 두 감정이 풍부해보이구...》

성실은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듯 속삭였다.

귀련은 청년의 모습에서 좀처럼 눈길을 땔수 없었다.

청년은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처녀들의 눈길을 느끼기라도 한듯 급히 자리를 떴다.

작업복을 갈아입고난 귀련이 성실이와 함께 작업현장으로 나오자 조립공청년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들에게 쏠렸다. 성실이가 청년들쪽에 대고 소리쳤다.

《동무들, 제대군인 림귀련동무가 우리 직장 기증기운전공으로 배치되여왔어요.》

그의 말에 이미 작업장에 나와있던 청년들은 물론 휴계실에서 나오던 청년들까지 모두 그들에게로 모여왔다.

《반갑습니다, 처녀병사동무!》

《우리 직장에 온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철선녀가 돼서 아쉬워했더니... 이제 팔

선녀가 됐구만. ... 하늘나라에서 새로 내려온 선녀동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희뽕하게 인사를 하는 청년에게 성실이 밋지 않게 눈을 흘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귀련의 귀에 대고 속삭이었다.

《내가 말하던 바로 그 동무야. 리문식이라고...》

귀련은 귀속말로 자기 애인을 재빨리 소개하는 그의 말에 웃었다. 직장에서는 아득한 공중에서 일하는 기증기운전공을 《선녀》라고 부르는데 일급명미여서 칠선녀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귀련의 출현으로 팔선녀가 된셈이었다.

(참 재미있는 동무들이구나.)

귀련은 마음이 즐겁고 흥겨웠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한동안 직장청년들의 축하의 인사속에 묻혔던 귀련은 그들속에 끼우지 않고 검색수지안전모를 꼭 눌러쓰며 작업장쪽으로 스택스적 걸어가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다. 눈여겨보니 출근하여 꽃나무를 들여 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뜬 리대철이라는 청년이었다.

《여 대철동무, 와서 인사하라구. 우리 8호기중기를 운전하게 될 제대군인처녀동무가 왔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그러자 기름할사 한 얼굴이 얼핏 머리를 돌리며 손을 획 내저었다.

《어서 동무들이나 하라구. 난 <말로 하는 인사>보다 <일로 하는 인사>를 좋아하니까.》

(《일로 하는 인사》?)

뭔가 흥미없다는 말투다.

《역시 리대철이만이 할수 있는 말이거든...》

리문식이 그를 두둔하듯 한마디하자 성실이가 그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조용히 핀잔했다.

《됐어요. 문식동무, 동문 언제봐야 대철동무 무작정 취주기만 하는군요. 초면에 인사도 할줄 모르는 동문데...》

성실은 귀련의 팔을 잡아끌었다.

《기증기에 올라가자. 저 동무때문에 기분나빠할 건 없어.》

《기분이 나쁘다니?》

귀련은 기증기로 올라가는 계단식사다리의 층계를 오르며 나직이 반문했다.

《아니, 그럼 넌 기분이 좋니?》

앞에서 층계를 오르던 성실은 무슨 소리냐는듯 몸을 돌렸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만큼 감정도 다를수 있지 뭐.》

《그래?...그럼 됐구나. 난 직장사람들과 첫 대면을 하는 네가 저 동무때문에 기분 나빠할가봐 걱정했구나.》

《애두 참...》

귀련은 웃으며 성실이에게 어서 기증기로 올라가자고 재촉했다. 그는 그날 말없이 성실이에게서 기증기운전법을 배웠다. 어쩐지 성실이도 말이 없었다. 그런 날이 며칠 지난 어느날 하루의 작업을 끝내고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보자기에

싼것을 내놓으며 잠시 창박을 내다보던 성실이 한숨쉬인 말마디를 내뱉었다.

《미운 사람 딱 한개 더 준다는 말이 옳은가봐. 대철동무가 그 무슨 창의고안을 한하면서 밤낮 현장에서 쇠붙이와 씨름질하다나니 몸이 축가고 신경이 날카로와졌다고 글썄 우리 그 동무가 걱정을 하더구나. 그러면서 닭곰이라도 한마리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는거야. 참 남자들이란... 그러니 어찌겠니. 애인의 명령에 충실한 이 윤성실이는 밤새 곰을 고았구나. ...문식동문 대철동무와 중학동창이란다.》

《그래?》

《귀련아, 나 혼자 합숙에 가고싶지 않구나. 함께 들렀다 가지 않겠니?》

성실은 닭곰단지를 보자기에 싸들며 말했다. 귀련은 기꺼이 그의 요구에 응해나섰다. 동지를 위하는 리문식이나 성실이의 마음이 귀중하게 안겨왔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바에는 그 동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는데...)

귀련은 성실이와 나란히 걸었다.

리대철의 호실은 2층이었다. 가볍게 손기척을 하고 방으로 들어서자 창이 뒤로 가게 모자를 돌려쓴 리대철이 나무토막으로 기계모형같은것을 열심히 깎고있다가 호실에 나타난 두 처녀를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대철동무, 이젠 또 뭐예요? 부잡스러운 남자들이 들 장난처럼...》

《동문 몰라도 되니 참견하지 마오.》

리대철은 한마디 하고는 다시 일손을 잡는다. 성실은 그러는 그의 등뒤에 대고 입을 삐죽해보이고는 걸으로 다가섰다.

《대철동무, 나에 대해선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문식동무랑 직장동무들이 동무얼굴이 축갔다고 모두 걱정해요. 그래서... 성의로 알고 받아주세요. 닭곰이야요.》

성실은 보자기를 풀고 하얀 사기단지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그 순간 번쩍 돌린 리대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종잡기 어려운 침묵이 방안에 흘렀다. 귀련은 청년이 벌컥 성을 낼가봐 두려웠다. 그런데 그는 그 무슨 부탁을 하듯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닭곰을 해온 그 성의만은 고맙소. 하지만 난 이런걸 좋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소.》

《예?》

성실은 억이 막힌듯 대꾸할 말을 인차 찾지 못했다.

귀련은 지금까지 흘러온 이들의 생활속에 그 어떤 감정이 존재하는것이어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수 없어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대철동무, 동문 정말 너무하군요. 어찌면 동지들의 진심을 그렇게 모욕할수 있어요?》

성실이 발끈 성을 냈다.

《진심?... 모욕?...》

청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비졌다. 그는 초면의

처녀까지 곁에 있어서인지 손에 들고있던 작업도구를 되는데로 방바닥에 내던지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두 처녀는 망연히 주인이 나가버린 방안에 서있다가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에이, 무슨 사람이 저런지 참 이해할수 없더니까.》 성실이 달아오른 얼굴을 손수건으로 씻으며 분을 더뜨렸다.

《제가 무슨 대단한 기술혁신이라도 하는것처럼 밤낮 저 모양인지... 직장장동지도 대철동무의 성격을 알기때문에 그날도 웃으며 대해준거야. 그런데 그 동문 어떻게 행동을 했니. ...정말 별난 동무야.》

윤성실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공장에 입직해 들어오니 대철동문 무슨 사고를 저질렀는지 말들이 많더구나. 알고보니 다른 동무들의 일숨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생각대로 용접을 했는데 기술검사에서 그 동무가 용접한 부분이 제거되었다는거야. 그바람에 직장이 들썩했단다. 그동문 전부 그런 식이야. 오죽하면 자기 부모들과도 맞지 않아 합숙에 나왔겠니. 벌써 몇해째야. 문식동무한테 하는 말이 부모들의 간섭에서 <해방>되어 독자적으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결심이라고 하더라. ... 그 동문 원래 어려서부터 무서운 장난군이고 고집쟁이란다. 집안의 록음기며 텔레비존이며 <기>자 달린 물건 짝은 모조리 뜯었다 맞췄다 하다가 망가뜨리는 바람에 중학시절 한때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댔어. 그때 제멋대로 돌아치다가 팔까지 부러져 군대에도 못가지 않았니. 난 대철동무네 집 가까이에 살다니니 모든걸 다 알고 있어. 이외에도 내가 알고있는 사실이 많아. 중학교때 실습용자동차를 몰래 분해하다가 사고를 쳐서 전교에 소문난거랑... 이따금씩 내가 중뿔나게 놀지 말라고 타이르면 뭐라는지 아니? 이 리대철이가 윤성실이의 말을 듣고 자기 성격을 숙여야 한다면 최대철이든지 허대철이든지 성을 갈고말겠단다. 그러는 판이야.》

성실은 쓰겁게 웃었다.

《귀련아, 미안해. 너까지 감정을 상하게 해서.》

《아니, 아니야...》

귀련은 고개를 저었다. 무엇인가 생각해보고싶었다.

집에 들어와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쩐지 성실이와 함께 리대철의 호실에 갔을 때의 일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의 등뒤에서 입을 뻐쭉거리다가도 곁에 다가가서는 진심인듯이 친절하게 말하던 성실이, 귀련이 첫날 출근하여 직장청년들의 인사를 받을 때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리대철을 취주던 리문식이, 청년이 꽃나무를 들여다 볼 때 어이없어하던 성실이... 귀련은 리대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놓고 생각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물론 성실이의 말대로 리대철의 성격적결함이 없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장장동지랑 동무들이 그를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과연 그가 지금처럼 그럴수 있을까?...

귀련은 혁명동지들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동지애는 그 어떤 사람의 심장도 다 울릴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이 군사복무의 날에 그가 체험한 인생의 귀중한 진리였다.

그런데 그것이 리대철이라는 인간이라고 통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귀련의 눈앞에는 새삼스레 군사복무의 날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중대가 야외훈련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귀련이 속한 분대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 진지를 굴설하고있었다. 한창 산력을 까내는데 갑자기 웃쪽에서 흠사태가 밀려내렸다. 그때 귀련의 분대에 와서 진지굴설을 지휘하던 중대장이 사태가 덮칠 위치에 서있던 그와 다른한 전사를 떠밀치며 소리쳤다.

《피하라!》

그 순간 며칠전에 내린 비로하여 한껏 젖은 무서운 흠사태가 중대장을 물어버렸다. 순식간에 너무도 뜻밖에 일어난 일이었다.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전사들이 흠사태를 파헤치고 중대장을 구원했을 때 영영 뜨지 못할것 같던 그의 눈시울이 무겁게 돌리며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무들... 무사해요?...》

《중대장동지, 우린 일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그 대답에 안심이 되는듯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중대장동지!》

귀련은 친언니와 같은 중대장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야외훈련을 앞둔 지난밤 전사들이 단잠에 들었을 때 한밤을 지새며 그들의 목달개를 갈아달고 신발을 빨아 말리워놓느라 눈을 붙여보지 못한 그였다. 그런 지휘관인 중대장의 희생은 온 중대를 울리었다. 혁명동지들을 위한 최대의 사랑으로 표현된 값높은 희생이 그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라는것을 귀련은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그 순간 귀련의 귀전에는 그가 군대에 입대한 이듬해 봄날 중대진지 전호에서 바라보이는 철령의 봉우리들을 가리키며 중대장이 한 말이 금시린듯 가슴을 두드리며 울렸다.

《철쭉꽃이 붉게 핀 철령의 봉우리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최전연 우리 군인들을 찾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를 가리지 않고 자주 철령을 넘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저처럼 붉게붉게 피어난것이 아닐까요? ... 그래서인지 철령의 철쭉꽃은 단순히 자연의 꽃이 아니라 전사들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험한 령을 넘고넘으시는 우리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병사들의 마음처럼 생각되어요... 우리 중대병실주변과 전호마다에 철쭉꽃을 심고 가꾸자요. 그래서 온 초소가 철쭉꽃으로 덮이게 하자요. 그리고 항상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자요.》



그해 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 온 중대가 펼쳐나서 초소와 진지에 수백그루의 철쭉꽃을 피워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준 열렬한 동지애를 가슴에 지녔기에 중대장은 그 위험한 순간 전사들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친것이 아닌가!... 바로 사람들 사이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사이처럼 된다면...)

사회생활의 첫기술에서 부탁된 일로 하여 귀련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깊어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귀련은 기중기운전전습을 마치고 자기의 기중기로 옮겨앉았다.

어느날 한창 조립중인 무개차 옆벽철관을 기중기갈구리에 걸고 조립공인 리대철의 신호기발에 따라 조심조심 운전을 해나가던 그는 갑자기 울리는 야무진 호각소리에 놀라 주행을 멈추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청년은 귀련을 향해 기발친 손을 내흔들며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여, 동무! 완전히 거부기운전공이구만...》

자기가 한 말이 우스워서인지 아니면 깜짝 놀라는 처녀를 보는것이 통쾌해서인지 청년은 머리를 흔들며 큰소리로 웃어댔다. 귀련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자기의 기중기운전이 조립공의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리대철의 새로운 성격적면을 알게 된것 같아 기뻐다.

(저 동무한테 처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거친것 같으면서도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웃음도 있고... 사내다운 기개가 있어...)

귀련은 청년의 통쾌한 웃음소리를 한번 더 듣고싶은 심정이였다. 설사 그가 기중기운전에서 서투른 자기를 비웃었다 해도 그의 웃음이 모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기중기!》

밑에서 리대철의 큰소리가 다시 울렸다. 귀련은 머리를 내밀고 내려다보았다.

《기중기운전을 좀 더 속도있게 하란 말이요.》

명령조로 한마디하고난 청년은 뭐가 그리도 우스운지 여전히 웃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의 행동에 함께 일하는 조립공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귀련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갑자기 달라진것 같은 작업장의 분위기를 감득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어쩐지 즐거웠다. 그리하여 그는 방긋 웃으며 신호기발을 든 리대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청년을 향해 맞받아 소리쳤다.

《좋아요, 대철동무. 기중기는 이제부터 비행기가 되겠으니 어서빨리 신호를 하라요.》

귀련은 자기의 말이 신통한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처녀의 발랄한 웃음소리가 작업장을 울렸다. 잠시 멈춰섰던 기중기의 전동음이 다시 울리자 신호기발을 든 리대철은 련속 야무지게 호각을 내뿜며 세차게 기발을 흔들었다.

그날 작업은 밑에서는 끊임없는 호각소리와 힘차게 흔드는 신호기발의 펄럭임소리, 그리고 우에

서는 멈출줄 모르는 기중기의 전동음과 처녀의 웃음소리로 하여 전에 없는 흥겨움속에 진행되였다. 그래서인지 그 하루의 화차조립도 놀랄만한 수자를 기록하였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들 두사람의 표정은 밝았다. 귀련은 리대철이와 보조를 맞춰 일한 하루의 로동으로 하여 마음이 즐겁고 가벼웠다. 한편 리대철은 자기를 대해주는 처녀의 밝은 인상과 민감한 일습씨에 놀랐다.

지금껏 로동호흡이 것처럼 잘 맞은적은 없었다. 그는 이때까지 느껴본적 없는 환희의 감정이 가슴에 차오르는것을 체험하였다. 《거부기운전》을 한다고 소리친 자기의 큰소리와 어이없는 통쾌한 웃음에 처녀는 가식없는 웃음과 정확하고 재빠른 일습씨로 대답하였다.

대철은 그속에 흐르는 딱히 짝어 말할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그대로 자기의 가슴에 옮겨앉은듯싶었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휘파람으로 즐거운 원무곡을 호기있게 불며 휴게실로 들어갔다.

리대철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귀련의 마음은 흥겨웠다. 성실이 그에 대해 거칠고 피땀스럽다고 했지만 결코 그렇게만 볼 동무가 아니라고 그는 단정했다. 청년의 모습은 그의 눈에 새롭게 비쳤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세면장에 들어가 손발을 씻고 세면을 하였다. 뒤따라 들어온 윤성실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넌 참 이상하구나. 대철동무가 큰소리를 치는 데도 그냥 웃으면서 기중기운전을 하더구나. 그 동무가 오늘 무슨 통쾌한 일이라도 있는듯이 큰소리로 웃어 댄건 네가 기중기운전이 서툴다고 비웃는거란다. 그 동무에겐 그런 버릇이 있어. 그런데도 넌 그걸 모욕으로 감수하는것 같지 않더구나. 넌 제대군인의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

귀련은 얼굴을 씻던 물물은 손으로 흐트러진 귀밑머리를 쓸어올리며 세면대앞에 걸려있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뒤통에서 성실이 세면할 생각마저 잊고 리해할수 없다는듯 가늘게 찡프린 눈으로 귀련을 쳐다보고있었다.

《성실아, 자존심이란 뭐겠니? ... 그 동무가 오늘 목청을 돋우고 큰소리로 웃고 한건 다 기중기운전공을 믿고 마음을 합심해서 일이 잘되게 하자고 해서 그런건데 기쁘게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군대에 나가 처음으로 구대원들의 충고를 받았을 땐 기분이 없었어. 하지만 차츰 동지들의 충고가 좋더라. 그속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어. 그 믿음과 사랑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난 생각해. ...난 직장에 배치되어

와서 제대군인이라고 너도 그렇고 모두들 떠받들어주는데 유독 대철동무가 오늘 일하면서 큰소리로 충고를 주었구나. 난 그 동무의 가식없는 충고를 받은게 막 기뻐. 마음이 즐겁고 절로 기뻐서 웃음이 나왔어. 사실 그 동무의 충고는 내가 기중기운전을 인차 숙련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충고였어.》

《놀랍구나. 넌 참!...》

성실은 귀련의 말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거울속에 비친 그의 얼굴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여다보았다. 로동의 희열과 란만 그리고 고깝게 받아들일수도 있는 조립공청년의 충고의 말마디에서도 진정과 믿음을 감수할줄 아는 류다른 감정에서 야기된 흥분으로 하여 흥조가 어린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 성실이가 느껴보지 못한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안겨왔다. 그로서는 귀련이의 그 모든 감정과 진실한 행동을 도저히 생각할수 없을 것 같았다.

《넌 군대에 나가서 많이 달라졌구나.》

그는 깊은 생각을 안은채 한숨쉬듯 조용히 말하였다.

귀련은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남자탈의실에서 나오던 리대철이 그와 마주쳤다. 처녀의 웃음어린 눈빛을 대해서인지 아니면 그날 하루의 작업이 가져다준 희열에 잠겨서인지 그도 빙긋이 웃었다. 그러자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칠어보이던 그의 인상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린듯 했다.

《대철동무, 오늘 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동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싶군요.》

《고맙다구요?》

그는 놀라게 반문하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 인사는 처음 받아보는데요.》

그의 말은 어쩐지 귀련의 가슴을 울렸다.

며칠후 그들은 나란히 퇴근길에 올랐다. 정문을 벗어나자 저멀리 농장벌을 가로질러 흐르는 룡천강에 비친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안겨왔다.

《대철동무, 한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뭘게 미리 다짐을 받는거요?》

리대철은 귀련을 쳐다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뭘겠는지 알아맞춰보세요.》

《그야 뭐 한두가지가 아니겠지요. 이 리대철이라는 인간이 시내에 집을 두고 뭇때문에 합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야 <불협화음>이 아니요.》

《예?!》

귀련은 그만 웃음을 터쳤다.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한참 웃고나서 말했다.

《명중률이 높지 못하군요. 전 사실...》

리대철은 사뭇 긴장한 눈길로 처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전 사실 대철동무가 무엇인가 새로운걸 창안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어떤것인지 알고 싶어 그런거예요.》

웬일인지 그 물음에 리대철은 시무룩해졌다. 그처럼 거칠고 도그하던 그답지 않았다. 그는 섣뜻 대답을 안하고 터벅터벅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직장장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걸 동무는 왜 알고싶어 하는지 이해되지 않소.》

《정 말 못할 비밀이라면 구태여 알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전 동무가 퇴근해서 호실에서도 그렇고 작업장에서도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한 기회에 꼭 물어보리라 생각했었어요.》

귀련의 진정넘친 살뜰한 말에 고개를 수긋하고 걸음을 옮기던 리대철이 머리를 들며 그로서도 견잡기 어려운데 격한 감정을 터뜨렸다.

《물론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수도 있소. 하지만 말은 일을 하는 과정에 일이 더 잘될수 있는걸 알게 된 다음에야 어떻게 가만 있을수 있겠소.》

리대철은 그 누구에게 항변이라도 하듯 옆에 떠서 설명을 했다.

《화차조립은 사실 용접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중량물들을 맞물릴 때 신속성과 정확성을 지키는게 중요한거요. 난 최근에 화차에 련결기를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기중기가 물고간 련결기가 수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우리 조립공들이 기울어진축을 들어올리느라 공공거리고 지어 그밀에 자까까지 고여가면서 역사를 부려야 련결기조립을 할수 있는데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소... 그건 사실 기울어지는 반대편에 중량물을 달아주는 식으로 수평상태를 보장해줄수 있는 지구만 만들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거란 말이요. 그래서 제기했었는데 헛참...》

리대철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착상을 설명했다. 리대철의 이야기를 듣고난 귀련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그가 창안하려고 하는것이 결코 부질없는 장난이나 공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대철동무, 될수 있겠어요. 화차에 련결기를 조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동무의 착상이 성공하면 조립공들이 지금처럼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할수 있으니 얼마나 멋들어진 창안인가요. 그 창안을 성공시키면 아마 조립공들이 대철동물 업고 다니자고 할거예요.》

《정말 그럴것 같소?》

《정말 아니문요. 동무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창안이 성공하자면 기중기운전공도 합심해야 할것 같은데 제가 돕겠어요.》

리대철은 말없이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다. 사실 련결기조립지구를 만들자면 중량물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중기의 도움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처녀는 그 모든것을 다 이해하고 도와나서겠다고 하니 대철은 가슴에 와닿는 감동이 커서 말을 할수 없었다. 그는 이런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직 체휼해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귀련은 그의 가슴에 이름할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어번지는것을 알지 못했다.

## X

어느날 성실이와 함께 퇴근하려고 밖으로 나오던 귀련은 목직한 밤색주머니를 들고 서있는 리대철을 보았다. 대철은 귀련이와 같이 나오는 성

실을 보자 조금 언짢은 낯색으로 외면하고 섰다. 성실은 그가 귀련을 만나려 한다는것을 짐작했는지 대철의 표정에는 개의치 않고 거의 무관심한 얼굴로 말없이 청년의 앞을 지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는 성실이와는 관계없다는듯 대철은 손에 들고있던 주머니를 귀련의 앞으로 내밀었다. 귀련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였으나 영문을 몰라 청년을 쳐다보았다.

《기증기고장되치에 도움이 될것 같아 소공구와 부속들을 마련했소. 마음에 들겠는지…》

《고마워요, 대철동무!》

《고마울게 있소? 기증기가동이 잘돼야 우리 조립공들의 일도 잘될게 아니요.》

귀련은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것이 싫지 않았다.

그 말속에 그의 모지름과 지향, 진심이 숨배있는듯이 느껴졌다.

(그 바쁜 속에서 언제 이런것들을 다…)

귀련은 그의 마음이 고마왔다.

(그런데 나한테는 것처럼 진심인 이 동무가 어째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처럼 거칠까. 특히 성실이한테…) 귀련은 그에게 심중의 말을 하고싶었다.

《대철동무, 동문 왜 성실이한테는 검은 연기만 피우는가요?》

《검은 연기?》

《그래요. 난 <검은 연기>라고 표현하고싶어요.》  
별안간 대철은 놀랍다는듯 눈을 크게 뜨고 귀련을 찬찬히 더듬더니 피씩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청년의 얼굴을 가늘게 조프린 눈으로 일별하며 물통기진 입술을 찌글찌글하게 감쳐물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란걸 몰라서 묻소?》

그의 입술사이로 비웃음비슷한 뽕소가 피뚝 스쳐지났다. 귀련은 지금껏 보지 못한 대철의 도전적인 얼굴표정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긴 그러루한 말을 처음 듣는건 아니지만…》

대철은 숨을 한번 크게 내그었다. 그리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결국은 동무도 문식이나 성실동무처럼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구만… 그렇소. 동무가 말한대로 이 리대철이는 검은 연기만 피우는 사람이요.》

대철은 씹어뱉듯 통명스런 말을 남기고는 회몸을 돌렸다. 그러다 다시 머리를 반쯤 돌렸다.

《뭐? 검은 연기!》

그는 다시한번 말을 곱씹고는 작업장쪽으로 성급히 걸어갔다.

(아니, 저 동무가?…)

귀련은 아연한 눈길로 리대철의 뒤모습을 한동안 여겨보았다. 그는 사실 그날 낮 휴식시간에 별치 않은 일로 문식이와 대철이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언쟁을 녹작하려고 성실이 끼여드는 바람에 대철이가 더 크게 노했었다는것도 감감 모르고있었다.

리대철은 작업장에 이르러서도 선뜻 일손을 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웬일인지 소중한 그 무엇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이 허전하였다.

(림귀련?…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대해준 그 모든것이 진심이 아니었던 말인가… 검은 연기라고?…흠…)

요즘 직장에서는 화차조립작업에서 조립공 리대철이와 기증기운전공 림귀련이 사이에 기막히게 작업보조가 꼭 맞는다는 말이 나돌고있다. 대철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런 말이 귀결에 들릴 때마다 자기를 진심으로 믿고 리해해주는 직장의 유일한 처녀인 귀련에 대한 고마운 심정뿐이었다. 또 어떤 때는 후방부의 입심 센 녀인들이 조립작장의 아무개와 아무개가 서로 반한 눈치인게라고 입빠른 소리를 한다고 하였을 때는 허거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곤 하였다.

(아니야, 난 결코 그 처녀에게서 그런것을 바랄수 없어. 그가 나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것만으로도 난 더이상 바랄것이 없어. 지금껏 그 누구도 나를 그 처녀처럼 대해준 사람은 없었어.)

리대철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순간을 체험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였었다.

(그런데 뭐 검은 연기를 피운다고? …헛참, 그러니 그도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지…내가 그 처녀를 잘못 보았는가?)

그는 머리를 쳐들고 물기가 번쩍이는 눈으로 기증기들이 서있는 공중을 바라보다가 일손을 잡았다. 까닭 모르게 가슴을 헤집는 그 어떤 아픔을 잊으려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용접불꽃을 튀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득 공중에서 나는 기증기의 전동음에 대철은 얼굴을 가리웠던 용접면을 놓고 쳐다보았다. 뜻밖에도 어느새 기증기를 리대철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몰고온 림귀련이 운전실에서 머리를 내밀며 웃고있는것이 아닌가.

(흠!) 리대철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금 용접면을 손에 잡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무엇인가 등등 매달린 기증기갈구리가 내리드리웠다. 이어 처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날아내려왔다.

《대철동무, 장갑을 끼고 하세요. 동무에게 주려고 마련한거예요.》

쳐다보니 갈구리에 매달려 내려온것은 보기에 도 따뜻한감이 드는 두툼한 작업장갑이었다.

《이걸 거두지 못하겠소!》

리대철은 버럭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갈구리에 매달린 장갑은 더 바투 그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쇠빛의 검스레한 청년의 얼굴이 언뜻 처녀를 쳐다본다. 귀련은 대철의 얼굴에 비낀 고뇌와 그 무엇에 반발하듯 강하게 내뿜는 그의 억센 힘이 가슴에 마쳐움을 느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청하듯 말하였다.

《대철동무, 어서 장갑을 끼고 힘합쳐 창의고안을 진척시키자요.》

《그만두시오.》

리대철은 귀련을 향해 손을 내흔들었다.

《나야 사람들에게 검은 연기를 피우는 사람인데 대상할 필요가 있소?》

그의 말에 귀련은 그만 웃고말았다. 그가 뿔뿔히 떨고 있었는지 리대철은 몰랐다.

《대철동무, 검은 연기를 피워도 난 동무가 좋아요. 그래서 비판을 한거고 또 이렇게 달려와 기증기운전대를 잡은게 아닌가요.》

웃음을 담은 처녀의 부드러운 말에 대철은 마치 화가 난듯 기증기운전대에 매달려 눈앞에서 데루거리는 두쌍의 장갑을 손에 든 용접면으로 툭 쳐버렸다. 그러자 서로 끈으로 연결된 장갑은 쌍그네처럼 그의 눈앞에서 오간다. 기증기운전실에서 그 모양을 내려다보던 귀련은 참지 못하고 깔깔 웃는데 리대철은 망두석처럼 서있기만 했다. 언젠가 화차조립을 하면서 이 처녀에게 큰 소리를 쳤을 때도 그는 웃음으로 대철을 대해주었다. 그때 대철은 얼마나 놀랐던가. 다른 처녀라면 그러지 않았을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 이해할수 없는 일에 부닥친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지기까지 했었다. 지금의 경우가 바로 그때와 같다. 하지만 대철은 그때처럼 어리둥절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무엇을 푼다기보다는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처녀가 있는 기증기를 향해 나는듯이 사다리를 타고 뛰어올라갔다.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렸는지 그자신도 몰랐다. 처녀의 진속을 떠보고싶은 알곳은 욕망이 불쑥 머리를 쳐든것이다. 그리하여 기증기운전실문을 열어제낀 그는 머뭇거리거나 당황해하는 빛도 없이 처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말 이 리대철이라는 인간이 좋아서 왔소?》

《정말이에요.》

《믿어도 되겠소?》

《믿으세요.》

《그렇다면...》

리대철의 얼굴엔 일순 야릇한 웃음이 비껴다가 사라졌다. 오래전에 그의 마음속에 해묵었던 물인 정스러운 승벽심 비슷하면서도 울긋불긋한 감정이 불쑥 되살아났다.

《그래 동문 내가 좋단 말이지...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지요. 동문 나와 한생을 같이할수도 있겠소?》

《예?!...》

불의의 공격과도 같은 질문이였다. 귀련은 뜻밖의 질문에 한대 호되게 후려맞기라도 한듯 당황한 눈길로 처녀를 더듬었다. 이 순간 그의 시야에는 처녀의 얼굴표정이며 마음속 심리까지도 투시해보듯 실눈을 짓고

바라보는 대철의 모습이 멀리에서처럼 안겨왔다. 우롱당한 자존심과 수치를 당했을 때와 같은 모멸감이 온몸에 엄습했다. 그러나 아무런 항변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배반에 대한 기막힌 감정

만이 머리속에 뭉뚱했다. 청년과 마주섰던 귀련은 저도 모르게 몸을 휙 돌렸다.

잠시후 갑자기 청년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기증기운전실에서 울렸다. 어느새 작업장으로 내려간 리대철은 처녀가 그러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한듯 한참이나 웃어댔다. 그는 그 무슨 격전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도취된 감정으로 세차게 용접불꽃을 날렸다.

(글쎄 그렇겠지. ...뭐 나같은 사람이 좋다고?... 흠...)

청년의 그런 모습을 보는 귀련은 전신을 휩싸이는 야속한 감정을 안은채 기증기운전실을 내려 밖으로 달려나갔다.

(대철동무, 동문 너무하군요.)

리대철은 정문쪽으로 달려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는 할일을 잊은듯 굳어졌다.

(내가 지나쳤는가?)

## X

귀련은 리대철이 나타날 직장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청년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속엔 요 며칠동안에 겪은 심리적고충이 새록새록 되새겨졌다. 잊을수 없는 그 저녁부터 대철이에 대한 야속함은 한동안 처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언젠가 퇴근길에 성실이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귀련아, 요새 직장사람들속에서 너와 대철동무가 기막히게 로동호흡이 잘 맞는다는 말들이 돌아가더라. 그건 좋은 일이라고 난 생각해. ...그런데 서로 반했다는 말까지 하는데 주의해야겠어.》

그때 귀련은 어이없어 웃어넘기고말았었다. 꿈에도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사랑! 아직은 체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지만 귀련은 사랑이란 끝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찬 완성된 그런 감정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런데 대철에게서 이처럼 더없이 값높고 고상한 감정이 희롱당한것 같은 그런 어이없는 물음을 받게 될줄이야...

(처녀의 진정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니...)

고깝고 야속한 생각은 귀련의 마음속을 송곳처럼 줄곧 찔러댔다. 직장에 나와 어느때없이 더 과묵해진것 같은 대철이의 기발신호를 받으며 기증기를 운전해갈때나 피땀 스치는 눈길에서도 그러한 감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인 일인지 친혈육과 같은 정으로 얹혀 서로 믿고 위해주던 군사복무의 나날 중대생활만이 간절하게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군사복무! 그 말을 뇌일 때면 가슴속에 제일 후덥게 떠오르는것은 전우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다. 그것을 군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동지애라고만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평범하게 부르는 그 말속에는 함께 생활하는 동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고 샘처럼 맑은 진심이 있다. 그런데...

귀련은 고개를 수긏하고 기발신호를 하는 대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무의식중에 기증기를 운전하면서 생각에 흠뻑있었다.

(혹시 내가 그날 대철동무에게 지나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귀련은 그날의 그 불쾌한 일을 상기하며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는 물론 그날 대철의 질문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귀련은 그저 자기의 마음속 진심과 믿음을 믿고있었고 그래서 대철에게도 믿음과 진심을 가지고 대했을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나올줄은 몰랐었다.

문득 전우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전 중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그 중대장동지가 나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슴속에서는 뭔가 꼭 짊어 말할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밀려왔다.

(중대장동지였다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눈을 감기 전에 전사들의 안전을 물어보던 그의 목소리가 귀전을 치며 들려왔다. 군사복무의 날들을 되짚어 회억해보는 귀련의 마음속엔 어떤지 동지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중대장앞에 몇몇치 못한 죄스러운 감정이 서서히 차올랐다.

(귀련, 너는 진짜 지금껏 대철동무를 진심으로 대해왔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가 한마디한걸 가지고 패해서 돌아선것을 어떻게 봐야 하니?… 확실히 너에겐 그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것 같아…물론 사랑은 귀중하다. 하지만 진정한 동지를 위한다면 사랑까지도 바치는것이 진실한 동지애가 아닐까…나는 군대에서 동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다운 동지애, 참다운 사랑을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단순히 처녀의 고민이라고만 할수 없는 마음속자문자답이 계속 되었다.

(사실 대철동문 좋은 점이 많은 훌륭한 동무가 아닌가. 그 동무의 결합은 능히 고칠수 있는것이야…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고 훌륭해질수 있는 동무야. 그런 동무를 심장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난 그 동부를 위해 사랑을 바치겠어…)

처녀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는 마치 리대철이 앞에 있기라도 한듯 마음속 진심을 터치었다.

(아! 대철동무, 저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어제 저녁 귀련이 작업을 끝내고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유심히 지켜보던 성실이가 다가왔다. 그는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대철동무와 무슨 일이 있었니? 요즘 네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그 물음에 귀련은 말없이 웃었다.

《내 눈은 속이지 못해. 네가 지금껏 잘 대해줬

으니 그렇지 그 동무 성격이야 어데 가겠니? 차라리 잘됐어. 그러잖아도 너와 대철동무가 서로 반했다는 말까지 돌아가는데 그와 대상하는걸 삼가해라.》

귀련은 웃음을 거두었다.

《성실아, 난 그 동무를 사랑하면 안되니?》

《어마나, 너 정말이니? 뭇답이지?》

《아니 정말이다.》

《애두 참, 정신 나갔니? 넌 그가 어떤 동문지 잘 알지?》

성실은 귀련의 뺨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귀련은 어이없어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는 좋은 동무야.》

《제발 그런 말 말어. 난 네가 그를 사랑한다고는 생각지 않아. 너처럼 똑똑한 처녀가 아무려면…》

귀련은 성실을 쳐다보았다. 그저 스쳐지나기에는 그의 말이 너무도 심각하게 가슴을 쳤다. 그는 언젠가는 성실이에게 한번 꼭 하고싶었던 말을 입에 올렸다.

《성실아, 군대에서는 동지호상간에 거짓으로 대하는 법이란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동지를 위한 진정이 놓여있어. 그런데 섭섭한 말 같지만 너에게서는 그런 진심과 진정이 부족한것 같구나.》

성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실 그 동문 지나친 자존심과 우월감, 고집이센 성격적결함만 고치면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는 훌륭한 동무라고 생각해. 손재간이 있고 착상하기 좋아하는 그의 우점을 적극 조장발전시켜주고 그런 성격적약점을 고쳐주는 일을 너와 나 그리고 직장동무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동지적인 사랑으로 말이야. 우리 군대에서는 동지호상간에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차넘치고있어. 그래서 군사복무를 하면서도 유명한 <병사미술가>, <병사서예가>며 개성적특성을 가진 재간동무들이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거란다.》

성실은 깊은 생각을 안고 고개를 끄덕이였었다. 그 순간 귀련은 대철을 만나 마음속 진심을 그대로 말해줄 결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그에게 저녁퇴근후 공원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문득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귀련은 공원 입구에 나타난 리대철을 보았다. 숨웃을 입지 않은 진곤색잠바옷차림인 그의 모습은 어쩐지 수척해보였다.

(숨웃은 왜 입지 않았을가. 춥겠는데…)

귀련은 살구나무앞으로 걸어오는 대철을 불렀다. 리대철은 놀란듯 주춤 멈춰서며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두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대철은 처녀를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다. 어덴가 의기소침해진듯 한 그의 모습에 귀련은 방긋이 웃었다.

(대철동무답지 않군요.)

《미안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아니, 아니요. 할말이 있으면 다 하시오. 내 요  
전날 동무한테 무례하게 말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소. 실수한것으로 생각하오.》

그 말에 귀련은 호호 웃음을 터쳤다. 그러던 그  
는 정색한 얼굴로 리대철을 쳐다보았다.

《아니, 대철동문 저에게 좋은것을 주었어요. 전  
새롭게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전 대철동무  
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요.》

대철은 당황하여 웅얼었다.

《대철동무, 동무한테 좋은 점이 많아요. 동문  
남자답게 시원하고 근면하고 가식이 없어요. 그런  
데 동무한테 자기의 고집만 절대시하면서 다른  
동무들의 충고와 진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일줄 모  
르는 성격적결함이 있어요. 사회와 집단, 동지들  
을 위한다면 그런 성격적약점은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 동무들도 대철동무를  
적극 도와나설것이고 동무는 모든면에서 사람들  
의 찬탄을 받게 될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동무  
는 한 처녀의 사랑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 처녀의 불같은 말에 리  
대철의 심장은 흠칫 떨렸다. 그는 얼굴이 달아오  
르고 숨결이 빨라졌다. 환희도 기쁨도 아닌 당황  
함이 그의 온몸을 휩싸안았다. 허둥거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대철은 마음의 소리를 터쳐올  
렸다.

《난...난...동무가 믿는 그런 사람이 못되오.》

그는 도망치듯 황황히 처녀의 앞에서 물러났다.  
뒤에서 처녀가 부르는 소리도 그는 듣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작업장에 이르렀다.

경비근무 나온 동무가 그에게 무엇인가 물었으  
나 그는 듣지 못했다. 기종기가 울려다보이는 철  
근기둥에 몸을 기대는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  
며 통절하게 부르짖었다.

(대철이, 너는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아야 한다.  
그래 너의 성격이 못돼먹은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아,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집안의 외아들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들  
이 자기를 위해줄것만 바라고 제 배짱대로 생활  
해온 나날이며 사회생활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  
친 가지가지의 일들이 눈앞으로 스쳐지나갔다. 언  
젠가는 직장적인 모임에서 리문식이 비판을 했다.  
하여 그후로는 그를 멀리 했었다. 그리고 그 누구  
의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었다. 잘못은 전적으  
로 그자신에게 있는것이였다. 그런데도 제대군인  
처녀 림귀련은 리대철이라는 인간을 진심으로 대  
해주지 않았는가.

리대철의 눈앞에는 새삼스레 귀련이와 보조를  
맞춰 일하던 때며 지어 그와 함께 거닐던 일까지  
떠올랐다.

(진심, 가식없는 믿음, 뜨거운 인정...그 처녀에  
게서는 확실히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신선  
한 향기가 풍긴다. 그런데도 난...그의 진심을 리

해 못하고 막되게 놓았으니...)

대철은 자신을 끝없이 타매하는 심정으로 일손  
을 잡았다.

《그런 성격적약점만 고친다면...동무는 모든 면  
에서 사람들의 찬탄을 받게 될거예요.》

방금전 처녀가 한 말이 귀련을 울린다.

(얼마나 옳은 말인가? ...그렇게만 되면 과연  
나도 그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가?...)

리대철의 가슴에는 지금껏 체험 못한 깊은 사  
색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그런 의식속에 처녀가  
부어준 참된 녀이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심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자기의 착상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소재들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이마에 내뿜는 땀을 씻으며 그는 자주 기종기  
가 서있는 공중을 쳐다보았다. 금시라도 기종기전  
동음이 울리고 처녀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릴것  
만 같았다.

《동문 한 처녀의 사랑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불덩이를 삼키기라도 한듯 온몸이 확 달아오른다.  
(세상에 그런 처녀가 다 있다니...도대체 어데서  
불쑥 솟아난 처녀인가?...<선녀>라더니 정말...)

《난 동물 믿어요.》

(믿는단 말이지...)

리대철은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처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다. 그런데 정말  
꿈을 꾸듯이 기종기전동음이 고르롭게 울리며 운  
전실에서 작업모를 쓴 처녀의 얼굴이 불쑥 나타  
나는것이 아닌가. 대철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고맙소, 귀련동무, 내 꼭 동무가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겠소. 이젠 진심이요. 믿어주오.)

그는 불쑥 눈굽에 고이는 물기를 팔소매로 뺨  
문지르며 행복에 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 X

소담한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새해에 들어  
서 세번째로 내리는 눈이다.

아침일찍 출근하던 귀련은 눈꽃이 핀 철쭉꽃나  
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철쭉꽃이 피어날것이다.

(그때면 철령은 온통 붉게 핀 철쭉꽃으로 뒤덮  
이겠구나...)

귀련이 휴계실에 들어서는데 눈을 함뿍 뒤쓴  
성실이 목수건으로 눈을 활활 털며 뒤따라 들어  
섰다. 그는 손에 든 보통이를 귀련의 앞에 내놓으  
며 생글생글 웃었다.

《이게 뭘지 아니?》

귀련은 때없이 인상이 밝은 그의 얼굴을 쳐다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닭꿈이야.》

《닭곰?...》

《응, 글썄 대철동무가 문식동무에게 자기의 착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동무들과 힘을 합쳐 성공》

시켰으면 하더래. 지금껏 집단과 동무들을 외면하고 살아온 제 잘못이 크다고 속심의 말을 했가지 않니. 참 놀라운 일이지?》

귀련은 웃었다. 찬바람 부는 그날 저녁 공원에서 리대철을 만난 후 요즘 몰라보게 달라지는 그의 모습을 그는 순간순간 기쁘게 감수하고있었다.

《그러면서 글썄 그 동무가 내가 언젠가 너와 함께 닭곰단지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자기가 한 행동은 돌이켜볼수록 부끄럽다고 사죄하더라질 않니. 그래서 문식동문 그의 손을 꼭 잡아 흔들면서 말했대. <이젠 닭곰을 가져가면 내쫓지 않겠지?> 하고...사실 지난 기간 난 그 동물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했어...그런데 그 동문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수 있을까?...다 너때문인것 같애.》

성심은 썰쭉 웃었다.

《애두 참...》

《그러니 가만 있을수 있니. 난 문식동무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지난밤 밤새 꿈을 했구나. 이걸 네가 대철동무의 호실에 가져다주렴.》

《성실아, 고맙다.》

귀련은 인차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평평 쏟아지는 함박눈이 철쭉꽃나무에 내려앉는 모양이 이채롭다.

《성실아, 그 동문 설날때 부모님들앞에 사죄하고 이젠 집에서 출근한단다.》

《그래?》

성실은 탄성을 올렸다.

《그처럼 거칠던 동무가 어쩌면...듣자니 그 자기의 창안을 성공시켜보겠다고 작업장에 늘 붙어있다는데 문식동무한테 이걸 주면 어떨가?》

《그게 좋겠구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들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직장통계원처녀가 살며시 문을 열며 직장장이 귀련을 찾는다고 일렀다.

(무슨 일때문일까?...)

귀련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직장장은 뒤집을 지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를 반겨 맞아주었다.

《귀련동무, 여기 와서 좀 앉소.》

그는 벽가의 긴 걸상을 가리켰다.

《나는 요즘 귀련동무를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오. ...동무가 우리 직장에 와서부터 그처럼 거칠던 대철동무가 달라져가고 직장의 분위기도 웃음과 랑만이 넘치니 말ियो. 직장장인 나도 애썼지만 못해낸 일을 동무가 해냈단 말ियो. 솔직히 말해보오. 직장장인 나에게 어떤 부족점이 있는지...》

귀련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제 저녁 대철동무의 부모들이 날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길래 난 그들에게 정식 인사

를 할려면 우리 직장 제대군인처녀에게 하라고 말해주었소.》

《직장장동지, 전 정말 특별히 한것이 없습니다.》 귀련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저 군대에서 한것처럼 동무들을 대해주고 생활했을뿐입니다. 전 군대에서 동지는 진심으로 믿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배웠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동지관입니다. 전 군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직장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귀련은 평소에 하고싶었던 말을 그에게 터놓았다.

《직장장동지, 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사람들을 대해주었으면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처럼? ... 할말이 있으면 다 하오.》

《전 군사복무를 철령이 바라보이는 구분대에서 하였습니다. 철쭉꽃이 붉게 핀 철령을 바라볼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그 험한 철령을 자주 넘으시는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최전연 병사들에 대한 사랑,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것을 뜨겁게 절감 하였습니다. 오늘의 선군시대도 바로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의 길이 수천수만리로 이어져서 펼쳐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대장동진 그런 정신을 전사들의 가슴에 심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자신은 바로 저와 우리 중대 전사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전 군사복무때나 지금이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관을 받들고 기꺼이 한몸 서슴없이 바친 중대장처럼 살리라는 한가지 생각뿐입니다.》

귀련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직장장도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았다. 귀련은 직장장에게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직장장동지, 대철동무의 착상을 공장기술과에 정식 상정시켜주십시오. 그것을 외면할것이 아니라 적극 떠밀어주는것이 그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동무에게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심이 생깁니다.》

귀련은 대철이가 이미 필요한 소재도 준비하고 상당한 정도로 일을 추진시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직장장은 말없이 귀련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음날 하루일을 마친 귀련이 기중기에서 내려오는데 직장사무실에서 나오던 직장장이 그를 손저어 불렀다.

《귀련동무, 대철이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구. 이제 당장 그의 창의고안안을 토의하는 협의회를 하니 빨리 와서 참가하라구. 동무도 함께 참가하오. 공장기사장이랑 직접 참가하겠대요.》

귀련의 눈굽은 불시에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직장장동지!》

《고맙긴. 응당한거지. 자, 어서.》

직장장은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귀련은 나는듯이

리대철이 있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리문식이며 여러 동무들에게 무엇인가 진지한 설명을 하다가 귀련의 이야기를 들은 대철은 별안간 벌컥 성을 냈다.

《동무가 그걸 제기했소?》

《아니, 그건 동무의 노력의 결과예요.》

《귀련동무의 말이 옳소.》

리문식이 한마디하자 대철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귀련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처녀의 손에 이끌려 협의회가 열릴 직장사무실로 달려가는 대철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 X

긴장한 전투의 한 분기가 흘러간 따뜻한 봄날 리대철의 창의고안의 성공으로 분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조립직장은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렸다. 꽃목걸이를 목에 건 리대철을 목마해 태운 조립공청년들이 작업현장을 몇바퀴 돌더니 이어 그를 하늘공중으로 영차영차 들어올렸다.

《이거 림선녀가 왜 날아내리지 않나?》

누군가 소리치자 흥겨운 웃음이 터졌다.

《림선녀동무, 어디있소-》

《귀련동무-》

사람들이 저마다 귀련을 찾았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흥성은 조립공들의 뒤켠에 서있던 직장장이 뭔가 생각되는바가 있는지 직장 앞마당으로 나왔다. 처녀는 활짝 핀 철쭉꽃나무앞에 서있었다. 림귀련은 가까이 다가온 직장장을 보자 얼굴에 함뿔 웃음을 담았다.

《직장장동지, 철쭉꽃이 참 아름답지요?》

《철령의 철쭉꽃이 오늘은 우리 직장에 피었구만... 귀련동무가 안고온 철쭉꽃을 우리 직장뿐 아니라 온 공장에 피우자구.》

《온 공장에요?》

귀련은 기쁨에 넘쳐 웨쳤다. 이때 작업장 철문이 열리며 리대철을 목마태운 청년들이 밖으로 쏟아나왔다. 그들은 활짝 핀 철쭉꽃나무가운데에 서있는 처녀를 보자 환성을 올렸다. 붉게 피어난 꽃나무사이에 그들 청춘남녀를 나란히 세우려는 듯 홍이 나서 달려온다. 왁작 웃으며 다가오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처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흘렀다.

사람도 웃고 꽃도 웃는 뜻깊은 봄날이다.

# 가을날

## 리영일

가을날

들에 나서니

수령님 오셨던 포전에

이삭은 탐스럽구나

물결쳐 설레이누나

이른봄 그날

여기 이 포전에 계시었지

찬바람부는 논둑에서

랭상모판수로에 손도 잠그어보시고

갓 돋은 어린 모의 상태도 살펴보시고...

비뿌리던 그날에

다시 이 논벌을 찾으시었지

질적한 두렁사이를 오가시며

벼포기의 아지수도 세여보시고

이삭패는 시기도 가늠해보시고...

한평생 그렇게

이 땅의 풍요한 가을을 다 가꿔주시고

그 가을날엔 저멀리

북방의 험한 령길을 넘으시던 수령님

가을날이면

우리 고향 사람들은

수령님께서 고향벌에 꼭 오시여

탐스런 오탁백과 그 달디단 향기속에

하루라도 편히 쉬여주셨으면...

벌마다 포전마다

이삭은 끝없이 물결쳤고

수령님 자욱을 따라서는

내 고향의 잠못드는 마음들이

밤깊도록 동구밖 들길에 나와서군 했구나

지금도 가을날

하늘은 높고 푸르고

한껏 무르익은 벌을 둘러보니

들에 새겨진 수령님 한평생이 어려와

뜨거웁에 목이 메이는 이 가을날

아 두팔 벌려 가슴에 소중히 끌어안고

한없는 그리움에 불을 비비는 가을날아

온 나라가 총동원, 총집중으로

주체농법 꽃피워 안아온 올해의 이 가을날도

수령님 그 손길에 받들려온것 아니더냐

해마다 이 땅의 가을날은 영원히

수령님의 그 손길에서 찾아오리라

쌀로써 장군님을 받들고 선군을 빛내이며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내 조국의 가을날이며

들판에 어려오는 수령님 영생의 그 모습이며



# 법에 대한 생각

전승일

내 태어나  
40여년 살아왔건만  
법이라는 말을 두고  
깊이깊이 언제 한번  
가슴두드려본적 있었는가

공기처럼 물처럼  
누리는 권리가  
너무나도 옹당한 내것이어서  
목숨같은 소중한 다 모르고  
세 자식의 아버지로 내 살아왔구나

강토는 있었어도  
그것을 지키는 법이 없어  
겨레가 눈물로 살던 세월  
법이여 너를 피타게 찾았어도  
망국노의 땅에는 인민의 참된 법이 없었구나

조상대대 매만저온  
사흘같이 옥답에  
날강도의 패말이 박히여질 때  
황소울음 터치던 할아버지의 통곡을 들어줄 법이  
그 세월엔 없었다.

시퍼런 대낮에  
새각시 할머니의 정조가  
오랑캐들의 노리개로 찢기워질 때  
삼천리 하늘이 울고 땅이 울었어도  
그 세월엔 그것을 지켜줄 법이 없었다.

있었다면  
아 다만 있었다면  
노예가 되라는 법  
버리지처럼 죽으라는 법  
빼앗기고 뜯기우라는 강도의 법뿐이었거니

백두의 설한풍속에  
우리 수령님 헤쳐가신 피어린 력사가 없었더라면  
풀뿌리를 씹어삼키면서도  
침략자의 목줄을 기어이 끊어버린  
그 수십성상의 날과 달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이 땅에는 나를 지켜주는 법이 없었으리

산발마다 광야마다  
무수히 찍어가신 그 피의 발자취가  
위대한 법전의 구절구절이 되었구나  
목숨걸고 울려가신 그 혈전의 총성들이  
내 부르는 삶의 노래가 되고  
이 세상에 울리는 인민의 존엄높은 목소리가  
되었구나

오 법이여  
위대한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시는  
내 조국의 법이여  
공기처럼 빛처럼 누리는 법의 권리를  
깊이깊이 다시한번 가슴에 안아본다  
빼져리게 그 소중한을 새기여본다

# 한치의 땅

김은숙

차마 무심히는 밟을수 없어  
이 마음속에 뜨겁게 안아보는  
아 1211고지 한줌 흙

너는  
포연이 불타던 추억의 옛 싸움터만이던가  
우리의 평화로운 하늘가에  
침략의 불구름 몰아치던 준엄한 나날  
조국의 운명을 안고  
우리 장군님 오르신 오늘날의 격전장  
세월의 눈비에 고삭은 탄피들을 밟으시는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이 한치한치는 그저 흙이 아니였다.  
불뽕은 화점 향해 달려나간  
리수복영웅의 열다섯발자욱이였고  
화선의 고지에서 수령님께 다지던

영웅들의 피젖은 맹세의 구절구절이었다

그 땅을 위해  
최고사령관의 족잡을 싣고 달리던  
눈물겨운 철령의 그 밤들이 있지 않았던가  
그 땅을 위해  
적의 총구가 마주선 최전방지휘소에  
최고사령관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지지 않았던가  
내 여기서 안아보는 조국의 땅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철의 신념이 우뚝쳐간  
의지의 한치  
이 나라 천만군민  
조국수호의 공격전에 세워주는  
애국의 한치였구나

선군승리의 역사를 안고

1211고지가 솟아있는  
이 땅은 철벽의 성새  
천하대적도 발아래 굽어보는  
천출명장이 지키여선 이 땅은

어제도 오늘도  
원췌의 아성이 무너지는 영원한 함정골

◇시초◇

아 위대한 수호자의 자욱이 새겨져  
이 가슴에 뜨거운 땅  
조국의 무계가 천근만근으로 실려오는  
1211고지 성스러운 땅이여  
우리 장군님 추켜드신 붉은기와도 같은  
내 조국 강토여!

##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습들

변홍영

### 먼 이역의 벗들에게

만나자 첫 통성에 구면지긴듯  
뜻과정이 통하던 총련의 시인들  
지면으로 이미 친숙했던 사이였거니  
우리 얼마나 기쁘게 상봉했더냐

대동강 푸른 물이 시원히 안겨드는  
평양려관의 서늘러운 창가에서  
내 만난 이역의 벗들  
조국방문의 나날을 함께 보낸 그 모습들이  
오늘도 눈에 선하다

상봉은 짧았고  
작별은 10년세월을 넘겼건만  
내 어이하여 마음속 따듯한 말을 고르며  
이처럼 노래를 엮는것인가

대동강 해돋이 노을에서도  
련광정 추녀우에 휘늘어진 버들에서도  
어머니조국의 향취에 젖던  
벗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조국에서 보낸 그 나날에  
그대들이 남기고 간 《조국방문시초》  
시행마다 넘치는 애국의 넋이  
이 가슴에 오늘도 불을 지핀다

애국열에 끓는 그 마음처럼  
꾸밈없고 소박하나 피가 뛰는 시편들  
그것은 그대로 조국에 바치는  
열렬한 사랑의 분출이 아니더냐

평양려관의 탁상을 마주하고  
그대들이 밤새워 쓴 시를 론하던  
못 잊을 그날들이 눈에 밝힌다  
그대들의 정다운 그 목소리  
내 마음에 다시 울린다

지금도 그날처럼 그대들이 억세게 걸어갈  
애국의 그 한길에 이 시를 부치노니  
이국의 찬바람에도 지지 않을  
그대들 엮는 조국찬가의 아름다운 꽃다발에  
내 망울진 꽃 한송이 더하고싶구나

아아, 이역땅 먼 곳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에 사는 벗들이여  
그대들과 헤어져 세월은 멀리 흘러도  
내 마음에 더욱 가까이 찾아오는 모습들이여

### 래양을 그리는 마음

만수대언덕을 오르며  
너무도 위대한분을 잃은 슬픔에  
북받치는 오열을 견잡을길 없었다던  
그대들의 갈린 목소리  
오늘도 내 곁에 울리는것만 같다

그대들이 조국에 온것은  
민족의 대국상을 치른 그 이듬해  
가실길 없는 설음을 삼키며  
나와 마주앉은 한 녀류시인은 자주

눈가에 조용히 손수건을 가져갔다

설맞이 공연무대우에서  
재일조선인학생소년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며  
수령님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그날이 어제만 같다고  
목이 메여 더 말을 잊지 못하던 시인

동해의 창과넘어 안고온 그리움  
만수대층계에 점점이 펴준 그 눈물이  
그가 쓴 시편에 그대로 젖어있어  
나의 눈시울에도 뜨거운것이 맺혔다

한없이 친근한 아버이를 그리는  
총련시인들의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적셨다

조국을 잃었던 가슴에 조국이 되어주시고  
해빛이 그림던 가슴에 태양이 되어주신  
그리고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위대하신분  
오로지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산 그대들  
절통한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조국의 하늘에  
무궁토록 빛나는 태양을 보았노라고  
눈물속에 진정을 터놓던 그 목소리  
이 가슴에 이 땅우에 가득차있구나

아, 눈도 많이 내린 설날 아침  
텔레비죤화면에서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며  
그대들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모습을 가슴깊이 새겼나니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미래에도 격류하는  
거창한 대하속에 합친  
그대들의 녀, 그대들의 신념은  
그 어떤 광풍에도 꺾이지 않으리라  
그처럼 굳세고 즐기차리라

## 붉게 피는 산진달래

찬바람 찬서리를 다 이겨내고  
봄도 이른봄에 산에 피는 산진달래  
이역땅 거처된 산기슭에서  
너류시인이여 그대 정을 담아 노래한 꽃입니다

그래선지 그대를 생각할 때면  
내 자주 정겨운 그 모습을  
따뜻한 추억속에 떠올립니다.  
연연한 그 꽃잎에 봄을 대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모진 세파를  
산진달래처럼 맞서 이기며  
애국의 교단을 지켜선 그대 한생이  
목메일듯 짙은 그 향기에 실려옵니다.

그대가 익혀준 우리의 말과 글로  
후대들의 목소리는 더 랑랑히 울리고

그대가 지은 시가의 향취로  
민족의 정서는 더 향기롭게 넘쳐나리니

봄을 먼저 알리는 산진달래를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곱습니다.  
오사까의 흐릿한 하늘아래서도  
조국의 봄을 노래한 그 진정이 아름답습니다.

이국의 그 모든 색다른 풍토에도  
연분홍 그 한빛을 잃지 않은 꽃  
그처럼 애국의 길에 생의 향기를 풍기는  
그대가 바로 봄의 산진달래입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길을 걷던 날에도  
태양만을 우러러 핀 산진달래  
나는 바랍니다 그대 세월의 끝까지  
지지 않는 한떨기 애국의 꽃으로 만발하기를!

## 신념의 메아리

조국에 와서  
장군님께 드리는 첫시를 쓴것이  
그리고 기쁘고 행복에 겨워  
그의 얼굴은 환희에 밝게 빛났네

밤 새운 피로도 잊고  
못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시인  
조국의 운명과 안녕을 지켜  
장군님 가고가실 먼 전선길을 그려보는가

열어젖힌 창너머  
정과 눈물이 가득 내비친  
그윽한 눈길을 들어  
그는 오래도록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았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온 겨레의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장군님 헤쳐가실 험난한 천만리길  
그 자욱자욱에 그가 정히 놓은 축원의 꽃송이엔  
그지없이 깨끗한 진심이 향기를 풍겼네

아,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러  
그가 지은 태양송가  
그것이 어찌 조국에서  
몇날몇밤을 열정의 불꽃으로 태운  
다만 한편의 소박한 시라고만 하라

그것은 만리 이역에서도 조국을 그리며  
절세의 위인에게 매혹된  
한생에 꺼지지 않을 심장의 불

장군님 따르는 민족의 넋을  
후대들 가슴에 길이 심어줄  
그대의 영원한 수업종소리

그것은 날마다 더해가는  
일본반동들의 살풍속에서도 더 높이 휘날려갈

람홍색공화국기발의 펄럭임이었네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의 전사가 부르며 갈  
신념의 노래  
참된 삶의 메아리였네

## 충심으로부러

내 잠을 깨어 새벽창가에 설 때도  
반짝이는 한밤의 별무리를 바라볼 때도  
먼 이역에 있는 그대들의 모습을  
류다른 정을 안고 자주 그려본다

총련의 시인들이여  
인생에는 그 누구에게나  
조국앞에 자기의 량심을 검증받는  
그런 엄숙한 순간이 있더라

불뿔는 화점을 가슴으로 덮은  
그 영웅은 열여덟 애젊은 꽃나이로  
철창가에 수십년 지조를 지킨  
통일의 애국투사들은 그 숭엄한 백발로  
고귀한 량심을 후세에 남겼나니

그들과 무엇이 다르랴  
그대들은 하루하루를 적구에서  
그런 준엄한 순간에 살고있어라  
공화국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  
그처럼 애국에 투철한 그대들  
그 모습은 사회주의조국의 해빛안고 빛나는  
새별과도 같다

그렇더라 일본반동들의 갖은 모략과  
파렴치한 탄압을 맞받아가는 그대들  
총련지부의 창문들이 깨어져나가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때  
그 누구보다 의분에 끓는 가슴을 헤쳐  
정의와 항거의 붓대를  
창검인양 추켜든 그대들이 아니냐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치는  
이국땅 이국의 거리에서도  
그대들의 마음은 맑고 청청하다  
대동강반의 불타는 봉화로  
소백수의 청신한 정기로  
넋을 정화하고  
량심을 가다듬는 동지들이여

나는 무심히 보지 않는다  
그대들이 쓴 한편의 시 하나의 글줄도  
거기엔 순간순간을 투쟁속에 사는  
혁명가의 결사의 맹세가 번뜩이고  
모진 역경에도 굽힐줄 모르는  
고고한 민족의 기상이 비껴있나니

그대들은 오늘도 우리와 한 전호에 있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천만고난을 이겨낸 조국땅우에  
찬란히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려명을  
감회깊은 눈길로 우리와 함께 바라본다

오, 반아달라 내 충심으로부러  
그대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노니  
나의 이 소박한 시편들에  
젊은 날의 다감한 열정과  
생신한 향기가 모자란다고  
탓하지 말아다오.  
가슴속에 넘치는 정을 다 담을길 없는  
황혼기의 이 무딘 붓이 한스럽구나

## 다시 만나자 벗들이여

상봉의 그 나날에  
우리 서로 다 나누지 못한 정이런가  
조국 떠나 만리 이역에서  
그대들이 보내온 편지  
다심한 인정미와 진심어린 글발들은  
오늘도 내 마음에 생생히 살아오누나

작별의 그날은 멀리 갔거니  
그대들이 헤쳐온 이국의 눈바람은

얼마나 차거웠으랴  
하지만 조국을 순간도 잊지 않은  
그 진정이 뜨겁구나

인생의 황혼기를 눈앞에 둔  
그대들 귀밑머리에도 흰서리가 늘었으리  
허나 상봉의 그날처럼 내 마음속엔  
젊음에 넘친 그 모습만이 웃고있어라

도교와 오사까, 고베와 후쿠오카  
떠나간 고장은 서로 달라도  
총련의 한 지붕아래 어깨를 걸은  
그대들의 장한 모습이 보이누나

나는 믿노라  
인생길 천만리에 그대들 세운  
삶과 투쟁의 목표는 애국  
높은 지성과 량심으로  
그대들 스스로 택한 진리의 길  
그 인생향로를 결코 바꾸지 않을것을

나는 믿노라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한평생 이야기하는 선군장정의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가는 그대들  
조국애로 끓는 피는 언제나 식지 않을것을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해도  
굳세게 싸워다오  
새 세기 태양이 빛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그대들의 머리우에도 창창히 열려있으리니

오, 다시 만나자 벗들이여  
통일강국을 삼천리에 일떠세우기 위하여  
애국의 뜻과 정에 사는 우리에겐  
영원한 작별이란 없으랴  
투쟁의 한길에 다시 만날 우리의 상봉은  
얼마나 가슴벅찬 환희에 넘칠것이나!

## 평론

# 축복받은 경연무대와 더불어 영원할 사랑의 서사시적화폭

##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를 읽고-

리윤근

선군문화의 화원을 보다 이채롭게 하여준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한정실 작)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작품은 사람들에게 미처 모르고 받아안는 그 은덕의 고마움을 제때에 깨우쳐주며 비록 알고 받아안는 사랑이라 하여도 그 뜨거움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선군조국의 품속에서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더 많다. 비록 안다고 하여도 그 사랑의 진가를 다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이다.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가 독자들로부터 웅당한 주목을 끌게 되는것은 바로 우리들이 미처 알수 없었던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에 기울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고 숭고한것인가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 1. 위인의 위대한 사랑의 철학세계에 대한 격조높은 노래

행복에 젖고 감격에 울며 환희로 설레이게 하는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

서사시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에 기울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혁명의 수뇌부와 군인가족들사이의 혈연적관계를 가슴뜨겁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아직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를 무한한 걱정속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태어났고 것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질수 있었는가를 미처 모르고있었다.

그렇다면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온 세상을 들뜨다놓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오늘의 절정에까지 올라설수 있었는가.

우리 혁명의 년대기우에서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해마다 진행되어 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

서사시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뜻밖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대국상의 피눈물이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아프게 저미고 우리의 사회주의보루를 겨냥하여 제국주의떼거리들이 피를 물고 날뛰던 바로 그 준엄한 나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무거워진 병사들의 마음, 그늘진 군관안해들의 심중을 무엇으로 불러일으키시였던가.

그것은 혁명의 노래였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이제부터 인민군대에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도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경연을 한다면  
군관안해들도 좋아할것이며  
군인들도 좋아하고  
생활도 더 흥겨워질것입니다.  
...

시에도 있는바와 같이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는 이렇게 발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래경연이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병사들과 군관안해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으며 총대와 함께 노래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력사의 진리를 새겨안으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산물이었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는 비옥한 토양과 태양의 빛과 열을 떠나 결코 기대할수 없다.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라만 이렇게 태어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를 위해 베푸신 은정, 다심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어찌 전설이라 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서사시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첫 공연을 보아주시고 《이 땅우에 또 하나의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무대가 태어났다고》 그리도 기쁘시여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달리는 야전차안에서도 야전숙소의 깊은 밤에도》, 《조선의 총대에 녹이 쓸고 거기서 날라리바람이 일기를 꿈꾸고》 있는 원수들의 어리석은 책동이 집요할수록 더 높이 신심과 랑만에 넘쳐 우리는 군관안해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아들 딸 열, 스물이여도 그들모두를 장군님곁에 세우고싶다고, 아이들이게 줄 사랑알대신 남편들의 탄창에 총알만 가득 채워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그리도 배심있고 절절하게 심장을 터치는 군관안해들의 아름답고 굳센 모습을 그려보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아껴주고 위해주고싶으신 장군님》 이시기에 온갖 친아버이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것이다.

산원의 침대우에서 꿈결에도 그리운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 못들었다는 한 군인가족예술소조원을 위해 베푸신 사랑은 또 얼마나 감격적인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경연》이라고 지었다니 뜻이 깊다고 그를 축복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시어 천만사람들의 가슴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적 화폭이다.

하기에 시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고있는것이다.

...  
사람들이여  
내 묻노라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면  
무엇이 전설이더냐  
이것이 우리의 경연무대를 꽃피우는  
노래의 젖줄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노래의 젖줄기라더냐  
...

태양의 빛과 열도 그것이 아무리 밝고 따사롭다고 하여도 그늘진 곳이 있고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 그늘진 곳이 없고 날이 갈수록 더해만 지는 위대한 태양의 빛과 열, 그것은 바로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이고 은정이다.

하기에 예술공연전례에 없던 소개자의 《<큰절>이야기도》 꽃피웠고 무재봉의 사적강사가 받아안은 꿈같은 이야기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것 아니던가.

서사시는 이와 같이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에 기울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감명깊게 시화함으로써 보면 볼수록 눈물에 젖고 감격으로 벅차오르게 하고있다.

그렇다면 이 서사시가 단순히 위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만 머물고있는가. 아니다. 시인은 위인의 사랑을 력사적으로 열거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세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는 데 바치고있다.

문학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의 철학성은 철학적인 내용을 취급하였거나 반드시 철학적인 논리를 풀어야만 보장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 서사시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서사시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에 기울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소박하고 진실하게 담고있다. 그러면서도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무대가 받아안은 그 축복속에 깃든 위인사랑의 철학세계를 숭고한 높이로 끌어올린 바로 여기에 이 서사시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서사시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이제부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매해 한번씩 했으면 한다는 한 일군의 제의를 받으시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얼마나 절절하신가.

...  
내가 군인가족들의 공연을  
해마다 보아주는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군관안해들의 건전한 노래소리 높아져야  
남편들과 군인들의 마음이

필승의 광만과 전투적활력에 넘치고  
총대가 든든해지기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의 남편들인 군관들, 군인들에게  
광만을 주고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광만과  
활력, 그것은 결국 총대위력의 원천이다. 하기에  
군인가족예술포소조경연의 첫 무대에 사랑과 믿음  
의 축복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아홉해, 해마다 빠  
짐없이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우리 장군님이시  
였지만 해마다 계속해야한다고 《한번이라도 경연  
을 중단한다면 선군혁명의 힘찬 진군이 그만كم  
퍼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녕 군관안해들을 선군혁명동지로 믿  
으시고 그들과 함께 선군의 한길을 끝까지 걸으  
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이고 신념  
이었다. 그 의지, 그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더  
뜨겁고 확고해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  
고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을 같이하려는 전사들과  
군인가족들의 맹세는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다.

《제2선군나팔수》-군인가족예술포소조원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축복, 그것은 이 나라 천만군  
민의 심장들을 선군의 숨결로 더 높이 고동치게  
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용암처럼 끓게 하는 일심  
단결의 위대한 선언이며 적들의 그 어떤 핵몽둥  
이도 단대에 짓부시게 하는 백전백승의 노래포성  
이다.

여기에 바로 군인가족예술포소조경연무대가 받아  
안은 축복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어  
버이사랑의 숭고한 철학세계가 있는것이다.

## 2. 체험의 진실성과 시형상의 매력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진실성은 주  
관적인 욕망에 의해서 실현되는것도 아니며 사실  
그대로의 기록에 의하여 보장되는것은 더욱 아니  
다. 그것은 시대앞에 터치고싶은 작가적량심의 정  
수여야 하고 진지한 체험의 토로여야 한다.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가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는 측면의 다른 하나가 바로 여  
기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시인이 군인가족예술포  
소조경연무대를 발기하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  
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감수하고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시인은 누구보다 벅찬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  
어야 하고 격동된 현실과 함께 자기의 심장을 끓  
일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시인들은 누구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심리세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섬세하게 파고들어 그이의 위인적풍모  
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다면 서사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  
심리세계를 어떻게 섬세하게 형상하고있는가.

그것은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군관안해들의 모  
습을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  
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야전천막가에서 군용밥통에 밥을 짓느라 입김  
을 불던 그 얼굴》, 《흰논도 녹지 않은 부엌발으  
로 두엄을 지고 가던 그 어깨》, 《바늘따라 실이  
가듯이 이 초소에서 저 초소로, 이 산골에서 저  
산골로 이사집을 옮기고 또 옮기면서도 묵묵히  
총대를 받들어사는 선군시대의 미더운 녀인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여서 장군님의 안광엔 그리도  
사랑스럽게 안겨오고 바로 그들의 노래여서 그토  
록 향기롭고 청신하게 들려오는것 아닌가. 경애하  
는 장군님의 심중은 군인가족예술포소조원들, 군관  
안해들 모두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래일에 대한  
광만으로 충만되시였다.

보느바와 같이 시인은 꾸미지 않고있다. 다만  
화려한 극장무대에서 광만에 넘쳐 노래부르는 군  
인가족예술포소조원들의 어제날의 모습 그대로를  
그려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정심리세계를  
그려놓았을뿐이다.

이것은 시인이 위인의 숭고한 감정심리세계를  
얼마나 깊이있게 체험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  
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레중에 불과하다.

오래동안 집을 떠난 그들이여서 남편들에게 줄  
가정적부담을 놓고 마음쓸세라 근심하시는 경애  
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 주역을 맡았던 한 군  
관안해가 산원의 침대우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진  
행하는 공연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두고 잠 못드  
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친어버이의 진정을  
부어주시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는 독자들의 심  
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  
아안은 군인가족예술포소조원들의 체형세계에 자신  
을 함께 세우고 그들과 같이 뜨겁게 호흡하고있  
는 측면에서도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공연무대에 나선 소개자가 뜻밖에도  
무릎을 꿇고 큰절을 드렸을 때이다. 당황한 일군  
들이 무대로 달려와 소개자를 따져묻는다. 《전선  
길에 피로하신 장군님을 오래도록 서계시게 하였  
으니 이제 어디 뉘말인가》고.

...

다소곳이 고개숙인 소개자  
목메여 울먹이며 대답하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숨져가던...

내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연무대를 꽃피워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대해같은 그 은덕에  
어찌 가볍게 머리만 숙여

인사를 드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이로  
록 꿈같이 화려한 경연무대를 꽃피워주신 아버지  
장군님께 가볍게 머리만 숙여 인사드릴수 없는  
소개자, 그래서 공연전례에 없는 큰절을 올린 군  
관안해, 그것은 정녕 이땅에 사는 천만군민이 어  
버이장군님께 삼가 올리는 감사의 큰절이다.

하기에 천만군민의 대변자인 시인도 이렇게 절  
절하게 토로하고있는것이 아닌가.

...  
부모에게 드리는 큰절을  
그 누가 시켜서 한다더냐  
...  
백번천번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린들  
아버지장군님께 올리고싶은  
감사의 그 정을 어이 다 담으랴  
...

그렇다. 시인이 설사 소개자로 나섰다고 해도  
달리는 할수 없었을것이다. 소개자-군관안해의  
심정이자 시인의 심정이고 천만군민의 심정이다.

이것은 바로 인물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 그와 심장을 합치고 숨결을 함께 하고있  
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장군님 축복해주신 아기 《경  
연》이를 끌어안고 방울방울 더운눈물을 아기의  
두볼에 적시는 감동적인 화폭을 비롯하여 서사시  
에서는 참으로 하나의 세부, 하나의 시어에도 현  
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형상을 소박하게 하려  
는 시인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열정의 세계가 줄  
기차게 굽이치고있다.

시인은 녀성이다. 녀성이어서 시형상이 그토록  
섬세하고 매력적인것이 아니라 선군조국앞에, 군  
대와 인민앞에 자기의 의무를 자각한 시인의 열  
정과 피타는 탐구의 산물이라 하여야 할것이다.

서사시는 선군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진실하  
고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강성대국  
의 려명을 마중해가는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하  
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가을(외 1편)

김봉철

벌써 가을입니까  
새파란 애기모 들에 널 때 방금이더니  
어느새 허리춤엔 이삭이 감겨듭니다.  
무르익은 열매향기가  
온 가슴에 차넘칩니다.

가을입니다.  
산에 들에 향긋한 난알향기 흘러흐르고  
일터 어디서나  
흐뭇한 이 기쁨을 두고  
즐거워 웃습니다.

이 가을 논배미마다  
아낌없이 기울인 구슬땀이 있어  
내 량심우에 없힌 이삭은 무겁고  
사심없이 바친 노력으로 하여  
농민은 이 가을앞에서  
기쁨에 젖어 웃는것입니다.

두렁길이 다 메이게 휘늘어진 이삭은  
온 나라를  
이 땅, 이 벌로 불러준 우리 당의 고마움에  
깊이깊이 허리숙여  
감사의 절 드리는 모습이런듯

이 땅 이 강산에 흘러넘치는  
가을의 물결  
총동원의 노래높이  
온 나라가 들끓던 벌에  
이삭, 이삭의 바다 물결칩니다.

이삭이 설레는 소리  
풍요한 나락이 파도치는 소리가  
아 가을의 하늘가에  
노래처럼 노래처럼 울려퍼집니다.

진정 가을은  
온 한해 땀젖은 모습들이  
설레이는 나락속에 묻히여 웃는 모습  
그 아름다움이 노을처럼 비끼  
내 조국의 아름다운 계절  
황홀한 계절

이 땅우에 성실한 농민이  
한해토록 애써 가꾼 보람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어머니조국에 다함없는  
농민의 성실한 노력이  
이 강산 만물을 재부로 무르익힌  
계절입니다



## 농민

나라없던 그 시절  
화전뎌기 일구며  
땅없는 설움에 울며 살았다는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농쟁기는 아직도 없혀져있고

옛그제 학교를 졸업한  
앞집의 일 잘하는 처녀  
그 어린 가슴에도  
애국의 맘은 여물어  
사시절 밭에서 들에서 아글타글 애쓰네

봄,여름,가을,겨울  
오고가는 계절속에 묵묵히 바치는  
순박한 삶이 있고  
한해두해 이삭으로 번져지는 이 땅우에  
말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네

한마디 말을 해도  
그저 농사, 농사이야기  
들판에 가득  
알찬 로적가리 쌓아놓고도  
말없이 짓는 그 웃음뿐...

땅에 씨앗을 묻고  
땅에서 곡식을 가꾸며  
평생 땅과 함께 사는 사람  
땅우에 눈내리면 눈을 맞고  
곡식이 비를 맞으면  
함께 비를 맞는 사람들

항시 나라의 쌀독을 안고

애쓰는 농민이 아니라면  
내리는 눈과 비 다 맞으며 그렇게 일하라  
논배미 발머리를 트랙삼아  
사시절 그렇게 살수 있으랴

조국과 인민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우리의 장군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드려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기에  
참된 도리를 다해 지켜가거니

이 땅 그 어디나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무르익건만  
그 땅에 묻힌 농민의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애국의 진한 땀방울 없다면  
어이 바랄수 있으랴 알찬 열매를  
풍만한 온 나라의 기쁨을

늘 들에 살며 벌에 탄 모습이어도  
설레는 곡식의 바다에 선 모습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늘 곡식을 가꾸며 말이 없어도  
그 농민이 지어낸 들에서  
쏟아지는 난알을 보라  
농민의 땀과 노력이 무르익은 열매를

아 농민!  
년년이 조국의 손길우에 놓아드리는  
열매처럼 알찬 그 인생  
이삭처럼 가을처럼 아름다운 한생이여  
숨은 애국의 삶이여!

## 경구, 격언

애무로써 받아내지 못한것을 엄하게 군다고 받아내랴.

작품이 우수한것일수록 그 작품의 결함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시정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만일 저자가 자기의 문체를 가지고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작가가 될수 없을것이다. 만일 문체와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있다면 그는 작가로서 희망이 없지 않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술의 다른 측면에 대하여 논의할수 있다.

명예는 빼앗겨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잃을수 있다.

한가한 생활은 순결할수 없다.



리희남

1

XX 자동차수리공장 지배인 박종구는 며칠간 더 지내다 가라는 친구들의 만류를 마다하고 오늘 끝내 무산땅을 떠나왔다.

그는 열차에 몸을 싣자마자 양복킷을 바로잡고 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무산땅을 떠난 순간부터 줄곧 그런 자세로 앉아있었다.

종구는 한때 무산광산에서 대형차운전사로 일한바 있었다. 이번에 그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도와주기 위한 전국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의 협의 회때문에 15년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살며 일하던 옛고장을 찾았다.

15년! 세월은 거침없이 흐르고 무산땅은 몰라보게 달라졌건만 옛 추억은 고스란히 깃들어있었다.

종구는 그리웠던 친구들과 뜻깊은 상봉도 했고 그들의 진정한 환대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몇몇 친구 들에게선 잊을수 없는 충격을 받기도 했다.

세월이 많이드 흘렀으니 무슨 사연인들 없었으랴. 얼마전 그가 무산땅에 처음으로 도착하던 날이었다.

종구는 연합기업소의 지배인실로 찾아가 우선 자기가 왔다는것을 알리고는 가슴에 쌓인 회포를 나누다가 해질무렵에야 외래자합숙 접수구에 이르렀다.

접수실안엔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몸매가 작은 중년부인이 앉아있었다.

녀인은 청신하고 부드러워보이는 그 해말간 얼굴로 종구의 증명서를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종구의 그 불길불길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러면서도 그 눈에선 매우 반가운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은 그러한 불꽃이 반짝이고있었다.

종구도 역시 가벼운 충격을 받았다. 몹시도 낯익은 녀인이었던것이다.

그는 녀인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듯 눈을 쪼프렸다. 무엇인가 묻고있는것만 같은 그 동그스름한 얼굴 그리고 역시 동그스름하게 생긴 턱에 선명하게 찍혀진 그 한점의 기미가 유난히도 눈길을 끌고있었다.

무엇인가 녀인에 대한 잊었던 옛 추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나는것만 같았다.

《저...》

《회의때문에 오셨지요?》

《그렇소.》

녀인은 접수대장에 종구의 신분과 이름을 적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10호실이예요.》

《독방이요?》

《아니예요. 두사람씩 들게 된 방이예요.》

《혹시 독방은 없소? 난 잠버릇이 나빠워서... 걸사람들이 자지 못할 정도요.》

종구는 딱한 부탁을 해서 안됐다는듯 빙그레 웃었다.

《그럼 8호실로 가세요.》

녀인은 입가에 얹은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종구는 접수구에서 물러나 몇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러자 또 한번 두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그 순간 종구는 녀인에 대한 그 어렴풋한 기억이 명확한 표상으로 바뀌여짐을 느꼈다.

(옳구나! 정옥금이...)

하지만 종구는 하고싶은 말을 못한채 돌아서고 말았다. 외래자합숙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연방 접수구에 나타났기때문이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디디면서 길다란 복도를 천천히 지나 8호실안으로 들어섰다.

웃장과 원탁 그리고 두사람이 자도 넉넉할 정도로 큼직한 침대가 깨끗하게 정돈된채 놓여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약간 습했다.

종구는 손에 들었던 밤색출장용가방을 침대우에 놓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었다.

장미색노을을 뒤집어쓴 철산봉이 억년 드높지 않는 자연의 영원한 창조물처럼 거연하게 마주서있었다. 무진장한 쇠돌을 품고있는 거대한 메부리였다. 붉게 물든 저녁 안개가 사연많은 기폭처럼 철산봉의 허리를 휘감았다.

소소리높은 저 산정에서 끊임없이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쇠돌사래, 환희에 넘치는 얼굴마냥 가까이에서 번쩍거리는 선광장의 창문들, 소리쳐부르면 어디서나 옛 추억의 메아리가 울릴것만 같은 낮익은 고장이었던건만 오늘은 왜 이리도 새롭게 느껴지는것인가!

형용할수 없이 장엄하고 굳센가 하면 그지없이 신비롭고도 조화로운 모습이였다.

종구는 큰 숨을 들이켰다.

예나제나 변함없이 외래자합숙앞으로는 성천수

가 흐르고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흥취를 돈구려듯 성천수는 자기의 고유한 맑음을 한껏 자랑하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어쩐지 방금 접수구에서 보았던 정옥금의 해말간 얼굴을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종구는 정옥금의 그 동그스름한 얼굴과 역시 동그스름하게 생긴 턱에 선명하게 찍혀진 그 기미를 몰라 볼수가 없었다. 그 기미야말로 복김이라고 처녀시절의 정옥금을 몇번이고 놀려주곤 하던 종구였다.

정옥금은 종구가 이 고장에서 대형차운전사를 할 때 자기와 함께 같은 차를 몰며 쇠돌을 나르던 리경훈이라는 친구의 안해였다.

얼굴이 길쭉하고 눈이 유순하게 생긴 친구였다.

이때 손기척소리가 울렸다. 정옥금이 반가운 웃음을 띠우며 들어섰다. 나이가 든탓인지 정옥금은 한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세련미속엔 귀염성스럽던 처녀시절의 매력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종구아저씨!》

옥금의 입에선 상봉의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종구는 어제날처럼 자기를 친근하게 불러주는 옥금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격한 소리를 질렀다.

《정옥금동무!》

한순간 마음이 붕- 뜨는것만 같았다. 종구는 옥금의 표정에서도 그러한 심정을 느꼈다.

반가움들이 서로 꺼리낌없이 부딪쳤던 까닭인지 두사람의 행동거지는 퍼그나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갑작스레 나타날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역시 여기서 만날줄은 정말 몰랐소.》

《처음엔 절 알아보지 못하는것 같더군요. 전 첫 눈에 알아봤는데요...》

《글쎄 말이요.》

너무도 실례가 되는 일이어서 종구는 얼른 화제를 돌리었다.

《경훈동문 잘있소?》

《잘있어요. 산정에서 그냥 대형차를 몰고있어요.》 몇몇하면서도 궁지감에 넘친 어조였다.

동그스름한 얼굴엔 행복에 겨운 미소까지 어리었다.

그 서술에 한쪽볼에 찍혀진 검은 기미가 유난스레 드러났다.

(남편에 대한 궁지가 이만저만이 아니군.)

종구는 불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은 몇이요?》

《아들이 둘인데 막이는 군대에 나갔어요.》

하고는 무엇엔가 감동된 사람처럼 침을 꿀꺽 삼키었다. 할 말은 많으나 어느 고리부터 헤쳐야 할지 어쩔바를 모르는것만 같았다.

《어서 피곤부터 푸세요. 전 좀 바쁜 일이 제기돼서... 며칠 계시겠지요?》

《아마 그럴것 같소.》

《그럼 저의 집에 꼭 들려야 해요. 옛말도 할겸...》 하고는 또 한번 반가운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나가 버렸다.

(경훈이 여전히 대형차를 몬단 말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와 함께 지내던 옛 추억이 맑은 대기

속에 드러난 자연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리경훈은 한때 무산광산의 배구팀선수로 뽑혀 다닌 사람이였다. 하지만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평범한 선수였다. 그는 오직 타격수에게 공을 넘겨주는데만 성실했고 또 그것만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배구를 그렇게 할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라구... 공격도 할줄 알고 이름도 떨칠줄 알아야지...》

종구는 친구에게 빈번히 이런 충고를 주지 않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배구지도원은 무엇때문인지 경기가 벌여질때마다 경훈을 꼭꼭 불러내는것이였다.

어느해 광부절날이였다.

산정의 경기장에서 대형차배구팀과 굴착기배구팀간에 결승경기가 벌어졌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쬰이고 온 채굴장이 불판처럼 확확 달아오르고있었다.

공은 마지막 한점을 남겨놓고 벌써 열번도 더 넘게 공중에 떠서 이쪽저쪽으로 오고갔다.

요란한 함성과 초조한 고함소리... 한껏 달아오른 관중의 열도.

방금 혼란이 생기는가 하면 공은 또다시 수습되고...

경훈은 공을 살려내느라고 몇번 뺨기도 하고 덩굴기도 하면서 타격수에게 매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곤 했다. 경훈의 그 성실한 활약에 관중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에게 타격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결정적인 순간이였다.

《때리라! 경훈이-》

응원자들속에서는 조급한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종구는 가슴이 한줄만 해졌다. 타격할줄 전혀 모르는 경훈이 저 공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그런데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졌다.

관중의 응원에 고무되였던 까닭인지 경훈은 자신만만하게 힘껏 솟구치며 타격했다.

보기좋은 성공이였다. 대형차팀은 끝내 이겼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다른쪽에서는 실망의 감정이 무겁게 찾아들었다.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종구였다. 여태껏 타격수에게 공을 넘겨주는데만 습관되였던 경훈에게 그렇듯 놀라운 타격솜씨가 있는줄은 몰랐다.

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광산의 배구팀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바로 타격수에게 공을 실속있게 넘겨줄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는것이였다.

그래서 경훈이 높은 타격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스스로 공격선에서 물러나 넘겨주는 사람으로 되고말았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종구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차라리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바엔 배구를 그만두라구 그에게 어리석은 충고까지 주지 않았던가.

그는 경기장에서 나온 경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아주 멋지게 해치웠어, 경훈이!》

친우에 대한 찬사를 담은 이 격동적인 목소리엔 어리석은 충고를 준데 대한 사과의 뜻도 함께 깃들어있었다.

경훈은 멋적어하는듯 한 웃음만 지을뿐 말이

없었다.

이때 대형차사업소 처녀통계원인 정옥금이 쏘르르 달려오더니 경훈의 앞으로 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수고했어요. 어서 땀을 씻으세요.》

희디흰 손수건은 햇빛에 눈이 부시었고 처녀의 양볼에는 노을같은 홍조가 어리었다.

아마 처녀도 어지간히 흥분된 모양이었다.

경훈은 처녀가 내미는 손수건을 말없이 받아쥐고는 얼굴을 문질렀다. 백설같은 손수건은 삽시에 어지러워졌다.

《안됐소.》

경훈은 손수건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처녀는 발쑥 웃었다. 입술이 자연스럽게 벌러지며 하얀 이가 반짝 드러났다.

이것이 리경훈이와 정옥금의 남다른 관계를 목격한 첫 계기였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런 눈치를 전혀 몰랐다. 다만 팀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경훈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다는 열광적인 감정의 연장으로부터 생각했다.

어쨌든 그날의 경훈은 못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눈길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다.

《허, 그 친구 배구실력이 그러루한줄 알았겠는데 보기와는 달라.》

《놀라운데가 있어.》

《쇠돌나르기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종구는 언제나 자동차를 세차게 몰아대며 요란한 혁신과 영예를 떨치는데 습관되었다면 경훈은 단 한번도 혁신자명단에 올라본적이 없었다.

그의 쇠돌나르기실적은 어쨌든 종구나 다른 교대운전자들보다 꼭 떨어지는 것이었다.

《87호엔 종구와 같은 모범운전사가 있기에 사업소적으로 늘 첫손가락에 꼽힌단 말이요.》

목소리가 절절하고 얼굴이 쇠돌바위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긴 중대장은 종구앞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물론 종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어쨌든 혁신의 앞장에서 산다는 건 매우 보람찬 일이 아닌가.

그날도 종구는 쇠돌나르기에서 또 한번 최고기록을 떨치는 바람에 대형차를 미쳐 정비도 하지 못한채 다음 교대인 리경훈에게 넘겨주고말았다.

《경훈이, 미안해. 150프로를 하다나니 내 그만...》

《150프로, 대단하군! 높은 실적을 냈는데 내가 뭘 마다하겠나. 정비야 내가 하지 않으리.》

하고는 대형차의 여기저기를 잔잔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종구는 자신의 미흡한 점을 선선히 리해해주는 그가 무척 고맙게 생각되었다.

《차가 정상이야 자네도 마음놓고 지끈 밟아대라구. 차를 너무 어루만지다가는 몸살을 만나.》

종구는 대형차의 기관덮개를 열성스레 닫고있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물론 룡담이었다.

경훈이도 역시 히죽이 웃으며 룡담으로 응수했다.

《개와 고양이 어루만져줄수록 좋아한대. 대형차

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런 일은 결코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니 매일과 같이 계속되다싶이 했다. 그러니 자연 종구의 실적은 높아지고 경훈의 실적은 떨어질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혹을 샀다.

《종구와 같은 차를 몰면서도 왜 저렇게 뒤질까?》

정옥금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어느 여름날 석양이었다.

퇴근길에 오른 종구가 인차장을 향해 산정길을 천천히 걷고있었다. 오늘도 혁신을 떨쳤다는 자랑으로 하여 마음은 그지없이 흐뭇했다.

계단식으로 거밋거밋하게 드러난 쇠돌바위들이 성벽처럼 쪽쪽 늘어서서 노을빛에 번쩍거렸다.

온통 불덩이처럼 이글이글 타는듯 한 석양의 채굴장은 불수록 장쾌하고 아름다웠다.

《종구동지!》

등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으며 다급히 쫓아오는 발자국소리가 토닥토닥 들려왔다.

돌아다보니 정옥금이었다.

자기와 나란히 섰을 때 그는 몇번 숨을 할딱거리며 겨우 진정하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경훈동지가 왜 자꾸 뒤지는가요?》

그는 불그스레하게 물든 서쪽하늘을 바라보며 물었다.

종구는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을 얼핏 돌아다보았다.

노을빛을 담백 받은 그 귀염성스러운 얼굴에서 종구는 경훈에 대한 처녀의 그 어떤 절절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이 단순한 걱정과 안타까움이었다면 종구는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문득 배구경기장에서 경훈에게 내밀었던 그의 하얀 손수건이 생각났다. 그것이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님을 그 순간에야 리해되었다. 그렇다면 처녀의 마음속엔 언제나 경훈이를 위해 그 하얀 손수건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그 무엇이 준비되어있었던 말인가. 어느새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가을날의 열매처럼 무르익었던 말인가.

놀라운 일이었다.

《경훈이가 꽤 걱정되는 모양이지? 옥금인 그럭제도 인정많은 처녀였던가? 허허...》

《아이, 사람 놀리지 마세요. 전 룡담이 아니라 진담을 하고있어요.》

《그럼 나도 진담으로 대답해주지. 그는 대형차를 지나치게 아끼는것 같애. 물론 주인답고 성실하긴 하지만...》

종구는 그이상 더 말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 한마디면 친구를 《평가》하는데서 족하지 않겠는가.

처녀도 더 묻지 않았다. 입을 꼭 다물고 발자국 소리만 퐁박퐁박 울리며 걸었다.

다행스러운 침묵이었다.

석양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그라졌다.

다음날 종구가 교대를 끝마치고 역시 정비되지 못한 차를 리경훈에게 넘겨주었을 때였다.

《참 경훈인 엉큼한데가 있는데? ... 어느새 옥금을 나뻐나?》

《똥판지같이 그건 무슨 소린가?》

경훈이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그 유순한 눈을 껌벅거렸다.

《자네의 실적이 떨어진다고 퍼그나 걱정하는데?… 얼굴에 그늘까지 드리우면서…》

《그저 해보는 소리겠지. 내가 뒤자리에서 너무 어물거리니까…》

《어쨌든 자넨 행복한 사내야. 동정해주는 처녀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에도 경훈은 행복감에 잠기지 않았다.

오히려 땅바닥을 굽어보며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처녀를 위해서라도 대형차를 지나치게 아끼지 말구 부쩍 채라구 웬간한건 덮어두구… 생활이란 참빳처럼 간간하게 훑어선 한결음도 전진하지 못해. 어쩌면 웅덩이건 돌이건 모래건 덩불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밀어가는 물의 흐름과 같은거야.》

경훈은 대담대신 종구를 얼핏 돌아보고는 어느 때처럼 대형차를 간간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종구는 그러한 경훈이가 어쩐지 답답하게만 생각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경훈이처럼 산다면 생활은 얼마나 무미건조해질 것인가. 종구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들끓는 격류가 되고싶었다.

자동차를 간간히 살펴보던 경훈이 문득 허리를 펴고 종구를 돌아다보았다.

종구는 달라진 그의 얼굴표정에서 벌써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꼈다.

뜻밖의 반격이었던지라 종구는 첫 순간에 얼떨떨해진채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수습할수가 있었다.

《좋아. 자네가 이해한다기에 내 그런건데 앞으로는 내가 할건 하구 넘겨주지.》

종구는 이렇게 친구의 충고를 너그럽게 대하는 척 했으나 속으로는 여간 좋지 않았다. 불같은 세월인데 그까짓 청소같은게 뭐라구 이러쿵저러쿵 할게 있는가.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종구는 며칠간 달라진척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차정비보다는 한탕 더 뛰여 단 한순간이라도 혁신의 앞장을 양보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경훈은 어쩔수없이 종구에게 《공》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고말았다.

며칠후 교대가 바뀐 날이 왔다.

그날엔 종구가 경훈에게서 차를 넘겨받았는데 경훈은 아직 더 손질할데가 있다면서 종구더러 잠간 기다리라 하고는 수리칸으로 뛰어갔다.

이때 정옥금이 나타났다.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여느때의 귀염성스러운 모습대신에 팽팽한 표정이 어리여있었다.

《전 경훈동지의 실적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냈어요.》 하고는 입을 꼭 다물고 꾀꾀해진 눈길로 종구를 쏘아보았다.

종구는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이 샅시에 긴장하게 굳어지는것을 보았다. 바르르 떨고있는 그 입술에선 《어쨌면 그럴수 있어요?》 하는 뻔한 소리가 당장 튀어나올것만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다.

정옥금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것은 별로 어려운것은 아니다. 물론 경훈에게서 듣지는 않았을것이다.

경훈은 그런걸 절대로 말할 사람도 아니며 또 말할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옥금 자신이 차를 인계받은 후의 경훈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것이다. 그리고 날날이 깨달았을것이다.

종구는 어두운 구석이 드러났을 때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는 이상야릇한 불쾌감이 여름날의 안개처럼 서서히 피여오르고있었다.

만일 이 순간에 중대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종구는 이 따분한 순간을 어떻게 모면했을런지 모른다.

《어 종구동무, 뭘 꾸물거리. 빨리 현장에 나가야지. 쇠돌생산이 긴장한데…》

마치도 구원의 손길을 잡은 사람처럼 종구는 얼른 운전칸에 올라 조향간을 잡았다.

《옥금이, 내 후에 자세히 말해주지.》

하고는 현장을 향해 대형차를 쏜 물었다.

이때 수리칸에 갔던 경훈이 나타나더니 급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종구!》 하며 엎어질듯 자동차를 뒤따라 달려오는것이였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뒤를 돌아다보던 종구가 자동차를 뺀 세웠다.

《왜 그래?》

《분사구를 마저 손질해야 돼. 어쩐지 소음이 시원치 않아.》

경훈은 숨이 찬듯 몹시도 헐떡거리고있었다.

사실 그는 소리만 척 듣고도 자동차의 병집을 꼭꼭 짚어낼줄 아는 경탄할만 한 기능을 가지고있었다.

《걱정 말어. 그런것까지 살펴보다간 언제 쇠돌을 나르겠어.…» 하고는 그대로 가버리고말았다.

경훈은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의 결으로는 대형차들이 연방 지나갔다.

종구는 얼마쯤 달리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경훈은 굳어진 사람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어느새 그의 결으로 다가선 정옥금의 동그스름한 얼굴이 똑똑히 보인다. 그 모습들이 어찌나 가슴을 아프게 자극했던지 종구는 얼른 머리를 돌리고말았다.

이러무한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종구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모든것을 별로 가슴아프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혹시 자기의 몇몇치 못한 흔적들을 돌이켜보는걸 꺼렸기때문이였는가. 아니면 15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자기에게 너무도 두터운 망각의 덩치를 붙여놓았던 말인가.

종구의 머리속에는 도저히 종잡을수 없는 상념들이 떠올랐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만 같은 일종의 불안이 스며들기도 했고 매우 꺼림직한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했다.

## 2

종구가 무산역을 떠난지도 벌써 다섯시간이나 되어온다.

렬차는 무겁게 드리운 어둠을 헤가르며 내달리고있었다.

종구는 차창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는 또 역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굴곡이 없는 유순한 노래소리마냥 부드럽고도 단조로운 차바퀴소리, 무슨 사연을 그리도 안타깝게 차꾸만 되뇌이는지... 변함없는 그 음향은 아득히 먼곳에서 느리게 들려오는 말발굽소리와도 같았다. 혹시 피곤해진 승객들을 달래는 자장가소리나 아닌지.

사람들은 하나, 둘 잠들기 시작했다.

종구와 마주앉은 젊은 부부도 서로 꼭 기댄채 꿈나라에 가고말았다. 녀인은 행복에 겨운듯 아니면 그 어떤 애무를 바라는듯 남편의 어깨에 살풋이 머리를 얹었다.

어느 구석에선가 코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종구의 곁에 앉아있는 그 말없는 처녀만은 여전히 극성스럽게 책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미지의 세계를 파고드는듯 처녀의 눈은 총명해보이면서도 예리했다. 길다란 속눈썹은 이따금씩 파르르 떨고있었고 입술은 금방이라도 그 무슨 탄성을 지르려는듯 약간 열려져있었다.

종구는 부지중 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산땅에서 경훈이 만나던 일이 지그시 감아버린 땅막속에 뚜렷이 새겨진다.

그들은 쇠돌바위들이 거뭇거뭇하게 드러난 광산의 채굴장에서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해발 800메터나 되는 산정우에 펼쳐진 거대한 땅이었다. 여기저기 태양우에 떠있는 군합처럼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산악들이 두 친구의 발밑으로 내려다보였다.

그때 경훈은 대형차적재함 밑에서 완충기를 손질하다가 종구와 마주섰던 것이다.

그의 손은 기름투성이가 되었다. 그의 몸에서는 디젤유냄새가 확확 풍겼다.

길썸한 얼굴은 젊은 시절처럼 조용하면서도 평이해보였다. 유순하게 생긴 눈은 이 거치른 쇠돌산정에서 한생을 살아왔건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네 여전히 대형차로구만!...》

격렬한 인사말들이 오고간 뒤에 종구는 이렇게 말했다.

《어쨌잖나. 배운 재간이란 이 일밖에 없는데...》

경훈은 걸레로 손을 쓱쓱 문대면서 빙긋이 웃었다.

종구는 생각깊은 눈길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참, 어제 외래자합숙에서 자네 안해를 만났는데 늙지 않았더군. ... 큰아이는 군대에 나가있으면서?...》

《뭐 어느 가정에서나 다 있을수 있는 일이지.》

《자네 처는 산정에서 그냥 대형차를 몰고있는 자네에 대해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

《허허... 그저 해보는 소리겠지.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서 자야 하네? ... 지배인이긴 하지만 로동자의 집을 마다하지야 않겠지?...》

《물론이지... 난 지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찾아가겠네.》

《그렇다면 더욱 좋네. 우린 사실 그동안 자네 애걸 많이 했네. 사람이 한번 떠나가더니 영 소식이 없어졌다구 원망도 좀 했지...》

친우의 그 유순한 눈에는 진정으로 반가와하는 듯 한표정이 비끼었다.

종구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자네 정말... 그래 대형차를 타기가 힘들진 않나?》

《나이를 먹은탓인지 인젠 젊은 시절 같지는 않네. 내 인생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니 또 여기서 끝을 볼수밖에...》

《무슨 소릴... 난 오히려 자네를 보니 머리가 숙어지네. 대형차에 한생을 바친다는건 결코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네...》

종구는 진심으로 말했다.

친우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종구는 그가 몹시도 달라졌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있었던 것이다. 모색도 달라지지 않았고 젊은 시절의 추억도 그대로 남아있건만 어쩐지 품위가 있는 전혀 다른 친우를 보는것만 같았다. 결코 대형차에 한생을 바치고있다는 그 드물지 않는 지조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친우에게서 세월과 인생을 포괄하는 그 어떤 웅심깊은 공간을 느끼고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웬일인지 외래자합숙의 창문가에서 바라보던 철산봉의 장엄한 모습이 떠올랐다. 억년 드물지 않는 자연의 그 영원한 창조물, 땅속깊이까지 무진장한 쇠돌을 품고있는 그 거대한 메부리 그리고 장미색노을을 뒤집어쥔 소소리높은 그 산정의 신비경이 어쩐지 친우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수 없었던 모습이였다.

그토록 조용하고 평이하던 친우에게서 어찌하여 이처럼 새로운 모습이 느껴지는지 종구는 알수가 없었다.

《자네를 만나니 많은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만. 지난날엔 옳다구 생각되었것이 지금에 와선 후회되기도 하구... 어떤 일에 대해서는 량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구... 또 미처 알아볼수 없던것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구... 인생이란 아마 이런것인지도 모르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아볼수 있는...》

종구는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그의 머리속에 깃든것은 언제나 친우에 대한 야릇한 죄의식을 느끼곤 하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였다.

언젠가 대형차사업소에서 대형차의 실동틀을 높이기 위한 중대별 경쟁이 벌어졌을 때였다.

중대장은 중대전원을 휴계실에 모여놓고 이번 경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을 창조함으로써 온 사업소에 한번 장훈을 불러보자고 호소했다.

《당은 영웅적인 기상을 떨칠걸 바라오. 도처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소. ...인젠 때가 왔단 말이요. 우리 중대의 땅크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줄 때가...》

중대장은 대형차운전사들을 언제나 땅크병이라고 불렀다. 여하튼 그는 땅크병이란 말에 각별한 매력을 느끼고있었다.

《너도 들었지?》

종구는 휴계실에서 나오며 경훈에게 이렇게 물었다.

《한번 머리를 번쩍 쳐들어보라구. 자동차정비에 만

너무 마음쓰지 말구... 이런 때에야 정말 마력

을 내야지, 팡크병답게...》

경훈은 무엇때문인지 쓸쓸히 한숨만 짓고있었다. 종구는 그가 어쩐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천우가 반드시 분발하리라라는 기대만은 버릴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훈은 그 류다른 경쟁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말았다.

중대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대로 새로운 기준을 창조했는데 리경훈만이 겨우 105프로였던것이다.

중대는 결국 장훈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 경쟁총화모임이 벌어지자 목소리가 절절한 중대장은 경훈을 추궁하였다.

《동무때문에 중대꼴이 어떻게 됐는가 좀 보란 말이요. 동무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난 말도 하지 않겠소. 기능도 높지 차관리도 잘하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앞장설수 있는데도 안하니까 격분하단 말이요. 언젠가 배구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처럼 쇠돌나르기에서도 왜 그런 본색을 보이지 못하오?》하고는 입을 꼭 다물고 노기가 어린 눈길로 경훈을 바라보았다. 별안간 그의 입귀가 벌어진듯말듯 푸들푸들 떨다가 찾아들었다. 아마 더 가혹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애써 참고있는것만 같았다.

경훈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꼭 다문 입술은 거뿔게 죽어들고 잔등이 그 무엇에 짓눌려온듯 둥그렇게 휘어들었다.

종구는 가슴이 툭 터지는것만 같아 몸을 비틀었다.

물론 경훈이 자기가 다하지 못한 뒤처리를 하다나니 이런 욕을 당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웬간한건 덮어두고 달렸더라면 105프로보다 더 높은 실적이야 이룩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인간이 왜 매사에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는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겠는가. 장차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을 쓸 때는 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육금만은 이 사실을 다르게 보고있었다. 그는 경훈이 왜 105프로밖에 하지 못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중대총화에서 되게 얻어맞았다니 얼마나 분한 일인가.

그는 직관실로 뛰어가 《참다운 혁신자는 누구인가?》하는 제목을 단 속보장을 내밀면서 경훈이야말로 널리 소개할 사람이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직관원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리경훈을 소개한다는것이 어쩐지 미덥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전화로 중대장을 찾아 리경훈을 소개해도 일없겠는가고 물었다.

《여보, 정신이 있소?》

중대장의 고향소리에 정육금의 시도는 그만 끝장나고말았다.

종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을 우들우들 떨며 통제원을 찾아갔다.

《동문 도대체 어찌자는거요? 무엇때문에 그런 속보를 내붙이자고 했소?》

자기 책상에 마주앉아 장부책을 뒤적이고있던

통제원은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종구를 뻔히 쳐다보고있었다.

《그건 경훈동무에 대한 조롱이란 말이요!》

통제원은 종구의 얼굴에 눈길을 박은채 입술을 꼭 다물었다. 쇠돌을 다루는 사나이들속에서 부대끼는 타인인지 웬만한 욕에도 까딱하지 않는 매우 당돌한 처녀였다.

《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조롱하진 마요. 그럴수록...》

《전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가 량심적이였다는걸 자랑하고싶었을뿐이예요. 자동차야 마사지든 말든 실적을 올린 사람은 혁신자로 평가받고 뒤에서 남의 뒤처리를 착실히 해주며 일한 사람은 락오자로 비판받구... 이젠 모순이 아닌가요? 사실 종구동진 경훈동지때문에 늘 혁신의 앞장에 설수가 있었어요. 이번 경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왜 비판받고있는 그를 옹호해나서지 못했는가요? 아니, 참다운 혁신자는 바로 경훈동지라고 그 사람들앞에서 뿔뿔이 말하지 못했는가요?...》

《뭘요?》

종구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형용할수 없는 불쾌감이 마른 질단에 달린 불길처럼 확 피어올랐던것이다.

처녀의 눈이 별안간 말뚱말뚱해지며 이상한 광채를 내뿜고있었다. 그 조그마한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북받치는 모양이었다.

자기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린데 대한 항변인지 아니면 경훈의 량심을 열렬히 옹호하려는 의협심때문인지...

처녀가 너무도 심각해지는 바람에 종구는 그만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경훈에겐 105프로라는 별명이 붙어돌아가게 되었다.

《105프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엔 대체로 악의가 없는 감정들이 깃들어있었다.

그러나 경훈이를 야유적으로 대하는 경솔한 녀석도 있었다.

한번은 어느 한 장난군이 퇴근길에 올랐다가 리경훈의 등뒤에 대고 이런 시를 읊어댔다.

사람들이여

그를 굵프다고 나무라지 말라

옛날엔 굵픈 거부기도 토끼를 이겼거니

인생을 숨가빠 달려선 무엇하랴

굵프게 걸어도

105년은 문제없이 산다네

장난군은 알팍한 입술을 교묘하게 비죽거렸다.

그 녀석과 함께 걸던 종구는 마치도 자신이 모욕받은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났다. 경훈이 아무리 뒤지는 사람이라 해도 그에 대한 이러한 모욕만은 정말 참을수 없는것이였다.

앞서가던 리경훈이 별안간 회 돌아섰다.

너무도 돌발적인 일이라 장난군은 그만 입을 쩍 벌린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다시 한번 외워보요.》

리경훈이 다가서며 말했다. 종구와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시 외우란 말이요. 다시!... 다시!...》

리경훈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유순한 눈에서 시퍼런 불씨가 확확 튀기는듯 했다.

장난군은 껍 굴어졌다.

《앞으론 입건사를 잘하오.》 하고서는 발길을 돌려버렸는데 그찰나에 웬일인지 경훈은 그 유순한 눈길로 종구를 얼핏 바라보았다.

그의 구부정한 잔등이 한동안 종구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자기를 일벌하던 그 눈길이 차가운 화살처럼 가슴팍에 그대로 박혀있었다.

《종구도 그런 사람이었구만?》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필경 환멸과 혐오를 담은 눈길이었다.

왜 자기에게 그런 눈초리를 보냈을까?

자기를 혹시 장난군을 지지하는 그런 류의 인간으로 생각했기때문인가, 아니면 모욕당하는 그를 열렬히 옹호해나서지 못한 자기의 그 애매한 태도때문인가? 친구에게서 이러한 락인을 받는다는것은 좀 억울한 일이었다. 경훈에게 반드시 자기의 입장을 정확히 리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종구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부문당비서가 회의 때 리경훈의 일본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때문이었다.

《리경훈동무는 자신의 명예보다 87호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차관리를 언제나 주인답고 량심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설사 자기가 남보다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절대로 혹사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린 결코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합니다.》

종구는 얼굴이 화끈거려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비서의 말은 어쩐지 자기를 빗대고 하는 말처럼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기를 돌이켜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과연 자기가 옥금의 말처럼 경훈이를 두고 올라선 몇몇치 못한 인간이란 말인가?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엔 꺼림직하고 몇몇치 못한 그 무엇이 늘 가시처럼 걸려 내려가지 않고있었다. 그 가시가 때로는 가슴을 콧콧 찌러대는듯 한 예리한 아픔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몇해가 흘렀다.

중대장은 사업소의 기사장으로 승급되고 종구가 대신 중대를 맡게 되었다. 일정한 제한성은 있으나 그래도 일욕심이 많고 정열적인 사람이여서 중대를 얼마든지 이끌고나갈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었다.

종구는 중대를 인계받은 후부터 모든 차들이 만부하를 걸도록 세관게 다물아댔다. 그 덕에 일정한 기간은 그의 명성이 부쩍 올랐다.

《역시 종구가 달라.》

《중대의 전투적기상이 막 나래쳐...》

그러나 이러한 찬사가 영원한것으로 될수는 없었다.

중대의 차들을 마구 내몰다싶이 한 후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던것이다.

어느해 이른 봄날이었다.

대형차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중대안엔 몹시도 불안한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뛰는 차란 경훈의 차를 포함해서 단 몇대뿐이었다.

인젠 어차피 가슴답답한 그 무서운 침체기가 닥쳐올것만 같았다.

《보시오, 저마다 기록을 떨치겠다구 차들을 혹사시키더니 이꼴이 되지 않았소.》

부문당비서의 추궁이었다.

종구는 아무러한 말도 할수가 없었다.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졌던것이다. 하는수없이 경훈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수밖에 없었다.

《인젠 자네에게 달렸네.》

어느날 종구는 경훈이와 함께 퇴근인차에 나란히 앉아 채굴장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가동하는 차들이야. 몇대 안되지만 두몫씩만 해주면 중대가 목을 열수 있어. 좀 어렵긴한데 어찌겠나. 우리 처지가 궁해졌으니...》

경훈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수गत하고있었다.

《이게 뭐? 해두 종구 안해도 좋을 그런 일이 아니야. 또 내가 안하면 남이 하겠거니 생각해도 안되는게구... 그저 자기에게 모든 짐이 실려졌다느걸 명심해야 해. 중대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니까... 내 정말 자네에게 신신당부해.》

종구의 요구는 절절했지만 경훈의 입은 요새의 철문처럼 껍 닫긴채 열려지지 않았다.

종구는 어쩐지 일이 시원치 못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경훈은 정말 인간적인 명예를 죄다 상실하고야말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경훈은 고맙게도 종구의 요구대로 분발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애써 지켜오던 그 정상적인 생활의 궤도가 하나하나 드러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단 한번도 어기지 않았던 하루 30분간이라는 자동차의 정비시간도 10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급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몹시도 서두르며 남먼저 현장에 나갔고 또 제일 뒤늦게 현장에서 돌아오곤 했다.

그 유순한 눈에서는 노기와 같은 광채가 번득거렸고 길쭉한 얼굴에는 비상한 희생을 각오한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 근엄하고 단호한 표정이 어려여있었다.

쇠돌나르기실적은 부쩍 높아졌다.

바다밑에 갈았았던 잠수함이 바다우에 솟아난 것처럼 경훈은 드디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있었던것이다.

《경훈이, 정말 놀라운데?...》

도처에서 경훈에 대한 찬사가 울리고있었다.

대형차사업소의 정문에는 《87호 리경훈동무 매일 170% 견지!》라는 자랑스러운 속보가 커다랗게 나붙었다.

《경훈이,고맙다!》

어느날 종구는 경훈의 손을 껍 잡고 눈을 습벽거렸다.

경훈은 묵묵히 얼굴을 돌리고말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훈의 처인 정옥금이 몹시도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현장에 나타났다.

결혼후에 그는 통계원을 그만두고 광산탁아소



에 자리를 옮겼다.

종구는 일찍부터 리경훈에게 끌리던 정옥금이 끝내 그의 처로 된 내막은 물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다만 정옥금이 경훈의 량심적인 일숨씨를 속보판에 요란하게 내붙이자고 한 바로 그날 저녁에 경훈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만을 알고있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이렇게 맺어지는 때도 있는 모양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यो?》

현장에 나타난 경훈의 처를 보자 종구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 세대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귀염성스러운 녀인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는 듯 량미간을 찌프렸다.

그들은 대형차사업소의 넓다란 마당안에 서있었다.

여기저기에 각을 뜯기운 차들이 험상한 물골을 드러내채 서있었고 부르릉거리는 발동기소리가 사방에서 소란스럽게 울리고있었다.

《요즘 참 이상해졌어요. 집에 들어와 통 말이 없어졌어요... 우두커니 앉아 생각만 해요. 얼굴이 여위여지고 두눈은 자꾸만 꺼져들어가구... 무슨 일이 꼭 생긴것만 같아서...》

녀인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속깊은 불안을 애써 감추려는듯 눈을 살쾅이 내리깔았다.

말 못할 시름을 은근히 강조하는듯 동그스름하게 생긴 턱에 찍혀진 그 한점의 기미가 어느때보다 더욱 까맣게 살아난것만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녀인의 그 귀염성스러운 모습을 더욱 부각해주는듯싶었다.

종구는 실례라고 생각되면서도 허허 웃고말았다.

《마음을 놓소. 경훈동문 지금 아주 좋은 진통기를 겪고있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될거요. 자, 저절로 지 못하오? 저기 정문에 써붙인걸 말ियो.》

종구는 자랑스러운듯이 정문쪽을 가리켰다.

경훈의 성과를 찬양하는 한장의 속보-연한 푸른색바탕에 붉은색으로 휘갈겨쓴 170이라는 수자가 선명하게 안겨왔다.

《저것때문에 모든걸 바치고있소. 지금 온 사업소가 경탄하고있소!》

속보를 바라보는 녀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길다란 속눈썹이 뺨뺨이 쳐들리고 그밑으로 불안과 공포를 담은듯 한 광채가 고요히 서리고있었다. 마치도 가슴속에 갇혀있던 온갖 시름들이 일시에 그 눈에 넘쳐나는것만 같았다.

종구는 녀인의 표정이 리해되지 않았다.

경훈이 늘 뒤진다고 것처럼 걱정하던 그가 어찌하여 저 자랑찬 성과앞에서는 이토록 불안해하는것일까.

그달 생산총화에서 경훈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달엔 경훈동무가 중대의 명예를 구원해주었소!》

종구는 언젠가 전 중대장이 경훈이를 되게 욕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경훈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했소. 사업소에서는 경훈동무에게 크게 평가하기로 결정했소. 응당한 평가요!》

종구가 어찌나 열을 올렸던지 그의 목소리가 격격 막히며 불시에 쉬어버리는것만 같았다.

《이젠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구석쪽에 앉아있던 경훈이 불쑥 일어서며 말했다.

《그런 칭찬을 듣기가 어쩐지... 다시는 이런 놀음을 벌리지 말아주십시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일시에 잦아들고 서늘한 정적이 무겁게 드리웠다.

《이달엔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소문까지 났지만 래달엔 어찌겠는지 정말 근심됩니다. 순간의 명예때문에 대형차가 흑사당했던 말입니다. 전 엄청나게 계획을 미달하게 될겁니다. 이게 어디 됐습니까. 전...》

경훈은 짝 틀어진 주먹으로 한번 허공을 획 내리긋고는 자리에 앉았다. 결상이 빼거덕거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얼굴이 물감을 칠해놓은것처럼 벌겉게 살아났고 유순한 눈길의 우물증에 빠진 사람처럼 침침해졌다.

종구는 구부정하게 선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있었다. 그의 입술은 빙싷 벌려진채 굳어졌고 눈길은 그 무엇을 찾는듯 작업반실안의 여기저기를 헛되이 방황하고있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정황이었다.

친우에게서 이런 경중이 울릴줄은 정말 몰랐다.

경훈은 다시 자기의 생활방식을 찾았다.

물우에 잠깐 떠올랐던 《잠수함》은 다시 바다 밑으로 깊숙이 내려앉았다.

경훈은 흑사되었던 자기의 차를 말끔히 손질해놓고는 고장났던 중대안의 차들을 수리하는 작업에 앞장서서 다시 뛰게 했다.

이 덕에 중대는 허리를 펼수가 있었다.

종구는 큰 자극을 받았다. 중대를 맡은 자기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일본새는 이렇게 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쩐지 경훈을 찾아가 용서를 빌게는 되지않았다.

그러다가 인민경제대학에 추천받아갔다.

그는 경훈이와의 작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두사람 다 석연치 못한 감정을 가지고있었던만큼 아마도 인상깊은 작별을 하지 못한것 같았다.

헤어진 후에는 서로 소식조차 모르고있었다.

지나간 날의 추억은 무수한 생활의 갈피속에 차곡차곡 잠겨지고 뜻없는 망각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 3

부드럽고도 단조로운 차바퀴소리, 어둠을 헤가르는 장엄한 질주.

종구의 곁에 앉아있는 그 말없는 처녀는 여전히 책속에 자기의 님을 바치고있다.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언제나 좋고 아름다운것이다.

젊은 부부는 묶여가도 모를 지경으로 깊이 곪

아떨어졌다. 안해는 여전히 그 어떤 애무를 바라는듯 남편의 어깨에 살쫓이 머리를 얹고있었다.

아마 꿈결에도 서로 기대고싶은 모양이었다. 만일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순간의 저 잠자는 모습은 참으로 꾸밈없는 진실로 느껴질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세월의 흐름에 의하여 증명된다. 진실이란 결코 사람들의 눈앞에서 영영 숨겨진채 세월의 테박으로 밀려날수는 없다.

경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종구는 이번엔 자기의 옛 중대장이었던 대형차 사업소 기사장네 집도 찾아가보았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쇠돌바위처럼 울퉁불퉁한 그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음식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아 옛시절과 옛 친구들을 추억했다.

《경훈이 그 사람은 내가 보건대 좀 달라진것 같더구만.》

《좀 정도가 아니라 인젠 누구에게서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됐지.》

기사의 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자네가 떠나간 뒤였네. 우리가 몰던 차들을 전부 폐기해버리게 됐네. 십년간이란 수명을 다 살았으니 낡을대로 낡았지. 그런데 경훈의 차만은 그냥 새것대로 남아있질 않겠나. 놀라운 일이지.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네. 87호엔 리경훈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박종구와 같은 혁신자도 생겨나고 언제나 앞장에서 달릴수 있었다구...》

기사장은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마도 《87호엔 종구와 같은 열성분자가 있기에 사업소적으로 늘 첫 손가락에 꼽힌단 말이요.》 하던 자기의 말을 되새겨보는것 같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오늘엔 그 자신이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가.

종구는 눈길을 떨구고 방바닥을 멀거니 내려다 보고있었다. 거기에 자기의 뗏뗏치 못한 과거가 비껴있는것만 같았다.

문득 정옥금이 쏘아주던 말이 생각난다.

《사실 종구동진 경훈동지때문에 늘 혁신의 앞장에 설수가 있었어요. ... 그럼에도 비판받고있는 그를 왜 옹호해나서지 못했는가요? 아니 참다운 혁신자는 바로 경훈동지라구 왜 사람들앞에서 뗏뗏이 말하지 못했는가요?》

그때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마음속깊이에 물처럼 거침없이 찾아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종구는 검은 거울처럼 되여보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거리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고요가 깃들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푸근한 입김을 내뿜는 땅의 숨결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뿐이 아니였네. 사람은 어려운 때 알아본다구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그의 존재는 부쩍 두드러졌네. 남들은 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부속품이 떨어져 차를 세워버렸네. 그런데 경훈이만은 차를 계속 몰아대며 쇠돌을 날렸지. 평상시에 그랬던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그는 무슨 바람이 불든지간에 대형차를 변함없이 몰아가는것이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광산은 계속 전진할수 있었지.

그러다나니 고생을 많이 했네. 그런 고생이 그를 더욱 단련시켰지. 나무는 바람을 맞고 역세여진다고 하지 않았나. 그를 매사에 깊이 이해해주던 부문당비서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러한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나. 그는 애석하게도 5년전에 병으로 우리결을 떠났네. 장례식날 그의 묘지앞에 오래도록 머리를 수그리고있던 경훈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

종구로서는 처음 듣는 슬픈 소식이었다.

잠간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이란 정말 다양한 존재네. 주위가 떠들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훈이처럼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구... 어쨌든 그는 시작과 종말을 대형차로 굳건히 이어놓은 사람이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그날 기사장의 집에서 나온 종구는 오래도록 무산의 밤거리를 거닐었다.

불빛밝은 창문들이 지칠줄 모르는 밤의 눈동자처럼 생각되었다.

어디선가 우정의 노래를 구성지게 타는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결코 밤이 아닌 이밤에 옛친우는 얼마나 경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세월의 갈피속에 묻혔던 수많은 보석들이 이제야 정녕 눈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종구는 걷고 또 걸었다. 충격받은 가슴속의 말을 활활 내뿜으며 밤이 지새도록 걷고싶었다.

옛추억이 맑은 물속처럼 아득히 들여다보였다. 영예를 떨치던 혁신의 나날들이 먼곳의 등불처럼 가물거린다. 자기만이 시대를 따르는 들끓는 격류라고 자처하던 등불이었다. 그러나 그 등불을 가만히 들여다보느라면 거기엔 씻어내지 못할 그을음이 낀 흔적들이 그 어떤 음영처럼 비껴있는것 같다.

세월은 그것이 바로 진실과 량심을 외면한 허울임을 밝혀냈다. 오히려 명예를 외면하고 살아온 그 조용하고 평이한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변함없이 들끓는 거대한 격류였다.

달리던 차가 어느 한 중간역에서 멎었다.

차바퀴들을 두드려보는 검차공의 망치질소리가 정적속에 점을 찍듯이 푹푹 들려온다.

승객들을 위한 망치질소리건만 이 차칸에서 검차공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검차공의 망치질소리는 근기있게 계속된다. 아마 경훈이 한생 대형차를 몰듯이 검차공 역시 저런 일을 한생 하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평이하고 조용한 리경훈을 사랑한 정옥금과 같은 녀성이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꼭 정을 바치는 녀성이 있을것이다.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부드럽고도 단조로운 차바퀴소리, 어둠을 헤가르는 장엄한 질주.

인생은 앞으로 내달리며 삶의 흔적을 남긴다.

인생의 진정한 값은 세월이 지난 뒤에야 낱알이 증명된다.

만일 검차공의 그 수고가 아니었다라면 어찌 열차가 이처럼 마음놓고 달릴수 있겠는가.

그러자 외래자합숙에서 정옥금을 처음 만났을 때 의연히 대형차를 몰고있는 남편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 순간엔 대형차운전사로 한생을 보내고있는 자기 남편을 왜 그리도 궁지롭게 생각했는지 까닭을 몰랐다. 리경훈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야 정옥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경훈은 아직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한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지요.》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시내물소리처럼 그윽하고 정서가 짙은 다감한 목소리였다.

종구는 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웃음을 머금고있는 정옥금의 그 동그스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운광사업소에 차관리과장이라는 직제가 새로 나왔어요. 전 차관리에선 세대주를 따를 사람이 없으니 그이가 꼭 되는줄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어요.》

어느날 운광사업소 지배인이 세대주를 불렀어요. 전 일이 락착되는줄 알고 그날 저녁에 한상 차려놓고 세대주를 기다렸어요. 얼마간 지나자 세대주가 들어서더군요. 웃으면서... <어떻게 됐나요?> 전 일이 생각처럼 된줄 알고 성급히 물었어요. 세대주인 일이 제대로 됐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인젠 차관리과장이란 말이지요?> 전 기쁨을 금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대주가 차관리과장으로의 대학을 갓 졸업하구나 젊은 사람이 될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 그만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허물어져내리는것 같았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운광사업소 지배인이 차관리과를 맡아보는게 좋겠다고 말하는데두 세대주가 글썽 그 젊은 대학졸업생을 추천했다구 하질 않았어요. 자긴 인젠 늙었다구 인젠 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중임을 져야 한다구... 전 얼마나 섭섭하던지 글썽 무엇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다했지요.

<당신은 어쩌면...> 저는 자신의 심정을 숨길수가 없더군요. 그러자 그이는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절더러 제발 섭섭히 생각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질 않았어요. <일이야 제대로 된셈이지. 또 웅당 그렇게 돼야 하는거구...> 이러면서 그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그 유순한 눈을 깜빡거리며 웃더군요. 저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구 것처럼 원심을 쓰는 그이를 보자 전 그만 마음을 고쳐먹을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인데 일은 거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전 상우에 놓여있던 술병을 기울여 그이에게 한잔 부어드렸지요. 이걸 마시고 모든걸 다 잊으라고... 그랬더니 그이가 글썽 <여보!> 하고는 잔을 든채 절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이해한단 말이지. 처녀시절에도 날 이해하더니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는 눈을 습벅거리더군요. <고맙소. 내 비록 술을 많이 못하지만 오늘 저녁엔 이걸 다 마셔버리겠소.> 그리고는 후련하게 웃더군요. 혼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글썽 그날 저녁엔... 전 그만...》

정옥금은 말끝을 흐리었다.

종구는 눈을 습벅거리며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장미색노을을 뒤집어케 거대한 철산봉이 눈앞에 그려졌다. 장엄하고 굳세고 신비로운 조화를 보여주던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운명과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있는가!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채 수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결국 자기의 인생엔 진실과 량심을 외면한 수치스러운 공간이 생기고말았다.

여기에 종구의 고민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영원한 고민으로 뒤틀린지도 모른다. 피로운 추억은 언제나 가슴을 멎들게 하는 법이다.

마지막작별을 앞두고 두 친구는 역함에 마주 서있었다.

《날 용서해주게.》

종구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친우는 두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에야 종구는 경훈의 귀밑머리가 희어진 것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다. 결코 세월이 보태준 서글픈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여태 말없이 치르어온 그 수많은 노력에 대한 가장 높은 표창처럼 생각되었다.

《자네에게 진심으로 머리가 숙어지네.》

《무슨 말을...》

친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엇인가 땅을 적시는 봄물처럼 종구의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넘치는것 같았다. 그것은 친우에 대한 뜨겁고도 승엄한 감정이였다. ...

《여보세요.》

종구의 앞에 앉아있던 젊은 녀인이 별안간 잠꼬대를 한다.

꿈결에도 남편을 찾고있는 그 정다운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진실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책을 들여다보고있던 그 말없는 처녀가 눈물을 흘리고있다. 드디어 감동적인 장면에 접한 모양이였다.

부드럽고도 단조로운 차바퀴소리, 어둠을 헤가르는 장엄한 질주.

변함없이 고르로운 그 음향은 정녕 아득히 먼 곳에서 느리게 들려오는 말발굽소리란 말인가. 아니면 정녕 피곤해진 승객들을 달래는 자장가소리란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추억속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부단히 일깨워주는 속삭임소리였다.

머칠후였다.

공장에 돌아와 다시 사업에 달라붙은 종구는 어느날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대형차운전사 리경훈 동지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 소식을 들었다.

종구는 그때 지배인실 창가에 엄숙하게 서있었다.

리경훈동지!

인제는 온 나라가 아는 사람이다. 그 어떤 의미심장한 생각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사뭇쳤다. 자기가 그를 잊고있는 동안 그는 참된 인간으로 얼마나 날날이 증명되고 시위되었는가.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 배구경기에서 훌륭한 타격솜씨를 보여준것처럼 그는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였다.

## 그들은 11 명이 아니었다

박현철

잊을수 없구나  
억수로 퍼붓던 그날의 굿은비  
비발속을 달리던 우리 선수들  
기어이 승리의 단상에 오른  
여자축구선수들, 그 11명

머나먼 이국으로  
출전의 길에 오르던 그 시작부터  
온 나라가 지켜보고있었다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그것은  
그대들의 명예와 수치만이 아니였거니

크지 않은 경기장을  
선군주조에 잇대어놓고  
한차례 또 한차례 ...  
결사의 각오로 승리를 향해 돌진해갈 때  
온 나라가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비물에 미끄러져 넘어질 때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덩굴었다  
통쾌한 득점으로 승리를 새길 때면  
그대들을 불안고 얼굴들을 맞부비며  
아, 온 나라가 함께 울고 웃었다

언제나 그 언제나 승리만을 펼치자  
마을과 거리마다 공장과 일터마다  
11명은 달리며 열풍을 일으켰나니  
하여 이 땅의 오곡은 더 무르익고  
쇠물빛노을은 더 붉게 타올랐다  
세계를 향하여 선군조선은  
또 한번 움썹 솟구쳐올랐다

정녕 11명 그들의 마음속엔  
장군님모습으로 빛나는 조국이 있었고  
조국에는 장한 딸 11명이 있었나니  
하여 출전의 길에 오를 때부터  
그대들은 11명만이 아니었다  
고난과 시련을 박차며 나가는 조선인민이었다  
아 위대한 선군조국이였다

## 그들은 평범한 처녀들이었다

김춘길

이 나라 어느 거리에서나  
쉽게 만날수 있던 낮익은 얼굴들  
우리 집 막내동생과 같이  
사랑만을 주고싶던 고운 얼굴들  
그들은 평범한 처녀들이었다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목에 매달려  
어리광을 피워도  
밋지 않을 나이이건만  
너희들은 연약한 두어깨로  
조국의 명예를 떠올렸구나  
로씨야의 하늘가에 우리 공화국기를

너희들이  
정녕 너희들이  
온 세상 온 행성을  
축구기적으로 들끓게 한  
그 축구 《신화》의 주인공들이란 말인가

너희들이 정말 그 힘으로  
지구를 떠올린것과 같은  
축구 《지진》을 일으켰단 말인가  
세계가 다시 조선을 알게 한  
열여덟 득점꼴의  
그 자랑스런 영웅들이란 말인가

전설속의 《신화》는  
세상에 없는 하느님이 만든다지만  
이 행성에 다시 없을 축구기적은

평범한 조선처녀 너희들이 만들었다  
선군의 기상으로 뛰고 달리며 창조하였다

그 옛날  
눈물과 한숨속에  
그네라고 세상밖을 바라보던  
이 나라 녀인들의 후손들인 너희들을  
하늘높이 내세워주신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너희들 가슴에 움트던 남다른 꿈을  
장군님 헤아려 키워주셨구나  
이름없던 너희들을  
세계축구강자로 키워주셨구나  
정녕 장군님 떠나 생각할수 없을  
내 조국의 장한 영웅처녀들

어제까지도 너희들을  
우리 집 막내같이, 귀여운 딸같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 여겼더니  
오늘은  
빛나는 조국의 높은 언덕에서  
나를 이끌어주고있구나

어머니조국이  
안겨주는 모든 행복과 영예로 하여  
처녀들이 너희들은 평범하지 않은  
선군조선의 장한 딸이다  
아버지장군님의 딸이다

## 공에 담겨진 존엄의 무게

김정남

퇴근시간이 지난 뒤라 궤도전차는 그리 붐비지 않았다.

파아란 전등불빛으로 별천지를 이룬 거리 한복판을 가로질러 내달리던 전차가 몇자 몇명 안되는 손님들이 차에 올랐다.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오른 열살남짓한 총각애가 내앞의 빈자리에 와 앉았다.

그 애의 가슴에 안겨져있는 커다란 축구공이 나의 눈을 끌었다. 티 한점 없이 깨끗한 은백색의 축구공이 전차의 형광등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광택을 뽐냈다. 새로 산 모양이었다.

주위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그 축구공에 쏠렸다. 정겨운 눈빛들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몇달전에 진행한 제3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이후 축구공은 전례없이 만사람과 친숙해졌던것이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사나이가 축구공을 두드려보던 손가락으로 그 애의 볼을 툇기고나서 말을 걸었다.

《너 축구소조에 다니는게로구나.》

보조개를 패우며 생긋이 웃던 소년이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아니예요. 난 이제부터 배우려고 해요.》

소년은 가슴에 껴안았던 공을 앞으로 내밀었다.

《축구를 잘해서 영웅이 되라고 우리 어머니가 사주었어요.》

결에 선 그 애 어머니의 얼굴에 어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흔이 될가말가한 녀인이었다.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로 쏠리자 녀인은 그냥 서있기가 거북한지 고개를 숙이고 동그스름히 짧게 깎은 아들의 머리를 손뚱질해주었다.

중년의 사나이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말을 건넸다.

《허, 축구란 그렇게 맘먹은대로 쉽게 되는게 아니야. 이 축구공은 네가 가지고놀던 장난감뽀와 다르거든. 너 정말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누나들처럼 영웅이 될수 있니?》

웃음이 남실거려던 소년의 얼굴도 제법 정색해졌다.

《난 알아요. 훈련도 경기도 누나들처럼 안하면 된다는걸.》

소년의 여무진 대답에 사나이는 웃음을 지으며 그애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차안의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웃었다. 나도 웃었다.

마음이 흐뭇해졌다.

몇달전 화면으로 본 제3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

수권대회 상황이 다시금 상기되었다.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서 받아안던 그 환희, 경기를 방영하는 전기간 장밤 잠 못들게 하던 그 흥분이 다시금 밀몰려왔다. 요즘은 노상 그 감정속에서 산다. 매일 매 시각 레사롭고 사소한 계기속에서도 그때의 그 격정이 되살아나곤하는것이 얼마나 즐거운것인가.

나는 조용히 축구공을 지켜보았다.

공,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어둡이 깃들던 9월 7일 그 저녁 열짜안고 축복해주고싶은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태운 뺨스가 연도환영자의 한사람인 나의 앞을 지나칠 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것이 너무도 아쉬워 멀어져가는 차의 뒤모습을 점도록 지켜보며 하나둘 그려보던 그 얼굴들이었다. 비내리는 이국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띄우며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애어린 처녀들의 그 모습,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웅메달과 더불어 나의 심장속에 새겨안던 모습들이었다.

누구나 그리하듯이 축구애호가인 나도 이미 공과 정들었었다. 내 생활의 한부분처럼 정든 공이여서 공은 항상 내 시야에서 사라질줄 몰랐고 늘상 보아오는 공이여서 나는 그 공을 무심히 대해왔다. 그 공이 전문가도 비전문가도 사랑하는 단순한 체육기체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녀으로 나의 생활에 날아든것은 이번 경기대회이후부터였다.

쏟아져내리는 비, 질적거리는 경기장바닥... 공은 힘겹게 굴러간다. 선수들도 지쳤다. 우리 선수들도 상대편선수들도...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결코 단념하지 않았다.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일어났다가는 다시 쓰러지고...

공과 함께 불사신같이 내달리는 우리 선수들을 막아낼 힘이 이 세상 그 어느 팀에 있단 말인가.

한꿀, 또 한꿀...

승리는 이룩되었다.

결승경기 5:0 압승이라는 축구력사의 신화가 창조되었다.

비에 젖고 땀에 젖고 눈물에 젖은 공을 부여안고 우리 선수들이 웃는다.

공은 배반하지 않았다! ...

그들에게 있어서 공은 단순히 체육기체가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그 공에 깃들었던가.

축구계에 첫발을 내디딘 10대의 애어린 그 시절 허리띠를 조이며 하나둘 품에 안아 금싸래기같이 키워준 조국의 눈물겨운 고마움이 그 공에 새겨있었고 축구로 그 고마움에 꼭 보답하라던

부모들의 절절한 당부가 그 공에 새겨있었다.

폭우 쏟아지는 경기장에서 그들이 안고 달린 공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가. 이역으로 소중히 품에 안고 간 조국의 한줌 흙의 넋이 그 공에 들어있었고 심장으로 지켜갈 선군조선의 영예와 존엄이 그 공에 장악되어있었다.

공은 승리를 안고 왔다.

그 공이 오늘 사람들을 부르고있다. 전례없이 《축구열기》, 《체육열기》가 높아지고 공이 튀어 오르는곳에서 19명 선군시대영웅들의 정신이 나래치고있다.

머칠전 어느 중학교 체육관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던 룡구훈련광경이 떠올랐다.

나어린 선수들의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었고 훈련속도가 떠지였다.

치열한 공방전의 혼잡속에서 한 선수가 앞으로 나뒹굴었다. 높은 훈련강도로 해서 지친데다가 무릎 어디엔가 다친 모양이었다. 선수는 헉헉 가쁜숨을 몰아쉬며 인차 자리에서 일어설념을 안했다.

이때 땀투성이가 된 감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힘을 내라! 힘을...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누나들이 지켜보고있다!》

감독의 피타는 웨침에 주저앉았던 선수가 다시 일어나 훈련장으로 뛰어들었다.

무척 인상깊은 광경이었다.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제3차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타오르는 정신이 어찌 체육부문에서만 나래치고있으랴.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던 연도환영에서, 결승경기를 방영하는 텔레비

존앞에서 환호를 터치며 울고웃던 집집마다에서 사람들모두가 다지던 맹세는 과연 그 무엇이던가.

운명을 건 경기는 체육인들만이 하지 않는다.

오직 생사만이 판가름되는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장에서 온 나라가 완강한 공격수가 되고 철저한 방어수가 되어 민족의 운명을 건 《경기》를 하고있다. 폭우가 쏟아지고 길은 험하다. ...

선군시대영웅들인 녀자축구선수들을 본받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정신, 그 배짱으로 전체 인민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무거운 축구공처럼 수천만이 추켜든 마치에, 낮에, 붓에 민족의 넋과 존엄이 만장악되어있다.

아. 조국과 민족을 빛내이는 그 길에서 위대한 선군시대는 또 얼마나 많은 시대의 영웅들을 낳을것인가!

나는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을 달래며 전차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소년과 손가락을 걸고 무엇인가 약속하는 저 사나이, 책에 쏟아붓던 눈길을 들고 말없이 공을 바라보는 저 대학생치녀. 빙그레 웃음짓는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

나는 확신한다.

공은 이미 우리의 심장속에 무겁게 자리잡았다.

맹세로 불타는 우리 가슴들에 강성대국의 려명은 밝아오고있다!

전차는 길게 경적을 울렸다. 경적소리는 교요가 깃드는 불빛찬란한 거리의 밤하늘로 울려퍼졌다.

멀리 ... 멀리 ...

## ◁평론▷

#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권의 창조와 소설문학의 새로운 전진(2)

## 리수립

우리 소설문학은 새 세기초 3년남짓한 기간에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60여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 새세기 선군문학의 전성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 뜻깊은 사변은 선군붓대를 틀어쥔 작가들의 혁명적창작기풍을 과시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선군문학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부각한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를 받아안고 선군혁명총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으며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은 자기들을 문학의 주인공으로 형상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

면서 소설을 대대손손 물려갈 더없이 귀중한 가보로 간직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장편소설권을 창조한 작가들의 공지와 기쁨은 참으로 크다.

이 자랑스러운 오늘을 놓고 우리는 그 창조의 위대한 시작점,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뜻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온 세계가 한두명도 아닌 60여명 비전향장기수의 존재를 알고 그 귀환이라는 력사에 없는 사실앞에 격동하고있던 시각 6. 15북남공동선언과 함께 이 감격적인 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통일애국투사모두를 원형으로 하여 장편소설을 써야 하며 그들이 걸어온 인생로정이 같지 않기에 능히 쓸수 있을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그것은 진정 놀라운 세계였다.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을 열싸고 감격에 겨워 울고웃기만 하던 시각에 벌써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소설문학의 가장 큰 형식인 장편소설의 서사적화폭우에 형상하여 방대한 규모의 작품권을 묶어냄으로써 온 세상에 자랑하고 력사에 길이 전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은정도 놀라왔거니와 실재한 통일애국투사들을 산 본보기로 천만군민에 대한 혁명적교양을 보다 높이, 더욱 폭넓게 추진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구상은 더더욱 놀라운 세계였다.

그때로부터 3년남짓한 세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웅대한 구상에 매혹된 작가들은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함으로써 마침내 대장편소설권을 창조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과는 마땅히 실무적으로만이 아니라 미학적으로 총화되고 파악되어야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될 수 있다.

우리는 보람찬던 3년남짓한 세월 자신들이 내디딘 전진의 자욱자욱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 신념과 의지의 강자의 형상과 전형창조의 새 세계

우리 소설문학이 창조한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의 전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강자의 전형적성격이며 그에 대한 전개된 장편적형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고 쉽지 않은 과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인간화로 되어야 한다.》**

주체적전군문학의 형상과제가 자주적인간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그려내는데 있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통일애국투사 주인공들이야말로 정녕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자주적인간의 참신한 본보기였다.

작가들이 마주한 이 인간세계는 참으로 놀랍고 류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문자그대로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원쑤도 굴복시키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강자였으며 자주적인 인간미의 높은 세계였다.

최악의 역경에서 끝까지 원쑤와 싸워 이겨낸 가장 역센 인간, 투철한 신념을 지닌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이들은 이상적인 인간세계를 탐구해온 작가들의 심장을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미개척의 문학세계였고 따라서 비상한 탐구와 창조를 요구하는 형상의 새로운 령역이었다.

유구한 인류문학사를 돌이켜보면 강자로 불리울 이상적인 인간을 그려내려는 지향과 탐구의 력사는 고대의 영웅서사시들에서 시작되어 여러 모로 이어져왔다.

가까운 군대와 현대의 문학만을 보아도 우선 인간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비현실적으로 과장

하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강자를 그렸던 랑만주의 문학들도 있다.

그것은 작가들이 인간강자의 영웅적성격, 사회와 대중을 위해 나선 강毅한 인간의 헌신의 밑바탕에서 오로지 도덕적인 선량성외에 다른것을 보지 못하였고 내세우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개척으로 문학사에 새로 등장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도 자기 사명으로부터 계급의 강자를 그려낼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하나 그것은 《환경지배설》의 후파로 하여 옳은 궤도를 탈수 없었다.

이것은 작가들이 강자로서의 인간형상창조의 근본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육체적힘을 과장하여 강자의 형상을 그리거나 도덕률리적인것에 중심을 두고 영웅적성격을 밝히거나 아니면 객관적조건과 환경의 가혹성, 비상성에 중점을 두고 강철같은 인간의 탄생을 보여주는 등의 각양한 창작경향과 형상방식들은 그모두가 지난 시기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기초를 두지 못한 미숙하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한편 지난 시기 우리 소설문학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따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사회주의사상의식을 심어주는 문학으로 발전하면서 준비된 혁명가, 사상의 강자들의 《모범적인 성격》 창조보다 사회주의사상의식으로 무장하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왔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회주의소설문학은 사상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온 사회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사상적무기로 발전하면서 주로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낮은 사상잔재를 뿌리 빼고 교양개조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인간형상에 창조의 노력을 집중하고 경험을 쌓아왔다.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장편소설권을 맡겨주시자 소설문단에서는 이 경험에 의거하여 인간강자의 모범적인 성격을 전개된 화폭에 본격적으로 형상하는 보람찬 창조의 새 마당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 길은 강자로서의 인간을 참답게 그리는 길, 그 모범적인 성격을 고상하고 진실하게 그리는 길이었다.

작가들은 창조의 열쇠를 주체적문제사상에서 찾았으며 주체사실주의는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강자의 인간세계를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의 힘으로 열어나가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이 강해질수 있는 근본조건은 그가 지닌 사상의 높이, 사상생활의 힘에 있다.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라고 할 때에도 그 본질은 사상의 강자라는 점에 귀결된다. 사상이 체질화되지 않은 곳에 신념이 있을수 없고 신념의 기초우에 서지 못한 의지란 한갓 생물유기체의 고집스러운 편성일뿐이다. 우리의 통일애국투사, 주인공들이 강자로 된 것은 그가 지닌 사상정신세계가 높고 그가 누린

사상정신생활이 높아져서였다.

사상의 높이, 사상생활의 높이야말로 무궁무진한 힘의 근원이요 원천이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숭고한 혁명적세계관, 인생관으로 확고히 무장하였으며 역경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고결한 사상정신생활을 통하여 백배로 역세어져 승리한 인간이 여기에 있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명실공히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의지하는 혁명적인생관을 다지고 또 다져나가면서 끝끝내 지옥같은 감방을 부시고 나온 강철같은 인간이 바로 이들이었다,

위대한 주체적문제사상, 주체사실주의는 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을 혁명적수령관, 주체의 세계관의 공고발전과정에 모를 박아 형상화함에 대하여 밝혀줌으로써 투사, 주인공의 강자로서의 근본을 형상으로 그려내고 전개할수 있는 창작의 지침을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라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거쳐서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이다. 혁명적세계관이 싹터고 하여도 그를 완성된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혁명을 해나가는 복잡한 과정에 일시적으로 주저앉거나 동요할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 투쟁을 벌려나가면서 더욱 튼튼히 단련되는것이다.》

주체의 사상리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의식발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실천투쟁속에서 계속 공고발전되는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크게는 두개의 과정, 다시말하여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과 공고발전과정으로 구획짓고 있다.

우리 소설가들이 비전향장기수형상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사상정신생활의 기본령역은 혁명적세계관의 형성확립과정을 넘어서 이후의 보다 높은 과정, 즉 확립된 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사상정신생활면에서 옥중투쟁, 비전향투쟁의 기본구획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누린 사상정신생활의 숭고한 높이, 그 높은 세계가 바로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인생관의 공고발전과정에 있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거의나 통일애국의 길에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섰던 사람들이지만 그밖의 다양한 수준과 경력의 출신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그 모든 투사,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생활의 기본령역은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넘어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그들모두가 다같이 옥중에서 투사-혁명가로 살며 싸운 사람들이고 그 투사적인 삶의 근저에 바로 공고발전과정이라는 특이한 사상정신생활이 놓이기때문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공고발전, 이것은 투사, 주인공들이 누린 사상정신생활인 동시에 그 생활의 과정적인 흐름이었다. 하기에 그것은 투사, 주

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형상적으로 밝히고 그의 기나긴 옥중생활을 성격발전과정으로 그려야 하는 대장편소설련의 형상과제해결에 근본열쇠를 주었다.

생활은 인간의 존재방식이며 인간은 자기의 생활로써 존재와 내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인간의 사상정신세계는 생활, 그중에서도 특히 사상정신생활에서 뚜렷이 드러나며 인간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높은 경지의 사상정신생활에 의하여 생동하게 감명깊이 밝혀진다. 장기수-주인공을 그리는 소설문학은 마땅히 고정불변한 비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변화발전하는 인간성격, 《성격의 력사》를 드러내야 할 형상의 요구를 안고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인공형상에서 장편소설형식의 특성과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와도 련관되었다.

소설문학의 가장 큰 형식인 장편소설은 단편적인 형식에서와는 달리 주인공성격의 여러 특징들을 폭있게 안고나가면서 인간을 성장발전의 력사적과정으로 그려주어야 하는 중심깊은 형식이다.

우리의 투사, 주인공에 대한 형상화는 마땅히 사상의 힘을 튼튼히 다져나가면서 더 높이 성장발전하는 성격의 력사에 대한 생동하고 심도깊은 추구로 실현되어야 하였으며 그것을 담보할수 있는 형상의 대를 가져야 하였다.

소설문학은 바로 이 모든 고리를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공고발전과정에 대한 형상화에서 하나로 틀어쥐게 되었다.

소설가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한층 높이 심화발전시키는 두 측면이 결합되고 통일된 사상정신생활에서 통일애국투사-주인공의 성격의 높이, 성격의 력사를 보았다.

그것은 우선 이미 형성된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혁명을 인식하고 각오를 다지던 잊을수 없는 생활과 체험을 되새기며 확인하는 의지적인 내적재생, 재음미과정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옥중에서의 단순한 회고나 추억을 넘어 자기의 혁명의식, 혁명의지를 생활과 투쟁의 진실로 좌표로 새롭게 되새겨보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자주적인간의 아름답고 영웅적인 정신활동, 투쟁활동의 세계이다.

투사, 주인공이 누리는 사상정신생활은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심화발전을 계기 짓고 떠밀어나가는것은 기본적으로 투사의 옥중투쟁생활의 체험이며 사색이다. 기나긴 옥살이기간에 무슨 일인들 없었을것이며 무슨 생각인들 하지 않았으랴.

하나 투사, 주인공은 비록 곡절은 있을망정 자신의 혁명관, 인생관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계단 높이 발전시켜나가는 자주적존재로 빛나고있다.

혁명의식의 공고화가 심화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심화발전이 공고화를 한층 더 튼튼히 담보하는 호상관계속에 숭고하고 영웅적인 주인공의 강자로서의 사상정신생활의 모습이 있고 흐름이 있으며 투사를 진정 힘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성격의 력사로서 보여주는 길이 있었다.

소설가들은 혁명가, 투사의 형상창조에서 혁명



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에 대한 해명이 심장과도 같이 핵심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신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에 관한 아버지 수령님의 교시를 다시금 새기면서 주인공-투사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는 보다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려세워 그리는데로 나갔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공고발전과정에 대한 생활적향상, 이것은 사상의 강자, 모범적성격의 전개된 형상으로 되어야 할 우리의 주인공창조에 기본과제로 되었다. 문제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세계관의 공고발전과정에 있는 생활이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을 가진것인가를 옳게 파악하고 탐구형상하는것이였다. 소설가들은 그것을 운명적인 생활, 수양하는 생활에서 찾아냈고 량자의 련관과 통일속에 생활을 성격으로, 성격발전으로 지향시켜 그려내는것으로 실현했다. 운명적으로 심도깊고 정신수양의 도가 높은 특징적인 생활들의 련쇄우에 사상의 강자로서의 투사, 주인공의 모습, 그 성격의 력사가 빛나고있었다.

생활의 탐구와 주인공형상에서 운명적인 깊이와 무게의 강화, 이것은 대장편소설권의 창조를 통하여 소설문학이 이룩한 새 면모의 하나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마음의 기둥으로 깊이 간직하는 투사, 주인공들의 운명적인 생활들을 탐구형상하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준다.

운명적인 깊이와 무게를 가지는 생활이란 투사, 주인공을 사상적지향과 정신력에서 오직 한몫, 운명적으로 조건지으며 한생을 달리 살수 없도록 지배하는 힘을 가진 감명깊은 생활이다.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제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을 밝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철학이다. 그것은 운명개척의 위대한 진리인것으로 하여 생활과 투쟁에 대한 운명적인 체험과 사색의 바탕 위에서 굳건히 체질화될수 있고 체질화된 형상으로 부각할수 있다.

소설가들은 통일애국의 성업에 한생을 깡그리 바쳐나선 투사-주인공에게 필연코 이러한 범상치 않은 생활의 체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탐구를 벌려 이 면에서 소중한 창조의 열매들을 거두었다.

장편소설 《내 땅》 《김대성 작》에는 소학교문전에도 못 가보고 나 어린 어께로 멍에를 끌어야 했던 주인공 전지동이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난생 처음 분여받았던 기름진 땅에서 흙 한줌을 싸넣은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입대하는 류다른 생활이 있다.

그 흙주머니는 무덤속같은 감방에 갇혀 악형을 치를 때에도 주인공의 품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녕 마음의 의지였고 기둥이었으며 강자를 키운 운명적인 흙이었다.

하기에 주인공은 옥중에서 혁명동지 김규오에게 말한다. 《그걸 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요.》

잊으면 짐승이 되고 잊지 않아야 사람이 되는것.

주인공은 끝끝내 그 흙주머니-놈들의 갖은 악행과 모략을 다 이기게 한 운명적인 《내 땅》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림재성 작)에도 그 첫머리에 운명적인 생활이 진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주인공 한제완의 투사로서의 한생을 방향짓고 떠밀어준 잊지 못할 하루낮, 하루밤이다. 38° 선을 넘어 북반부의 저수지공사장에서 체험한 창조적로동의 환희로운 하루낮, 다시 38° 선을 넘어가면서 겪은 피눈물의 악몽같은 하루밤...

그것은 너무나도 관이한 극적대조를 이루어 주인공에게 분렬의 고통과 통일의 갈망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주었다. 그날 새벽 애기어머니의 통곡소리와 함께 저주받을 군사분계선 말뚝을 끌어안고 터친 주인공의 피타는 절규야말로 통일애국의 길에 굴함과 좌절이 없을 한생의 방향타, 생의 좌표로 되었다.

우리의 주인공들에게는 이처럼 자주적인것과 노예적인것, 통일과 분렬의 강한 대조로써 특징적인 생활, 자주적 태양, 민족적 태양의 위대함에 대한 절감으로 특징적인 생활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주인공의 한생의 좌표, 인생관을 조건짓는 힘으로 되는 그토록 운명적인 생활이 있다. 그것은 수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감격적인 생활일수도 있고 수령이 마련해 준 은혜로운 삶을 체험하는 보통날의 생활일수도 있다.

하나 그 다양한 생활들이 주인공의 혁명적수령관, 인생관의 깊은 뿌리로 종착될수 있는 심도와 힘을 가진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다를바 없다. 여기에 운명적인 생활의 참된 의미가 있는것이다. 기나긴 인생행로에서 인간은 다양한 생활을 누리게 되며 규모가 큰 장편소설의 화폭에 한생이 담겨지는 경우 이러저러한 생활들이 풍부히 인입되 기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통일애국투사, 주인공에게는 그러한 여러 생활들을 출발시키고 한줄기로 꿰는 기초적이고 중추적인 생활, 운명적인 깊이와 무게를 가진 생활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형상구성에서 운명적인 생활에 력점을 찍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의리》(김덕철 작)에서 독자들은 운명적인 생활의 줄기찬 추구속에 이루어지는 혁명적수령관의 공고발전과정을 감명깊이 본다.

소설에서는 과일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전사한 유격대장의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련관속에 전개되면서 주인공과 아버지수령님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며 신념으로써만이 아니라 의리로까지 모든것을 다 하려는 억세고 아름다운 인간을 내세우고있다.

지나간 소년시절, 앓고있는 동생이 먹고싶어하던 사과 한알 먹이지 못해 애타던 피로운 추억을 가진 주인공, 유격대소에서 싸우던 시절 대장으로 부터 한 너인을 적구에서 자신의 곁으로 부르신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들 전해들은 주인공, 이러한 생활들의 전제는 그후 주인공 김철만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절감케 하는 새로운 생활들과 이어져 그의 세계관, 인생관을 더욱 공고히 하며 심화시킨다.

과일에 대한 남다른 소원을 지녔던 그는 마침내 온 나라를 과일숲으로 뒤덮어 우리 인민모두

에게 마음껏 과일을 먹이는것이 자신의 평생소원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댈까 감격과 더불어 받아안게 되었고 과수기술자로 자라나 수훈까지 받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행운을 지니게 된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주인공은 전사한 박동근대장의 가족을 찾지 못해 애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의리깊으신 세계를 높이 우러르게 되며 그이에 대한 흠모심을 신념으로만이 아니라 의리로까지 더욱 다져가게 된다.

작품형상의 주축을 이루는 이러한 생활의 흐름이야말로 운명적인 깊이와 폭을 가지고 투사-주인공으로 하여금 사상정신적인 높이에 오르게 하는 참으로 의의깊은 생활들이다.

사상의 강자로서의 투사-주인공들의 성격창조, 성격장성력사의 해명을 위하여 우리 소설문학이 탐구한 생활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상, 정신,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생활이라는 점에도 있다.

사상정신적으로, 도덕률리적으로 수양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생활이 없이는 주체의 수령관, 세계관을 견지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투사, 주인공을 진실한 형상에 담아낼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완성된 혁명가가 없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 는 도달할수 없는 끝없는 높이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도덕적수양에서 만족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요구와 겸허한 품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수양이란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률리적으로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자체의 내적투쟁, 내면적인 고심분투를 의미한다.

그 어떤 외적요인이나 작용도 내적인 투쟁-수양의 노력과 결합됨이 없이는 인간을 성장단련시킬수 없다. 수양은 특히 절해고도와도 같은 옥중에서 단신으로 원쑤의 철쇄에 묶이운 불리한 정황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운명적인 싸움을 벌려나가는 투사-주인공들의 형상에 필수적인 생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소설가들은 기나긴 수십년을 옥중투쟁의 마지막시각까지 수양과 단련을 멈추지 않은 요구성 높고 겸허한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하여 역경에 처했어도 오히려 사상의 강자로 높이 올라 비전향투쟁의 승리가 된 특이한 인간형상을 발견하였으며 그 창조를 위해 수양의 도가 높은 인간생활의 묘사에 탐구의 모를 박았다. 이 생활은 수양의 도가 비상이 높은 생활이어서 주인공에게 인간적인 허물을 주고 씻어내는 보통의 수양과정과는 구별되었다. 그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이미 확립하고 투쟁선상에 뛰여든 《모범적인 성격》이 누리는 생활이어서 자기의 상대적인 격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 **《옥에 리는 있어도 공산주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허물은 없다.》**는 소설가들로 하여금 투사 주인공들의 수양생활의 높은 세계를 볼수 있게 한 창조의 지침으로 되었다.

소설가들은 수양하는 생활의 탐구를 투사-주인

공에게 인간적인 허물을 억지로 만들이 덧붙이는 공정으로가 아니라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보다 높은 인격의 정신도덕생활에 생동한 굵이침을 주는 공정으로 파악해나갔다. 이 과정에 소설가들은 수양의 도가 높은 생활을 틀어쥐는 담보를 사상정신생활면에서 통일애국투사, 주인공들이 지닌 높은 요구성과 겸허한 품성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투사, 주인공에게 부여된 의욕적이며 허심한 내면생활은 성격의 비속화도 리상화도 다같이 극복하면서 사상의 강자를 진실하고 감동깊이 보여줄수 있었다.

장편소설 《자유》(김정 작)를 보자.

소설의 앞부분에서 독자들이 만나는 주인공 조세형은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오히려 한생 끝없이 이어질 막막한 감옥살이를 생각하며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일애국을 위한 투쟁에 한몫 바칠것을 각오하고 나섰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잡힌 몸이 되었다는 자책감, 아직도 멀고먼 인생길을 감방속에서 허무하게 마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막연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그의 가슴을 친다.

하지만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누리던 보람찬 나날을 돌이키면서 조국과 민족의 엄숙한 부름을 심장으로 들으며 마침내 자기를 찾는다.

격폐된 감옥을 투쟁의 마당으로 만들수 있다는 깨달음에 그는 흥분한다.

주인공의 이러한 내적투쟁, 내심의 승화속에 수양하는 생활이 있다.

그리하여 적들의 끈질긴 전향공작을 맞받아 반공의식으로 물젖은 각계각층 남조선사람들에게 공화국복반부에 대한 옳은 리해와 인식을 주는 사상공세로 나아간다. 그것은 민족자유의 길, 통일애국의 길이었다.

무죄같이 굳센 성격의 소유자, 오세형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비들은 있었다.

옥중의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아들에게 제손으로 지은 쌀밥 한끼라도 먹이겠다고 늙으신 어머니가 면회를 온것이다.

그 밤을 마다하여 어머니가 노여움과 비탄속에 방을 나설 때 《오세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소파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단 한 문장으로 처리된 이 묘사속에 주인공의 심각한 고뇌가 얼마나 처절하게 안겨오는가.

드디어 그는 정신적고투의 높은 언덕을 넘어선다. 자신을 다잡고 더욱 굳센 신념의 강자, 참인간으로 되는것이다.

수양의 도가 높은 생활의 굵이가 있어 소설은 강자의 모습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려낼수 있었다.

다른 소설의 레를 보자.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별의 세계》(정기중 작)의 5장 3절에는 주인공 김진서가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기 어려워 자결하느냐 아니면 옥중당세포회의 결정대로 끝까지 견디며 싸워이기는냐 하는 처절한 투쟁이 그려져있다.

간악한 적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억세게 나가던 김진서조차도 고문의 가혹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

로 자결의 길을 택한듯이 만듦으로써 그의 주변에 있는 옥중동지들의 기를 꺾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날친다. 드디어 김진서는 오수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히는 혹독한 고문과정에 순간이나마 자기를 잃고 감옥의 사누에게 자기목숨을 끊어줄것을 말하기에 이른다. 바로 그 시각 옥중동지들이 주인공을 탈환하고 소생시킨다. 그때 주인공은 진짜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는가,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고 묻는 동지들에게 빈사지경의 환각상태에서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 그건 사실이였노라고 순간이나마 나약했던것을 자책하며 고백하는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결정앞에 충실치 못했던 자신의 정신생활에 대한 참으로 겸허하고 눈물겨운 반성이였고 다시는 영원히 동지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살며 싸우겠노라는 억척같은 맹약이였다.

이 길지 않는 대목이 진실의 힘으로 독자들에게 육박해오는것은 여기에 수양의 도가 높은 겸허한 투사의 정신생활이 깔려있기때문이다.

투사, 주인공의 수양하는 생활은 묘사의 분량에서 길수도 짧을수도 있으며 대사나 내면심리의 직접적인 묘사로 될수도 외적인 행동묘사로 느껴질수도 있다.

정황의 특성과 주인공의 성격, 작가의 개성에 따라 수양하는 생활은 다양한 표현을 가질수 있어도 그모두가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률리적으로 자신을 다잡고 더 높이 오르려는 내적투쟁, 내면적인 고심분투를 인상깊이 안겨주게 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김삼복 작)도 주인공 김현석의 인생로정과 옥중투쟁에 운명적이면서 수양의 도가 높은 생활들을 탐구형상하고있다.

김현석에게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 내무원을 하면서 기업가 현주일을 편협하게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수령님으로부터 애국, 애족, 애민의 사랑철학과 민족대단결리념을 받아안던 잊지 못할 운명적인 날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숭고한 애족의 리념과 철학을 심어주시고도 력사적인 북남련석회의때에는 그에게 친히 김구의 안내까지 맡겨주시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품에서 민족사랑의 불타는 심장을 지니고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통일애국의 전사였다. 하기에 그에게는 바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미진함이 있을세라 마음을 쓰고 또 쓰며 수양하고 또 수양하는 정신도덕생활의 높은 세계가 있다.

현주일의 동생 현도일을 뜻밖에도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본의아니게 밀고자의 모습으로 안겨왔을 때에도 지난날 자책으로 모태기던 편협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량과 믿음을 기울여 안아주고 이끌어준다.

어찌 그뿐이라. 자기를 존경하는 나머지 류다른 감정까지 품게 된 리순영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위한 사랑과 안락은 티끌만치도 허용하지 않으려 애쓴다.

우리는 이처럼 수양의 도가 높은 정신생활의 일단을 감옥이송시 렬차에 실려가는 주인공, 이 감옥, 저감옥을 옮겨가며 수십년을 부대끼는 김현

석의 내면심리를 묘사한 개소에서 인상깊이 읽게된다.

그것은 소설의 제26절에 있다.

《…기차바퀴가 레루이음짙을 넘는 가락맞게 울리는 단조로운 소리,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들판과 산, 개울과 마을들… 장영순은 몸이 풀려나 저 산과 들속에 싸인곳, 고향으로 가고 김현석은 그것들을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징역살이를 계속하려고 손에 수갑을 차고 대구교도소로 끌려가는것이다. …

이제 몇십년을 더 계속해야 하나? … 현석이 문득 눈을 들어 옆에 앉은 동지를 보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나 볼을 따라 주르르 흐르는것이였다. 현석은 숨이 킁 막히는것 같았다.

이 동지도 방금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였는가? 그러면서 고향과 처자, 자유, 대지를 활보하고 맑은 공기를 깊이 호흡하는 삶을 그리워하는것일까? 강요하는 전향은 이겨내고있으나 가슴에 파고드는 생에 대한 애착, 자유에 대한 갈망에 목이 메였으리라.

현석은 동지의 눈물을 타하고싶지 않았다.

그 눈물이 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정신력의 분출일수 있었다. 눈물이 많다고 하여 약자인것은 아니나.

저 눈물은 강자의 아름다움일것이다.

선하고 순결한 인간이기에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악하고 추한 인간에게서는 피로운 눈물은 있어도 뜨거운 눈물은 없다.

동지여, 우리는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고있으며 자유는 엷매이고 육체는 쇠약해지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조와 절개에 긍지를 가지자. 눈물속에 힘을 키우자… 동지여, 머리를 들라.

개인의 희생으로 렬사가 전진하면 거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냐?

머리를 뿔뿔이 들고 투쟁을 계속하자, 삶을 이어가자! …》

얼마나 좋은 대목인가.

여기에는 감옥밖의 자유로운 생활을 끝없이 동경하며 사랑하는 김현석의 내면적인 계기를 타고 투사의 가슴속에 끓고있던 사랑철학이 흘러나오고있으며 그 강렬한 사랑을 통일애국의 한길에 깡그리 바쳐 헌신하려는 숭고한 지향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독자들이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 그려진 김진서의 수양하는 생활에서 투사의 겸허한 인간적면모를 느낀다면 여기서는 끊임없는 요구성으로 자신을 즐기치게 되어나가는 인간-투사를 인상깊이 본다.

호송렬차에 함께 탄 동지의 얼굴에 흐르는 두줄기 눈물에서 약자의 그것이 결코 아닌것,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없이 순간도 살수 없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진실한 눈물을 감각하면서 자신을 다잡고 더높이 올리려는 주인공의 내면생활에는 분명히 요구가 높아 수양의 도가 높은 인간심리의 고결한 굴이침이 있다.

운명적으로 심도깊고 수양의 도가 높은 생활들이 적극 탐구되고 묘사됨으로써 사상의 강자들은 더욱 아름답고 힘있게, 즐기게 그려진다.

운명적인 생활을 계기로 삼고 수양하는 생활이 끌어도 내고 수양하는 생활속에 운명적인 생활이 갈마들게도 하면서 량자를 서로 유착시키고 융합시켜 강자의 사상정신적높이를 생활적으로, 공고발전하는 성격으로 그려낸 창조의 경험은 자랑할만 한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사상론의 안목으로 강자를 보고 혁명적세계관의 공고발전과정으로 형상의 대를 세워나감으로써 이룩한 것이다.

우리의 대장편소설권은 투사-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고 우리 소설가들이 부각해낸 통일애국투사-주인공들의 형상, 그것은 오늘의 우리 시대와 혁명이 절실히 갈망하는 시대의 전형이며 민족의 강한 아들들의 개성적인 성격이다. 그것은 선군시대의 요구, 다시말하여 적들의 책동을 맞받아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을 치렬히 벌리고있는 준엄한 혁명의 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6. 15통일시대의 모든 요구를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참인간의 이상적인 형상세계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혁명적수령관을 제일생명으로 깊이 간직하고 붉은기수호정신과 통일애국의 열정으로 투철한 개성적형상인것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의 로동계급적성격과 민족적성격을 유기적인 통일속에 체현하고있는 새형의 시대적전형이다.

문예학이 밝혀주는대로 예술적전형의 범주를 시대와 계급의 본질특징과 민족특성을 통일적으로 구현한 개성적인 성격형상이라고 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투사, 주인공들의 형상이야말로 주체문학의 전형들의 계열에 새롭

## 일화

## 우리 말을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어학자

조선어연구에 한생을 바친 이름있는 어학자들 가운데는 주시경도 있다. 그는 1876년 황해북도 봉산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는 우리 말이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 우수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쓰이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한탄하며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아름답게 꽃피우는것이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주시경은 1900년에 배재학당을 졸업한 뒤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조선말강사를 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정부의 교육관계기관인 《학부》안에 《국문연구소》가 조직되었을 때 연구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가 이른바 《한일합병》을 감행한 이후에는 《조선어강습원》, 《국학연구원》을 조직하여 인민들속에 반일애국사상을 불어일으키며 조선말을 교육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그는 일제의 조선말 말살책동이 로골화되자 우

게 등장하여 류다른 빛을 뿌리고있는 전형중의 전형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소설문학이 대장편소설권에 그려낸 예술적전형들의 독자적인 지위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창조한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숭고한 인간상을 놓고 필자는 인류를 위해 싸운 인간강자, 영웅들의 형상을 높디높은 메부리-《거봉》에 비겨 칭송하였던 지난세기 어느 한 작가의 인상깊은 표현을 상기한다.

그는 숭고하고 영웅적인 인간전형들을 아아한 산악-《인간거봉》에 비겼고 인생의 황야에서 빈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해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 《거봉》의 절정에 오를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작가는 그 《인간거봉》의 숭엄한 절정이야말로 사람들이 청신한 대기를 마음껏 마실수 있는 순결한 곳이며 이 세상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말하였었다.

필자는 그 표현에 더하여 우리가 창조한 투사, 주인공들을 《인간거봉》들이 편이은 대산줄기로 칭송하고싶다. 그리고 이렇게 웨치고싶다.

사람들이여, 우리 시대의 《인간거봉》들이 장엄한 대산줄기를 이룬 아아한 산발들의 절정에 어서 오르시라.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서보다 그 순결하고 성스러운 련봉들의 절정에서 주체의 청신한 대기를 마음껏 마시게 될것이며 위대한 태양-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심장으로 우러르게 될것이다라고.

그렇다, 우리가 새 세기 벽두에 창조해낸 대장편소설권이야말로 주체의 소설문학이 자랑스럽게 떠올린 《인간거봉들의 대산줄기》라고 말할수 있다.

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국문운동을 널리 벌여왔다.

당시 애국문화운동의 한 고리로서 진행된 국문운동을 발기하고 이끈 주시경은 우리 말과 글을 잘쓰기 위한 실적인 연구와 노력도 많이 하였다. 근대언어학의 기초를 닦는데 이바지하는 《말》,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 여러편의 저서를 남기었다.

그는 자기의 저술들에서 한자를 적게 쓰고 될수록 우리 글자로 쓰려고 하였으며 혼란된 맞춤법을 정리하려는 의도밑에 서자규범도 연구하였고 우리 글자를 가로 풀어쓰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주시경이 얼마나 조선어연구에 전심하였던지 길을 가다가도 조선어와 관련한 상이 떠오르면 길가에 책보를 펴놓고 쓰곤 하여 《주보통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처럼 조선어발전을 위해 정력적인 연구활동을 벌리던 주시경은 주체 3(1914)년 젊은 나이에 뜻밖에 생을 마치었다.

주시경의 언어연구와 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근대적인 언어리론을 개척한것이며 국어연구와 국문운동을 여러 방법으로 폭넓게 확대하면서 활발히 조직전개한것이었다.

그가 남긴 공적은 단순히 학술적으로뿐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국어가 빛을 잃기 시작하던 시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모국어를 지키고 사랑함으로써 민족의 넋을 지키도록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큰것으로 된다.

## 과학환상단편소설



# 3차원상에서의 폭발

한성호

세련이의 전화를 받고난 명철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시험을 미루다니?...

이제껏 준비해왔던 시험을 갑작스레 미룬다는것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정황이 발생하였음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것일까?

명철은 이대로 있을수 없었다. 세련을 직접 만나 알아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서둘러 집을 나선 명철은 정원에 세워놓은 승용차에 올랐다.

《시험장으로!》

그의 말소리가 울리자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마당을 벗어나 촌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태양전지와 수소전지를 리용한 초매체지능승용차는 거치른 동음도 배기가스도 없었다.

처음 이 승용차를 탈 때에는 얼마나 신기하게 여겨졌던지 모른다. 마치도 동화속을 달리는듯 했었다.

확실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속도보다 인간의 습관되는 속도가 더 빠른것 같았다.

지금에 와서 명철에게는 초매체지능승용차도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던것이다. 더우기나 시험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는 의혹과 불안으로 하여 명철은 그런것에 대해 느낄 여유도 없었다.

오늘 하게 되어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우주공간에서만 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 고순도 고품물질의 합금과 그밖의 특수재료들의 생산을 우주공간이 아닌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도 팡팡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험이였다.

물론 과학기술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

이 시험도 얼마후면 조금도 신비할것이 없는 보통일로 될것이였다.

하지만 당장 고순도고품질물질의 합금과 특수재료들을 얻자면 그 합금과 특수재료량이 극히 보잘것없는 량이라고 해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우주비행체를 띄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실지로 우주공간에서 만든 합금은 지구에서 만든 합금에 비할바없이 좋은 성질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수명과 강도가 거의나 영구적이고 최상의 질을 보장하고있었다.

우주공간은 초고진공에 무중력상태이므로 분자량이 다른 물질들이 리상적인 합성을 이룰수 있었고 불순물이 없음으로 하여 물질의 순도를 리상적인 수준으로 높일수 있기때문에 반도체재료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수재료들을 손쉽게 얻어낼수 있었다.

빨리 발전하는 인민경제는 나날이 더 많은 고순도고품질물질의 합금과 특수재료들을 요구하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주비행체를 리용하여 고순도고품질물질의 합금과 특수재료들을 얻어내는 식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해낼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연구조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론쟁이 분분했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가설들과 착안들이 여러가지 제기되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이 인공 무중력공간조성에 대한 문제였다.

로케트나 우주비행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중력공간에서도 일할수 있도록 비행체안에 인공적으로 중력을 조성하는데 지구상에서는 왜 일정한 장소에다 무중력공간을 인공적으로 조성할수

없단 말인가. 지구상에서의 인공적인 무중력공간 형성...

만약 그렇게만 되면 지구상에서도 고순도고품질질의 합금과 특수재료들을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절대진공속에서도 중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은 이미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신심이 생겼다. 즉시 고속연산속도와 다중과제 처리기능을 가진 워크스테이션컴퓨터를 가동시키고 고순도고품질질의 합금과 재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무중력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장설계와 거기에 따르는 특수설비운영공정프로그램작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이렇게 되어 몇달만에는 인공적인 무중력공간상에서의 고순도고품질질의 합금과 재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조종장치체계공정프로그램까지 전부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바로 그 고순도고품질질의 합금과 재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컴퓨터모의시험을 오늘 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아침 세련은 시험을 중지해야할 정황이 조성되었다고 알려온것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것일까...

승용차는 줄줄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사이로 빠져나와 교외의 숲속을 꿰지른 다음 시험장앞에 스크룩 벗어섰다.

차에서 내린 명철은 더욱 불안해지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파르스름한 투광등빛이 흐르는 시험장안은 수십대의 컴퓨터가 사열을 받듯 랑옆으로 줄지어 놓여있었다.

방을 둘러보던 명철은 더 큰 불안을 느꼈다.

시험장이 너무도 조용했던것이다. 그들을 지도하는 최명박사도 보이지 않았고 연구조책임자인 세련이도 없었다.

다만 연구조에 갓 망라된 순희가 혼자 오도카니 앉아있을뿐이였다.

명철은 순희에게 물었다.

《세련동문 어데 갔소?》

《글쎄요. 나온것 같긴 한데...》

명철은 의아해졌다. 매일 시험실에서 살다싶이 하던 세련이가 자리를 뜬것부터가 이상했다. 책임성에서는 바늘 들어갈 틈도 없는 세련이였다.

《만나보지 못했소?》

《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온것 같다는건 무슨 소리요?》

《이걸 보세요》

하면서 순희는 웬 종이장을 명철이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세련동무의 책상우에 있는걸 봐선 나온

게 분명해요. 어제밤까지 이렇게 없었으니까요.》

《그게 뭘데?》

《세련동무가 복사해놓은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에 대한건데 ... 끔찍한 자료예요.》

《끔찍한 자료?》

《막 무서워요. 소름이 끼치는게...》

《무슨 자료이기에 무섭다는거요?》

명철은 의아해져서 종이장을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어느 한 나라에서 컴퓨터의 고급한 기술을 받아들여 장편만화영화를 만들어 텔레비존으로 방영하였다. 사전에 영화에 대한 요란한 광고선전도 있었기때문에 일반 영화프로시간때보다 시청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도중에 시사때에는 없었던 뜻밖의 괴이한 일이 벌어져 사람들을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영화가 시작되어 중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주인공의 눈이 상상할수 없을 만큼 무섭게 번쩍거리며 화면을 짝 채우자 텔레비존을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정신착란증으로 쓰러지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날에 그 나라에서는 근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거리와 병원들이 대혼잡을 이루었다는것이였다.

명철은 잠시 자료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보였으면 그렇게 술한 사람들이 공포에 넋을 다 잃었을가.

명철이의 눈앞에는 어지러운 환영이 떠올랐다.

아우성치는 사람들, 꼬리를 물고 달리는 구급차, 밀차에 실려 병원으로 들어가는 환자행렬, 몰려드는 기자들과 번쩍거리는 사진기의 섬광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컴퓨터의 기교기술이 리용된다는것은 얼마나 분개해야 할 일인가.

명철은 그 자료가 별로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도대체 이런 자료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연구사업에 무슨 련관이 있다고 세련은 여기에 내놓기까지 했을가.

명철은 대수롭지 않게 자료를 밀어놓으며 세련이가 들어오지 않는가 하여 문쪽을 바라보았다.

오늘 진행하게 되어있던 시험을 갑자기 왜 뒤로 미루자고 하는지 세련이가 빨리 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데...

명철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세련동무가 도대체 어떻게 된걸가?》

《혹시 어제일때문이 아닐가요?》

《어제일?...》

그러자 명철의 눈앞에는 파랗게 질려있던 세련이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어제였다.

시험실에서 고순도고품질물질의 합금로 최대열치수를 컴퓨터로 재검토해보던 세련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앗! 이걸 좀 봐!》

《왜 그래?》

순희가 얼른 세련에게 다가갔다.

《합금로안에서 이상한 불빛이 번쩍거려.》

명철이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그쪽으로 갔다. 화면에서는 정말 강한 불빛이 번쩍거리고있었다.

《?!》

그 불빛은 캄캄한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번개처럼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리다가 인차 사라졌다.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 명철은 제격 마우스를 당겨 컴퓨터를 조종해보았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듯싶게 불빛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불빛이었을가?》

하고 순희는 명철을 돌아보았다. 명철이 역시 머리를 기웃거렸다.

《전자기과 장애현상이 아닐가?》

《전자기과?》

세련은 미간을 쪼프리더니 머리를 저었다.

《그런것 같지 않아요.》

하고 그는 눈두덩을 손으로 누르며 말했다.

《그 불빛을 봐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막 아파나는게 참 이상해요.》

《뭐?》

명철은 세련이를 눈여겨보았다.

빨갳게 충혈진 두눈, 훌쩍 패워져들어간 두볼.

명철은 잠간사이에 파리해진듯 한 세련을 놀랍게 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사이 어떻게 밤낮을 가리지않고 컴퓨터와 씨름질해왔던가를 새삼스럽게 상기했다.

더우기 책임자인 세련은 분초의 여가도 없이 일했다. 잠은 물론 때식도 잊고 일했다. 피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도에 이르렀을것이었다. 쓰러지지 않은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명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동문 너무 무리했어. 우선 동무한테 필요한건 휴식이요.》

세련은 그 말에 긍정하는듯 했으나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 하면서 컴퓨터에 마주앉아 작업을 계속했다. 명철은 그후 다른 일로 자리를 떴었다. ...

그는 어제 본 컴퓨터화면상에서 번쩍거리던 불

빛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세련이가 왜 그렇게 눈과 머리에 심한 아픔을 느꼈을가?

그 불빛은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

명철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그것은 분명 전자기과장애현상이었을것이다.

눈과 머리의 아픔은 지나친 피로때문일것이다.

《세련인 너무 무리했었어...》

명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말대로 정말 시험을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맥이 탁 풀렸다. 마치도 필사의 힘을 다해 뿔을 물고 달려들어가다가 꼴문 바로 앞에서 《경기중지!》 하는 호각소리와 맞닥들린듯 한 심정이였다. 어쨌든 세련이가 오지 못하면 시험은 못한다. 기능설정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핵자기공명관이 세련에게 있었던것이였다.

《왜 안올가?》 하고 중얼거리며 명철은 세련의 컴퓨터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명철이의 눈이 커졌다. 서랍안에 낫익은 씨디판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 씨디판은 틀림없이 지구상의 인공무중력공간에서 고순도고품질인 합금과 재료들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들을 자동적으로 운영관리할 기능실행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핵자기공명관이였다.

《순희동무, 여기 종합씨디판이 있구만.》

순희도 그것을 보고나서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 옳구만요.》

명철은 씨디판을 손에 들고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했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지 않겠소?》

순희가 눈을 크게 떴다.

《책임자도 없어요?》

《종합적인 시험은 말고 공정부문별 시험만이라도 해보자는거요. 그러지 않아도 세련동문 피곤이 극도에 달했는데 우리가 뭔가 해서 책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게 아니요.》

순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옳아요. 좋은 생각이예요.》

명철은 컴퓨터전원스위치를 넣고 동작상태를 잠시 지켜보다가 (모든것이 정상이었다.) 씨디판을 구동기에 밀어넣었다.

《찰각-》 하는 씨디판이 들어앉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자그마한 새 한마리가 나타났다.

그 새는 몇초동안 이리저리 날아다니더니 화면구역쪽 모서리에 가서 파드득거리며 떠있었다.

《아이 깜찍하네, 이견 도대체 뭐예요?》

순희가 커다란 눈에 호기심을 담고 물었다.

명철은 벌써 웃었다.

《저건 그 어떤 비루스도 막을수 있는 전자비루

스왑된인 <벌새>요.》

《<벌새>! 이름부터 그럴듯 하구만요.》

《벌새》가 저렇게 파드득거리며 모서리에 가서 떠있는것은 컴퓨터상에 침습한 어떤 비루스도 없음을 알려주는것이였다. 비루스가 나타났으면 《벌새》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스럽게 날고 있을수 없었다. 그는 길고 예리한 부리로 비루스를 즉시 잡아낼것이였다.

명철은 자신만만하게 컴퓨터를 동작시켰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우더니 뜻밖에도 《시험을 진행하지 말것!》 하는 글자가 나타났다.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순희가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다.

《글쎄...》 하며 명철은 화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러자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던 세련이의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났다.

《시험을 뒤로 미루어야겠어요.》

명철이가 머리를 기웃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제기되었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컴퓨터에까지 이런 글을 새겼을까?...

순희가 근심스러운 눈으로 명철을 보았다.

《혹시 프로그램에 무슨 이상이 생겼거나 새로운 비루스에 침습당한건 아닐까요?》

명철은 애써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저 <벌새>가 날고있다는건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걸 담보해주는거요.》

《그렇긴 한데...》

《난 이 <벌새>를 믿소. 동문 잘 모를수 있는데 말이요.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소.》

명철은 새로운 비루스침습당시 노우-하우보안에서 전자비루스와의 <벌새>가 논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여주었다.

노우-하우란 새롭게 착상한 기술적제안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얻어진 고도로 숙련된 독특한 기술로서 철저한 비밀담보를 전제로 하고있는 지식의 집적을 말한다.

어느날 바로 그 노우-하우가 위태롭게 되었다.

컴퓨터망에 새로운 비루스가 침습했던것이다.

정체불명의 그 비루스는 종래에 보기 드문 여러가지 파괴현상을 나타냈다. 화면과 소리에서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적인 비루스처럼 다른 서류에 자기자체를 복제하여 전파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혼시, 압박, 공갈, 놀래움, 파괴 등 다양한 형태로 혼란을 일으켰다.

이 비루스는 대양건너의 해커들에 의하여 개발된 《트로이 목마비루스》의 변종인 《블랙비루스》라고 불리우는 비루스였다.

컴퓨터사용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개발한 비루스와의 프로그램들은 《블랙비루스》를

막지 못했던것이다. 지어는 감촉하지도 못하거나 발견하고서도 속수무책이였다.

때늦게나마 이 소식을 들은 명철은 아찔해졌다.

극비밀리에 입력해둔 노우-하우서류도 《블랙비루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을것이 분명했던것이다.

미리부터 절망감을 가지고 노우-하우서류를 들춰보던 명철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제눈을 의심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컴퓨터사용자들속에서 비루스에 감염된 서류전체를 삭제하거나 새로 복제하느라고 야단치고 있는데 노우-하우는 아무렇지도 않았던것이다.

비루스침습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벌새》가 《블랙비루스》를 사전에 물리치고 노우-하우를 보안해냈던것이다. ...

명철이의 말을 듣고 순희가 탄성을 질렀다.

《<벌새>가 대단한 위훈을 세웠었구만요.》

《그것 보오. 이 <벌새>가 살아있다는건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거요.》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희에게 다시한번 확신을 주고나서 명철은 컴퓨터앞으로 바싹 다가갔으며 정식 지령을 떨어갔다.

《컴퓨터! 모의시험에 들어갈것.》

명철이의 말을 제격 받아들인 생물지능컴퓨터는 우주의 특이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알고리즘(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처리내용과 순서를 밝혀놓은것)을 민감하게 제시해보이고나서 모의시험에 들어갔다.

방안의 불이 꺼지고 책장과 벽체가 모두 레이자립체화면으로 변했다.

정면벽 한가운데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떠있는데 그것은 컴퓨터의 적, 청, 록 삼원색의 색상기능인 알지비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자연환경색감이 그대로 났다.

거기애다가 가상현실감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좌우측면과 앞뒤의 벽체 그리고 천정까지도 모두 우주공간처럼 느껴졌다.

명철은 언젠가 천체모양을 컴퓨터3차원상에서 그려보이며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가 마치 태평양을 떠다니는 부유생물처럼 얼마나 작아보여?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오...》 하고 말했을 때 세련이가 머리를 흔들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니...그렇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실지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 않아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예요. 우주의 주인도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침내 화면이 바뀌우더니 고순도고품질의 합금작업공정이 나타났다.

명철이와 순희는 바싹 긴장하여 화면을 지켜보



았다. 연속적으로 화면카드가 번져지면서 합금생산공정흐름설비들이 눈앞으로 흘러갔다. 로봇들  
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기계조작을 하고있었다.

합금작업이 시작되었다. 해빛에 번쩍거리는 은  
백색의 합금설비들의 고르로운 동음소리가 울리  
자 고순도고품질의 원료들과 소재들이 공간에  
떠서 합금탱크안으로 가볍게 흘러들어가기 시작  
했다.

《모두 정상이군요.》

순희의 말에 명철은 빙그레 웃었다.

매 공정들이 순조롭게 가동하는듯 파아란 신호  
등들이 깜박거린다.

공정들에 대한 검토는 성과적이라고 할수 있었  
다. 지금 합금탱크안에서는 무중력상태인것으로  
하여 밀도가 서로 다른 성분들이 떠오르거나 가  
라앉는 현상이 없이 고르로운 조성을 가지게 됨  
으로써 아주 리상적인 합금이 생산되고있을것이  
였다.

명철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어리었다.

이제는 부분별 시험을 그만둘것인가 아니면 좀  
더해볼것인가 잠시 망설이고있는데 별안간 빨간  
신호등들이 급작스럽게 깜빡거리며 위험신호소리  
를 냈다.

이어 한개의 합금로에서 불시에 채채기하듯 클  
럭거리더니 주홍색불길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영?!》

명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뜻밖의 정황이었다.

그 어떤 예견치 못했던 반응으로 인한 불길인  
가 아니면 폭발을 앞둔 불길인가?

그러나 명철은 그것을 당장 확인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문가에서 돌연 《중지해! 프로그램 중  
지!》 하는 예리한 목소리가 울리는것과 함께 콤퓨  
터가 꺼졌기때문이었다.

《영?!》

명철은 후닥닥 일어나서 문가를 돌아보았다.

문가에는 세련이가 서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  
보다 더 수척해지고 해쓱해보였다. 눈만은 섬찍할  
정도로 날카로운 빛을 뿜고있었다.

《콤퓨터를 동작시키지 말라고 한 표식을 못봤  
어요?》

《...》

여느때라면 세련은 명철에게 이런 투로 말하지  
못했을것이었다. 명철이 역시 가만 있지 않았을것  
이다. 그러나 이때는 합금로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이상한 현상, 그보다도 세련의 눈길이 뿜는 너무  
도 예리한 빛이 함부로 입을 열수 없게 했다.

명철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  
름어름 말했다.

《표식은 봤는데... 공정이나 한번 검사해보려구

...》

《동문 어쩌면...》

세련의 눈에서 예리한 빛이 꺼졌다. 그는 천천  
히 콤퓨터의 전원스위치마저 껐다.

《아니?...》

명철은 의아해서 세련을 쳐다보았다.

방금 합금로에서 생긴 이상한 불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련이의 행동을 보면 그는 이상한 불길  
현상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아  
침에 명철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시험을 뒤로  
미루어야겠다고 한 일과 그것도 불안스럽고 못미  
더워 콤퓨터를 동작시키지 말라고 화면상에 표식  
을 한것만 봐도 틀림없이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원인해명을 위해 콤퓨터를 동작시켜야  
하지 않는가?

명철은 세련에게 말했다.

《콤퓨터를 다시 동작시켜보지요.》

하지만 세련은 어느때의 그답지 않게 단마디로  
칼날처럼 잘라버려 명철을 다시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안돼요!》

《안된다구?》

명철은 세련을 유심히 마주보았다.

《왜 안된다는거요?》

세련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듯 했다. 얼마 시간  
이 지나서야 짜내듯이 말했다.

《프로그램을 검색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철은 흠칫 놀랐다.

《프로그램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는거요?》

세련은 대답대신 되려 물었다.

《명철동문 만화영화사건에 대한 자료를 봤어  
요?》

명철은 콤퓨터탁우에 놓여있는 종이장을 흘끔  
내려다보았다.

《봤소. 그런데 그게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소?》

《있을수도 있어요.》

하며 세련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 영화주인공의 이상하게 번쩍거렸던 두눈...  
그건 혹시 사람의 신경계통에서 가장 약한 부분  
을 타격하는 광선이 발사된것일수도 있어요.》

《뭐 광선?...》

명철은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졌다. 듣기만 해도  
오한이 나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그는 곧 픽-하  
고 웃어버렸다.

《그건 지나친 억측같소. 나는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포와 불안속에서 생활하던  
나머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증의 발작이었  
다고 생각하오. 그럴수 있지 않소? 우리는 공포와  
불안을 모르고 살아오다니니 그런 현상을 그 어

면 비상한것으로 보려고 하는데...》

세련이가 머리를 짓는 바람에 명철은 말을 끊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봐요. 난 어제 시험에서 나타났던 불빛에 대해서도 무심히 말할 수 없어요.》

《아, 그 불빛?...》

명철은 그제야 세련의 말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 말에 내포되어있는 뜻에 반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동문 우리가 개발한 고순도고품질의 합금생산공정프로그램에 비루스가 침습한것 같다는거요?》

《...》

세련은 눈을 내리깔았다. 침묵은 긍정과도 같다.

명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비루스가 침습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에 대한 못미더움이라고 할수 있었다. 세련은 명철이가 개발한 숨씨있는 비루스사냥군인 《벌새》에 대해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결국 비루스가 침습한것 같다고 생각하는것은 곧 《벌새》의 능력에 대한 부정이었다.

명철은 세련을 건너다보았다.

《동무도 노우-하우를 지켜낸 <벌새>의 능력에 대해선 인정하겠지?》

《명철동무, 하지만...》

명철은 반발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난 시험을 하자는 의견을 정식 제기하오.》

세련의 태도는 전과 같았다.

《안돼요.》

《...》

명철의 눈에서 불꽃이 평곳 일었다. 하지만 세련은 명철의 분개한 눈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보며 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시험하길 바랄수도 있어요.》

《누가?》

《비루스가.》

《뭐요?》

명철은 그만 폭소를 터뜨렸다.

《동문 비루스가 무슨 지능을 가진 존재인것처럼 말하누만.》

그러나 세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침착했다.

《물론 비루스는 지능을 가질수 없지만 비루스 그 자체는 지능의 산물이에요.》

《...》

명철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화가 치밀었다.

세련인 지금 《벌새》를 전혀 믿지 않고있다.

하지만 명철의 생각은 달랐다. 《벌새》는 이미 전에 노우-하우를 《블랙비루스》로부터 당당히 지

켜낸 전적을 가지고있지 않는가.

명철은 눈을 번쩍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벌새>를 믿소!》

《명철동무, 세상엔 여러가지 병들에 대한 확언이 나왔지만 완전무결한 감기확언만은 없다는걸 동무도 알고있겠지요. 그건 감기비루스가 너무도 그 변종이 많기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콤퓨터 비루스는 그 총수가 감기비루스보다 훨씬 더 많다는걸 동무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하오!》

명철은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에 난 콤퓨터를 시동시켜 결과를 보자는거요.》

《...》

세련은 잠시후에야 조용히 말했다.

《동무도 방금전에 합금로에서 일어난 이상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건 반응식에서 착오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럴수 있는거요.》

《아니, 반응식은 정확했어요.》

《확신하오?》

《확신해요.》

《...》

명철은 그만에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세련의 말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세련의 말은 언제나 정확했던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세련동무, 콤퓨터전원을 넣어주오.》

《?...》

명철은 서둘러 말했다.

《난 동무의 말을 믿소. 옳으리란걸 인정하오. 때문에 시험을 해보아야겠다는거요. 그 원인을 빨리 밝혀내야 할게 아니요?》

세련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명철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고있소.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할게 아니요. 이건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세련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문 어찌면...》

그것은 조금전의 《동문 어찌면...》과는 다른것이였다. 아까는 명철에 대한 안타까움이였지만 이때는 그에 대한 감동이 담겨있었다.

세련은 그를 이해한것이였다. 그러나 잠시 그를 지켜보던 세련은 다시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콤퓨터를 동작시키지 말라고 한건 최명연구사선생님의 지시예요.》

《박사선생님이?》

《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 최명박사는 그들의 연

구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과학원에서 온 연구사 선생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진짜로 어떤 위험이 숨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명철동무.》

세련이 부르는 소리에 명철은 머리를 들었다.

《동무가 박사선생님한테 좀 가보지 않겠어요? 순희동무와 함께 말이예요.》

명철이의 의아해하는 시선에 세련은 차근차근 말했다.

《난 박사선생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중지하라고 한 것이 걱정스러워요. 그러다가 혹시 선생님이...》

《뭐요?》

명철은 벌떡 일어섰다. 세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았던 것이다. 아니. 선생님은 꼭 그럴 것이다.

《가겠소. 지금 당장 가겠소.》

명철은 출입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순희동무, 빨리!》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최명박사는 명철이와 순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동무들이 웬일이요?》

(세련이의 생각이 옳았구나. 선생님은 혼자서 그 시험을 하려고 했었구나.)

명철은 문가에서 박사의 얼굴만 쳐다보며 서있었다.

최명박사는 잠시 지나서야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명철이와 순희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소?》

명철은 한순간 대답할 말을 못 찾고있다가 얼마 후에야 대답할 말을 찾아냈다.

《선생님, 컴퓨터모의시험을 왜 중지시켰습니까?》

《아, 그것때문에 왔소?》

최명박사의 안색은 무거웠다.

《당분간 중지해야 되겠소. 지금 고순도고품질인 합금생산공정에서 나타나고있는 오유동작은 컴퓨터의 전자장치나 또 프로그램합금공정의 그 어떤 착오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비루스에 의한 것이 분명하오.》

《에?!》

명철이와 순희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이미 세련이에게서 듣고온 것이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추측이 아니라 확증된 것이라는데 숨이 가빠지는 듯 했다.

최명박사는 말을 계속했다.

《세련동무도 어제 시험에서 나타났던 합금로안에서의 이상한 불빛현상이 비루스에 의한 현상인 것 같다고 제기해왔소.》

《...》

《그래서 프로그램공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았소. 그 과정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형태와 방법을 보면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고순도고품질의 합금과 그 재료들에 대한 생산공정의 내탐과 그밖의 더 음흉한 목적을 기도한 새로운 형의 비루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소. 혹시... 그 비루스가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새로운 신경성전자비루스의 변종이 아닌지 모르겠소.》

새로운 신경성전자비루스?!...

명철은 가슴이 섬찝했다.

세련이도 바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 《별새》만을 너무 믿던 나머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뻔 했는가.

그는 얼굴색이 퍽퍽해졌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최명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사람을 돌아보았다.

《너무 걱정할 건 없소. 컴퓨터상에서 오유동작원인을 정확히 규명만 하면 어떤 변종의 비루스가 침습했는가를 명백히 밝혀낼 수 있소.》

박사선생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니 컴퓨터시험을 해야 한다. 그것도 내가.

명철은 결심이 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최명박사는 그의 생각을 벌써 들여다본 듯 그의 어깨를 눌러 도로 앉혔다.

《안되오. 이 시험은 비루스형태에 따라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오. 가만, 그런데 왜 세련동무가 보이지 않소?》

최명박사는 그때에야 세련이가 생각난 듯 명철에게 물었다.

《세련동무 지금 시험장에 있습니다.》

박사는 소스라치듯 놀란다.

《뭐라구?!... 왜 그 동무를 시험장에 혼자 두고 왔소?》

명철은 까닭없이 가슴이 섬찝해져 두서없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우리더러 빨리 가보라고 해서... 선생님이 혼자서 위험한 시험을 할 수 있다면서...》

최명박사는 책상을 탕! 하고 내리쳤다.

《동무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 동무가 혼자서 시험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에?!》

명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세련이가 왜 자기들을 이리로 급히 보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최명박사가 위험한 시험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아- 세련이!

명철은 머리를 싸쥐었다.

최명박사는 급히 책상우에 있는 조작판스위치를 눌렀다.

순간에 벽체가 플라즈마형광막으로 변했다. 잠시 후에 세련이가 있는 시험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전차나 빔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페라니트 위생복을 입고 우주비행포처럼 생긴 보호모자를 쓴 세련이가 막 컴퓨터쪽으로 다가가고있었다.

최명박사의 말이 맞았다. 명철은 지도 모르게 화면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세련동무!-》

마이크 증폭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최명박사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방안을 울렸다.

《세련동무, 시험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허나 듣는지마는지 세련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세련이!-》

《세련동무!-》

최명박사가 다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세련인 우리 말을 듣지 못하오. 모든 음향장치를 차단시키게 분명하오.》

《예?!》

《이제라도 빨리 가보지요. 빨리!》

방에서 달려나온 그들은 승용차에 뛰어올라 긴급지령을 주었다.

《시험장 전속력으로!》

지능승용차는 연구소정원의 바늘나무숲사이를 신속히 빠져나오자 발사된 포탄처럼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운전조종이 다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차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지나친 속도는 위험한것이었으나 그들은 그런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시험실에 도착하자 순희가 남먼저 앞서 시험실로 달려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문가로 들어서던 명철은 우뚝 서버렸다.

한발 먼저 들어간 순희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세련동무, 정신차려, 정신을...》

세련이 의식을 차린것은 과학원병원에서였다.

병원외부 변색수지벽체에서 발산되는 칠색무지개빛이 아롱지게 빛나며 창문을 통해 방안에 흘러들어와 아늑한 감을 주는 병실이었다.

명철이와 순희가 방에 들어섰을 때 세련의 옆에는 최명박사가 앉아있었다.

《정말 다행이요...》

《...》

세련은 퍼그나 나온듯 홍조어린 볼우물을 곱게 패우며 웃었다.

방안에 자동조명이 켜졌다. 밖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방안이 어두워지자 자동빛수감부가

동작했던것이다.

최명박사는 가방에서 휴대용 CD 록화기를 꺼내 놓았다.

《이번에 세련동무가 중요한 비루스의 정체를 밝혀냈소. 자, 세련동무의 시험과정을 우리모두 함께 보지요.》

전원스위치를 넣었다. 그러자 록화기에 달린 액정화면에 시험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련이가 시험하던 장면들이 다시 재현되었다.

고순도고품질질인 합금생산설비의 조작판에 달린 파란 신호등대신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며 위험신호소리가 났다.

명철이가 시험할 때처럼 합금로 한개가 불시에 재채기하듯 쿨럭거리더니 주홍색불길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합금로가 끝내 폭발하는 것이었다.

《짱! 파르릉!...》

둔중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화면전체를 짹 채웠다. 그러자 실험실은 온통 불길에 싸인듯 했고 세련은 화염에 가리워 보이지도 않았다.

얼마동안 시간이 흘러서야 화면을 짹 채웠던 화염이 서서히 걷히고 실험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컴퓨터를 주시하며 까닥않고 앉아있는 세련의 모습도 나타났다.

명철은 의문어린 시선으로 순희를 돌아보았다.

순희도 머리를 흔들었다.

폭발이 왜 일어났을까?

세련인 왜 그냥 앉아있을까?...

이때였다. 컴퓨터화면에 깨알만 한 반점 하나가 찍혀지듯 하더니 서서히 크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

명철이와 순희의 두 눈동자가 방전을 일으키듯 다시 마주쳤다.

최명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잘 보오. 이제부터 기본이요.》

반점이 급속히 쑥 커졌다.

명철은 얼른 《벌새》를 찾아보았다.

최신형의 전자와전이라고 명철이가 장담하던 《벌새》는 아무 일도 없다는듯 화면구석에서 그냥 날개를 퍼덕거리고있지 않는가.

새로운 비루스도 잡아내지 못한채 날개를 퍼덕거리는 《벌새》는 이미 능력을 상실한 눈먼 《벌새》에 불과했던것이다.

《완두콩》알이 점점 화면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저 《완두콩》알은 도대체 뭘가?...

화면속의 세련이도 이상한 《완두콩》알을 지그

시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완두콩》알에서 번쩍! 하며 강한 빛섬광이 뿜어나오고는 눈깜짝할 새에 사라져 버렸다. 그 빛은 얼마나 센지 마치도 초신성의 폭발이 일으킨 강력한 불빛처럼 눈을 마구 지저대는 자극적인 불꽃이었다.

시간은 기껏해서 0.2초내지 0.3초밖에 안되는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강렬한 빛섬광을 주시하던 세련이가 앞으로 폭 꼬꾸라지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버리는것이였다. ...

목화기는 꺼졌지만 너무나도 뜻밖의 광경앞에서 명철이와 순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최명박사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불빛은 력학 및 생화학적에네르기를 가진 특수한 광선으로서 사람의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 신경호르몬계통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무서운 비루스요. 때문에 지금 이 시험장면을 목화할 때 X광선차단장치를 리용하여 그 이상한 <완두콩>알에서 나오는 빛에서 사람몸에 해로운 요소를 전부 없애버렸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타격에 쓰러질거요.》

명철은 흠칫 놀랐다.

《아니, 그럼 합금로폭발은...》

최명박사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백하게 말했다.

《옳소. 합금로폭발도 물론 비루스가 일으켰소. 하지만 비루스의 기본목적은 합금로폭발이 아니었소.》

《예?!...》

《합금로폭발은 우리의 두뇌진들을 일시에 쓰러뜨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던거요.》

《...》

명철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합금로폭발을 일으켜놓은 다음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술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컴퓨터앞에 마주앉을 때를 노린 비루스.

아!...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원수놈들의 책동인가.

명철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며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놈들은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나 우리의 과학진지를 허물려고 하는데 난 《별새》 하나만을 믿고있었으니 ...

명철은 비로소 오늘의 계급투쟁이 치열한 두뇌전으로 된다는데 대해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

명철은 얼굴을 붉혔다.

최명박사는 명철이와 순희의 어깨를 다정히 짚으며 말했다.

《오늘의 과학연구사업은 조국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소. 우리의 과학과 기술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자들의 과학연구집단들은 유령처럼 돌아치며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 모든 력량을 다 동원하고있소.

지금 그들은 <777>광선이라는 새로운 빛립자 묶음을 만들려고 미쳐 날뛰고있소.

보시오. 인터넷은 사실상 오늘 미래전쟁의 제4차원 <전장>으로 되고있소. 오직 여기에 대응해야 할 높은 수준의 컴퓨터망어벽은 바로 끊임없는 우리의 새로운 연구사업성과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는거요. 그래야 우리의 과학진지를 철벽의 방선으로 다져나갈수 있소. 우리가 순간이라도 긴장성을 늦추면 과학의 발전이 늦어지고 조국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오.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과학연구사업이 2차원이 아니라 제3차원상에서 진행된다는걸.》

《선생님, 제가 그만...》

명철은 머리를 떨구었다.

세련은 조용히 말했다.

《명철동무, 박사선생님은 지금 광선비루스를 소멸하고 우리의 과학진지를 굳건히 지켜낼 새로운 전자완전비루스 《철벽》을 개발하고있어요.》

머리를 든 명철의 눈길이 번쩍했다.

《선생님, 저도 새 완전개발사업에 참가하겠습니다.》

《중소. 우리 함께 합시다.》

최명박사는 환하게 웃었다.

## X

그로부터 얼마후, 고순도고품질질을 생산하기 위한 컴퓨터모의시험은 그 어떤 해커들의 해킹행위에도 끄떡없을 새로운 전자완전비루스인 《철벽》의 튼튼한 전자방탄벽에 보호되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즉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모의시험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되였다.

세계는 환희에 잠겼다. 그것은 금보다 더 값비싼 고순도고품질질인 합금과 재료들을 온 인류가 향유할 날이 도래하고있음을 알리는것이였다.

바로 이날 컴퓨터모의시험에서 성과를 거둔 과학전선의 미래의 전초병이며 조국의 새 세대 아들딸들인 명철이와 세련이를 비롯한 우리의 미더운 청년학생과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완전비루스인 《일당백》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 한해를 보내며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찼던 뜻깊은 주체95(2006)년!  
이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보람찼던 한해를 보내며 우리 작가들도 많은것  
을 생각할것이다.

올해에도 우리 작가들은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  
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  
동사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  
약하자》에 제시된 모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  
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는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승리와 성과에 토대  
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  
으켜나가야 할 전면적공세의 해였다.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  
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를 빛내  
이는 보다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한사  
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 작가들은 《조선문학》잡지 지면에 론설들  
인《수령영상을 핵으로 하는 새형의 주체문학건설  
의 대강》(천재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더 빛나게 창조하자》(최연경), 《당의 령  
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문학의 빛나는 로정》  
(김순림)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  
여 발표하였다.

단편소설작품들인 《포화속의 전당》(리정수 작),  
《소생하는 계절에》(문상봉 작), 《영원한 포옹》  
(리일룡 작), 《마지막왕진》(김홍익 작), 《어느 일  
요일에》(한웅빈 작), 시가작품들인 장시 《폭풍  
의 생애》(김만영 작), 서사시 《만년성벽》(최  
윤철 작), 장시 《45분》(윤정길 작), 시초 《웃  
으며 가는 길에 행복이 온다.》(류동호, 주광일, 한  
광춘, 도명희, 박정애 작), 《철산봉》(리연희 작),  
《선군과 녀인》(렴형미 작), 서정시 《태양의 축  
복》(김재원 작), 《돌격대거리》(문용철 작), 《로  
병의 고백》(문선진 작), 가사 《대홍단해병》(김  
윤식 작), 《장군님 바다는 넘려마십시오》(박두  
천 작) 등은 비교적 독자들의 인상에 남는 작품  
들이었다.

그리고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리동수 작),  
《통일애국투사-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  
설련의 창조와 소설문학의 새로운 전진》(리수립  
작),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과 주인공들  
의 형상》(한중모 작), 《단편소설의 매혹과 감동  
은 어디에서 오는가》(천재규 작), 《총탄처럼 박  
히는 련속단편소설의 형상세계》(한미영 작) 등  
비교적 우수한 평론들, 창작수기 《욕망, 고민, 교  
훈...》(허문길 작)을 창작하여 《조선문학》잡지

에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올해 작가들이 창작하여 발표한 작  
품들에는 성과작들도 많지만 미숙한 작품들도 일  
정하게 있다.

우리 작가들은 새해에 올해의 성과는 적극 살  
리고 창작에서 미흡한 점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  
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문제로서의 철  
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성스러운 본  
분을 다할 때 진실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새해에도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를 받들어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보다 우수한 작  
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해 분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을 형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는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  
들을 사상에술성이 높게 왕성히 창작해내는것은  
우리 문학에서 언제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영예로운 사업이다.

작가들은 새해에도 백두산3대장군의 빛나는 형  
상을 창조하는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  
어쥐고 나감으로써 백두산3대장군을 적극 따라배  
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  
절한 념원을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새해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작가들이 혁명전통주제, 사회주  
의애국주의주제,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를  
비롯하여 당이 의도하고 요구하는 작품, 선군시대  
가 요구하는 주제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도 계속 깊  
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들을 성과적  
으로 창작해내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  
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선군혁명위  
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것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창작하는 모든 작품  
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  
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작품마다에 우리 당의 사  
상을 깊이 심고 그것을 우리의 감정정서에 맞게  
모두 성과작으로 창작해내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문학작품들이 우리 당의 위  
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새해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작품들에 생활을 진실하게, 새롭게 그리면서도 철학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작품에서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작가의 량심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작품에서 생활이 진실하게, 새롭게 그려졌으면 찾아다니며 읽어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고만다. 때문에 작가들은 작가적량심을 가지고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들에서 생활을 잘 그리기 위해 언제나 생활체험을 깊이있게,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작품들에서 철학성을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문화정서적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사실 작품에 철학성을 구현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작품의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창작되는 작품들에서 철학성을 구현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힘써야 한다.

새해 작가들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보다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것과 함께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뿐아니라 주체적인 관점과립장을 가지고 인간과 생활을 볼수 있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자신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

여야 한다.

새해 작가들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또한 현실체험을 진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체험을 잘해나가는것은 명작창작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작가들은 새해 명작창작에서 현실체험이 가지는 중요성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낸 작가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써낸 작가들 그리고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는 명작을 써낸 작가들의 현실체험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모든 작가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선군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새해 작가들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또한 늘 사색하고 형상을 개성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명작창작을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이 있는 작품, 다시 말하여 개성이 있는 작품창작을 위해 늘 고심분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군시대의 작가라고 말할수 있고 군대와 인민의 사랑받는 작가로 될수 있다.

작가들은 새해 《조선문학》잡지에 더 훌륭한 작품을 내놓기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서야 한다. 하여 새해 누구나 명작창작으로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다.